

8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8호

(루계 제802호)

차 례

오! 8월 25일이여(시)	오 동 규(3)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백두산에 있다(시)	변 흥 영(4)
백두산에 계승자대오가 행군해간다(편시)	장 혜 명(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단편소설 하늘과 땅, 바다	정 기 종(9)
주체문학의 대강	(21)
◇ 궁전을 나서는 어머니들	장 명 길(20)
시 우류에 뜻을 올린 행복의 배여!	전 수 철(21)
◇ 세상에 부림없는 집	박 성 일(22)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22)
시 { 꽃들은 쌓이고 별빛은 내려도(가사)	전 광 원(34)
{ 말발굽소리	정 성 환(37)
{ 산촌의 메아리	박 정 애(37)
{ 우리의 총대는 얼마나 강한가(시초)	김 춘 호(48)
{ 수필 } 웃음에 대한 철학	손 광 수(35)
{ } 꽃눈	박 동 칠(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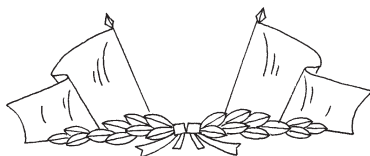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단편
소설

단풍계절	탁 숙 본(23)
소방을소리	백 현 숙(39)
바다로 간 연구사(과학환상소설)	리 명 현(64)
샘줄기는 어디에...(실화문학)	변 영 옥(55)

◇ 시 ◇

동봉별의 새 모습	조 광 철(54)
위성처럼 솟구쳐와 아름다운 거리여(시초)	한 동 선(52)
배길 외 1편	리 의 수(51)
용사모앞에서	박 성 일(63)
북수자들의 노래(시 묶음)	조광원, 김일규, 김형준, 김학률(73)
결사의 딸	염 득 복(79)
죽음의 환영곡(품자시)	조 영 사(80)
달래강전설(지명유래전설)	옥 성 일(78)
상 식	(63), (72), (77)



오! 8월 25일이여

오 동 규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에 더욱 소중히 새겨지는 날이다
8월 25일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 새기신
력사의 이날은

이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
그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가득 차고넘친다

아버이수령님 개척하신 백두의 길
선군의 기치높이 끝까지 가리라
이 숭엄한 결심 품으시고
력사의 그날 땅크사단을 찾으시여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 새기신
아,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

가슴뜨거이 안아보노라
불멸의 그 자욱과 더불어
이 땅의 초소들을 다 찾으시여
병사들 가슴마다에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선군령장의 한평생을

색날은 야전복 눈비에 적시시며
조국의 운명을 지켜
인민의 행복을 지켜
우리 장군님 그 언제나

선군장정의 길에 제시였거니

눈덮인 얼음길에 차를 미시며
파도 세찬 바다길도 헤쳐가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불멸의 선군길

장군님 바쳐오신 헌신의 그 자욱이 있어
내 나라는 불패의 선군의 나라로
그 존엄 온 세상에 빛나고
우리 혁명무력은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천만대적도 발아래 굽어보나니

아, 8월 25일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 찍으신
력사의 이날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에 더 소중히 새겨지는 날

불멸의 그 업적
뜨겁게 새겨안으며
다함없는 감사의 한마음 안고
천만군민은 맹세하나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
영원히 빛내여가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총대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리라
선군혁명의 길 끝까지 이어가리라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백두산에 있다

변 홍 영

유서깊은 삼지연못가
위대한 수령님 동상앞에
숭엄히 서계시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붉은기 날리는 혁명의 사령부를 그려보며
생각도 깊으시다

오늘도 빨찌산군복차림으로
백두산에 계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대장
혈전만리 초연속을 헤쳐오시여
삼천리조국땅을 굽어보시는 청년장군

경건히 그 모습을 우러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정답게 울려오는 수령님의 그 음성
—왔구만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백두산에 왔구만!

금시 대돌을 내리시여
친근하게 부르며 반겨맞아주실듯
여기 백두산사령부에서
끝까지 조선혁명을 완성할
최후승리의 작전도 함께 토의하여주실듯

세월에 쌓인 그리운 정이
이 순간 더더욱 사무치시여
수령님 우러르는 원수님마음속엔
아되고싶은 간절한 사연
그 얼마나 많으시랴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도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곳
백두산사령부 뜨락에서 첫걸음 내짚으시고
백두의 천만산악을 딛고 넘어
선군혁명전장에 붉은기를 휘날려오셨거니

위대한 수령님 개척하시고
장군님 한평생 이어오신

조선혁명의 피어린 천만리길
파란만장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를
자욱자욱 새겨보시는가
열혈장군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엔
우뢰치는 백두의 퇴성
심장의 피를 끓이는 백두의 적기가

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빛나고
불멸의 혁명생애가 어려있는 성산
여기서 시작한 조선혁명은
오직 줄기찬 승리의 한길만을 가리라
그 어떤 모진 광풍도 흠날려버리며
태양이 빛나는 백두의 하늘을 누리에 펼쳐가리라

어제도 혁명의 사령부가 솟아있는 백두산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백두산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전통이
그 억센 뿌리를 내린
백두산을 떠난 우리 혁명은 없다
백두산을 떠난 우리 조선은 없다

백두산혈통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백승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실
펼 펼 끓는 맹세의 불을 안으신
장군의 신념은 억세다
장군의 의지는 강하다

우리 장군의 심장의 엄숙한 선언이
삼천리강토에 우뢰친다
백두에서 높이 추켜든 붉은기아래
조국통일의 열병식도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광장도
장쾌하게 펼쳐지리라

아아,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탑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영원히 백두산에 있다!

련 시

백두산에 계승자대오가 행군해간다

장 혜 명

이분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입니다

이른아침 깊은 밤
때없이 그 모습들 사진으로 보시며
애써 달래시던 마음
발걸음을 재촉하는가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찾아
백두산에 오신 최고사령관동지
달리시듯 빠른 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신다

헤어져 보낸 하루하루가
백날인듯 천날인듯
다시 만나시는 기쁨 안팎에 어리고
반갑게 잡아주시는 손길로
가슴마다 뜨거운 정 부어주신다

눈보라속 답사행군길
함께 가는 심정으로 가슴 불태우시더니
보고싶으신 마음 끝끝내 누를길 없어
하늘길 천리를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아, 이분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입니다!

총대전우들이 있는 곳이면

설사 그곳이
최전방전호라도 기꺼이 나서시고
풍랑세찬 날바다도 서슴없이 건느시는
사랑과 정으로 열렬한 그이의 심장

열혈의 그이 심장에 이어진
지휘관들의 피줄기마다
정이 흐른다 사랑이 흐른다
명령에는 복종이 있다 하지만
사랑과 정에는 충정이 따르거늘

목숨인들 아낌있으랴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불속인들 주저함있으랴
그이 가리키는 최후승리의 한길에

세계여, 알라
조선의 총대가 무엇으로 강한가를
자신을 다 주고 깡그리 바치시는
최고사령관의 사랑과 정으로 버려졌기에
조선의 총대는 강하다!
천하무적이다!

오직 총대로!

높이 모신 동상의 대돌우에서
수령님 땅우에 내려서신듯
빨찌산 김대장모습 그대로이신
최고사령관동지 연설하신다

유서깊은 삼지연못가
혁명의 성산이 지켜보는 곳에서
철석의 신념을 선언하신다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

백두의 혈통을 이으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의 선언
줄기줄기 백두련봉에 메아리친다
두그루 불나무도 송엄히 설레인다

이 나라 흥망성쇠의 력사
반만년을 다 보아온 조종의 산아
어느때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더냐
어느때 그 무엇이 강국을 떨치게 했더냐

항일의 김대장 우리 수령님
총검을 비껴들고 너의 산발 넘나드실 때
백두산아 보지 않았더냐
삼천리에 비껴오던 재생의 서광을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선군으로 붉은기를 지켜가실 때
다시 한번 새기지 않았더냐

총대를 떠나 이 조선이 없음을

숨져가던 조선을 살린 총대
우리 사회주의를 지킨 총대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
최고사령관동지 엄숙히 선언하신다

이 나라 반만년의 증견자 백두산아
너는 길이길이 보게 되리라
총대우에 받들려 변형하는 조국을
영원히 승리하는 조선을 자랑하리라!

기념사진

(1)

어깨우에 별이 많을수록
그 별이 큰 지휘관일수록
바위같이 듚직하고
파묵한줄 알았건만

아니였구나
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각
장령도 대좌도 어느 누구도
줄배기전사들과 다름바 없거니

한생을 적진과 마주하고사는
용감무쌍한 무죄심장의 사나이들
저마다 원수님 가까이 서려고
엎어질듯 달려가 곁에 안기누나

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불마당질해버릴
련합부대를 거느린 지휘관들
어린애마냥 원수님팔을 꼭 잡고
행복의 눈물 감추지 못하누나

아,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울고웃으며 찍는 기념사진이어
력사의 순간을 사진속에 멈춰세워놓고
너는 말하여주는구나

원수님의 제일동지 총대전우들이
최고사령관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를

아, 천백마디 말보다 더 뜨거운
말없는 말로 속삭여주는 기념사진이어

(2)

설레는 백두밀림을 배경으로
우리 원수님 항일전장터에 앉으시여
지휘관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

처음 보는 사진이지만
누구나 하나같이 말한다네
너무도 눈에 익은 사진이라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앞에 둔 그날
우리 수령님도 이렇게 앉으시여
투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다고

사진은 서로 달라도 모습은 하나
원수님은 항일의 날 수령님과 꼭같이
지휘관들 얼굴엔 투사들의 정신이 비껴있다고

세대를 이어오는 백두의 행군길에
백승을 떨치는 조선혁명
불멸의 그 화폭이 어린 사진이어

사진은 서로 달라도 안겨주는 신심은 하나
누구나 확신에 넘쳐 말한다네
최후승리는 앞에 있다고 눈앞에 있다고

밀림이 설레인다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타들던
일촉즉발의 시각
최고사령관동지는 명령하셨다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어로!

억천만번 죽더라도 다시 일어나

붉은기 들고 나아간
그날의 항일대오를 따라
백두의 총대후손들은 행군해갔다
최고사령관이 펄펄 날리며

답사의 길은 끝났어도
최후승리날까지 이어진 길

이 길에서 익힌 걸음새로
이 길에서 배운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달음쳐갈 영원한 행군길

잊지 않으리라
빼앗긴 나라를 찾는 길이
얼마나 피어린가를 사무치게 새겨준
행군길의 칼바람이여
생눈우에 지피던 숙영지의 우등불이여

계승자대오는 안고 가리라
선렬들이 목숨과 바꾼 이 땅에
총대로 통일조선 일떠세울 맹세 안고
멸적의 군단들과 사단들이 기다리는 곳

하늘과 땅 바다초소로 달려가리라

오, 밀림이 설레인다
발악하는 원썬들을 일소에 불이며
포성없는 전승실록을 빛내이신
위대한 영웅의 기상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백두밀림이 설레인다

백두의 녀를 만장약한 총대높이
최후승리공격전에 나서신
김정은원수의 영광찬란한 앞길에
백두의 장군봉은 미소를 보낸다
백두의 정일봉은 채운을 뿌린다

백두의 용암처럼 끓어번진다

찾아오실 때에는
달리듯 빠른 걸음이시더니
떠나가실 때에는
그리도 발걸음 무거우신가

이른봄날 백두고원의 맵짠 바람
외투자락 날리는데
찬바람속에 그냥 서시여
오래도록 손흔들어주시는 원수님

부디 안녕히 다녀가시라
걱정은 끓어 가슴의 뚝을 눈물로 넘고
간절한 마음은 하늘로 날아올라
원수님 타신 비행기를 따라서누나

그 먼길을 찾아오시여
한없는 영광 다 베푸시고도
선뜻 발걸음 못 떼시는 어버이
아, 떨어저선 순간도 못살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이여

그 사랑 그 믿음앞에
련합부대 어느 지휘관인들
오중흡7련대장이 되지 않으랴
결전의 날
최고사령부를 지켜 육탄이 된다면
다시 없는 행복이리 영광이리

원수님 타신 비행기를 따라서며
간절히 간절히
안녕을 바라는 마음
저 하늘 가득히 차고넘친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따라
백두의 위업 총대로 완성하리라
계승자대오에 굽이치는 총정의 일편단심
백두의 용암처럼 끓어번진다

한마디 더 쓰는 시

서둘러도 걱정으로 끓던
나의 시는 이미 끝났지만
한마디만은 미국에 할 말이 있어
다시 붓을 들어 쓰는 시

나는 원하지 않았어라
나의 시에 미국이라는

더러운 이름이 오르는것을
허나 어이하라 그대로는
이 시를 맺을수 없는것을

두엄더미에서 쉬파리도 가려본다는
술한 위성을 자랑하는 미국
남의 나라 대통령전화까지 도청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념원이였고 우리 인민이 수십년동안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즐기치게 튼튼한 항쟁의 종착점이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는 휘황찬란한 재생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소식을 들은 날은 온 나라가 다 울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련광정과 을밀대앞에서는 하루종일 춤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국권을 강탈당한 때로부터 40년, 국도를 병탄당한 때로부터 36년,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민족의 환호가 삼천리를 진감하였습니다.》

뻥뻥스럽게 놀아대는 제국
너는 알고도 남았으리라

북침을 노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며
《쌍룡》전쟁연습이
한창 살기를 풍기며 독을 쓰던 때
우리의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전연멀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 있었음을

편만 있으면 병사는 생기고
편이 없으면 사단도 없다는
미국식사고대로라면
그렇다, 바로 그때
우리의 전선은 비어있었다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온 너
그 어느 나라든 맘대로 들부셔온 너
긴긴 열흘낮 열흘밤이 지나도록
기회가 없어 달려들지 못했던가
아니면 갑자기 착해지기라도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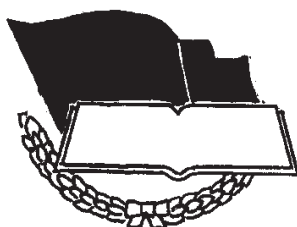
천만에!
미국이여 너는 악에 받쳐 날뛰면서도

소총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단 한분 김정은장군이 무서워
움쩍만 해도 재가루가 된다는것을 알았기에

나는 아노라
나의 시가 투박하다는것을
그러나 굳이 다듬으려 하지 않노라
장담컨대 거짓은 없거니
미국은 나의 시가 하는 진실의 말을 들으라

빈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도적놈마냥
너희들 안타까이 뺨가슴 앓을 때
어깨들썩 혁명가요높이
우리의 지휘관들이 걸은 답사길은
또 한차례 미국을 때려눕힌
전승의 열병행진이였다

미국은 꿈속에서도 잊지 말라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그때엔 아메리카 한복판에서
조선의 최후승리열병대오가 행진해간다는것을
이 한마디만은 해줘야겠기에
놓았던 붓을 다시 들어 시를 썼노라





하늘과 땅, 마다

정 기 중
그림 김 광 석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 호를 운반로켓 〈은하-2〉 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것이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2009. 2. 24)

《…적들이 분별을 잃고 우리 위성에 대한 요격행동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주저없이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뿐아니라 요격음모를 꾸민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2009. 3. 9)

1

오전 11시.

폐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산자드락에서 벗었다. 떨기나무숲에서 새들이 우짖었다. 밋밋한 등성이우에 암팡지게 둘러앉은 철쭉꽃나무들이 바람에 설레었다. 추위를 밀어낸 따스한 별아래에서 봄이 숨쉬고있었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은동지께서 등성이우로 오르시었다. 수많은 아지를 친 철쭉꽃나무를 살피시다가 마침내 가지 하나를 꺾어드시었다. 봄물이 올라 밤색으로 부푼 가지, 가지끝에 달린 다섯개의

길둥그런 잎사귀들… 어머님께서 사랑하시던 철쭉이다.

언제였던가. 봉긋봉긋 망울이 지는 철쭉꽃나무가지를 도자기꽃병에 꽂으며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

《장군님께서 사시절 쉽없이 넘고넘으시는 철렁에 피는 철쭉꽃이어서 내 오늘 이걸 꺾어왔지. 이제 여기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앞당겨오자고 말이다.…》

잊을수 없는 그 말씀… 어머님께서 한생 그렇게 사시었다. 봄을 기다리지 않고 꽃을 피워 봄을 앞당겨오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무가지를 천천히 돌리며 생각하시었다. 이제 여기서 망울이 지고 꽃이 피어날 것이다. 진정 어머님의 웃으시는 모습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이!…

《어머니! 장군님의 령을 받들어 전선길을 달리다가 이 철쭉꽃나무가 눈에 띄어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미소를 떠올리시는 어머님의 영상을 그려보시려니 불현듯 마음속에 스며드는 정겨운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어머님의 다정하신 음성인가? 아니면 봄의 목소리인가?… 아니, 그것은 유정한 노래의 선율이였다. 어머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노래 《어머니》의 선율…

기쁜 일이 생겨도 피로운 일 있어도
언제나 제일먼저 찾는 어머니
…

그이께서는 마음속으로 다시 어머니를 조용히 불러보신다.

《어머니, 적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이때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저에게 우리 인공위성에 대한 적들의 요격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한 파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의 한 성원인... 참, 김하천이라고 어머니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와 함께 지금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몸바쳐 조국위해 하는 일
평생의 자랑으로 아는 어머니
...

《어머니! 제 이제 놈들이 우리 인공지구위성을 향해 단 한방의 총포성이라도 울린다면 놈들의 본거지까지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고말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꼭 승리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어머니!...》

이윽고 김정은동지께서는 철쭉꽃나무가지를 들고 등성을 내리시였다. 승용차앞에서 기다리고있던 김하천이 주름깊은 이마아래 희끗희끗한 눈섭을 내리드리우고 두눈을 습벅거리고있었다.

2

오후 6시.

승용차의 앞창턱에 놓인 작은 꽃병에서는 가느다란 철쭉꽃나무가지가 물동적으로 흐느적이고있었다.

갑자기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강기슭으로 뻗어간 도로에 들어섰다. 여전히 바람과 같은 속도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조향륜을 잡고 계시였다. 옆좌석에 앉아있던 김하천이 놀란 소리를 질렀다.

《아니, 왜 이 길로 가십니까?...》

그이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여기까지 왔던김에 제503항공련대에도 좀 들렀다 갑시다. 한세웅동무도 만나볼겸.》

《?!...》

김하천은 몽툰한 손가락으로 허연 판자노리를 꺾꺾 누르기 시작했다. 무어때문인가? 전쟁을 눈앞에 둔 이 시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라면 또 몰라도 사령부관하의 한 항공련대에도 차를 달리시는 까닭은?...

김하천은 심기가 불편했다. 은근히 속을 썩이지 않을수 없는 그였다. 지금 그이께서 가시는 제

503항공련대의 지휘관은 바로 김하천이 그 이름만 들어도 이발이 쏘는것처럼 잔뜩 이마살을 찌프리지 않을수 없는 한세웅이기때문이다.

김하천은 멧따기나 좋아하는 한세웅이 이제 그이앞에서 또 무슨 뽀난 소리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속이 조마조마해했다. 한세웅이 비록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적으로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로서 《날아다니는 군사과학사전》으로 불리우는 멋쟁이라고 소문이 찌하지만 김하천은 그를 늘 좋지 않게 찌글서 보곤 한다. 매일같이 채찍을 휘두르며 주리를 틀고싶은 심정이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습니까?》

김정은동지께서 물으시였다. 그는 당황하여 꺾다문 입술을 우물거렸다. 그러자 그이께서 다시 미소를 떠올리시였다.

《아까부터 계속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는데 혹시 그 무슨 자연의 음악이라도 몰래 엿듣고있는게 아닙니까?》

롱조로 하시는 말씀이였다. 따뜻한 미소가 환히 불을 켜고있는 그이의 시선. 김하천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였다.

《자연의 음악... 말입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듬이라 할가... 아, 저길 좀 내다보시오. 저 하늘을 덮고있는 시꺼먼 구름장들과 설레이는 숲과 들판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 이 모든것이 다 각이한 음향과 리듬으로 충만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는 새삼스럽게 차창밖을 눈밝혀 내다보며 귀를 기울이였다. 하늘가득 덮고있는 구름장들, 희끗희끗 강우에 번져가는 잔물결... 이제 한바탕 비가 쏟아질것만 같다. 그런데 저 례사로운 자연풍경에서 그 무슨 음향과 리듬을 들으신다는 말씀일가?...

《그래 어떻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김하천은 먼저 숨을 길게 내 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그저 전쟁에 대한 생각밖엔...》

《그러니 암만 애써도 전쟁과 헤어질수가 없다?...》 그이께서는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하지만 내 보기엔...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 나서야 할 한사람때문에 마음쓰고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하천은 두눈을 습벅거렸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얼굴에 다 찍여져있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야, 한세웅 이녀석, 인젠 제정신을 가지구 살구 있어?!> 하고 속으로 욕박지르고있지 않습니까.》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를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목졸땀이 막 뿜뿜뿜합니다.》

《그건 너무하는게 아닙니까? 왕별을 달고있는 분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속에 품고 삭이지 못하고있다니...》

《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세월이 아무리 가도 그 일만은 절대 용서치 못하겠습니다.》

《그렇다?...》

어느덧 승용차는 구배진 령길을 오르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재빨리 변속을 하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가 왜 오늘 음향과 리듬에 대해 말하는가 하면... 사실 세상만물은 다 리듬으로 충만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들을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지휘관들은 언제 어느때나 자기 전사들의 가슴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음향과 리듬까지 죄다 가려들을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야만 큰것에서 작은것을, 작은것에서 큰것을 보고 들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는 두눈을 습벅이고있었다. 남달리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그이께서 오늘 왜 또다시 음향과 리듬에 대하여 강조하시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했다. 한세웅과 같은 그 못난 녀석에게도 무엇인가 남다른것, 큰것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지만... 다시금 속이 저릿해난다. 이마의 피줄들이 퍼렇게 살아올라 꿈틀거리는것을 느낀다. 아니, 그럴수 없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세웅이같은 그런 녀석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오래전에 있던 일이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한세웅은 어느날 학습토론도중 군사예술사파목에서 취급되는 내용을 두고 혁명력사강의에서 많이 배운것들로서 별로 새로운것이 없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저 무심히 열결에 나온 말같았지만 김정은동지께서만은 그냥 스쳐지나실수 없었다.

《별로 새로운것이 없단 말이지...》라고 하시는 그이의 음성은 준렬하였다고 한다. 《동무가 군사예술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아직 군사예술사에 대한 정의조차 똑똑히 모르면서 아무 소리나 망탕하면 되겠는가?》

이어 그이께서는 불이 이는듯 한 시선으로 한세웅을 여겨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장투쟁을 조직, 준비하고 진행하는 지휘관, 참모부들의 지략과 기교, 조직적수완을 통털어 군사예술이

라고 가르쳐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장구한 무장투쟁실천과정에 창조하신 전법은 교조가 없으며 철두철미 주체적인 전법이요. 그리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었소. 우리는 앞으로 이 주체전법대로 적과 싸워 이겨야 하오. 그런데 군사과학의 전당에 들어와 겨우 초학도에 불과한 동무가 감히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심원한 군사예술의 경지를 벌써 다 아는척 하다니?...》

너무도 격하신 그이의 말씀에 한세웅은 오한이 나는듯 몸을 떨고있었다. 남달리 비상한 두뇌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한세웅, 앵겔스의 폭력론과 레닌의 무장투쟁론의 명제들, 클라우제위치의 전쟁론은 물론 미제침략군사령관들의 작전전술특징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었던 그가 그만에야 수치와 절망에 차서 머리를 푹 숙이고 한손으로는 앞가슴의 단추를 쥐어비틀고있었다.

《제가... 군사예술에 대한 개념조차 똑똑히 모르는 주제에 그만 허튼소리를 하였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어떻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비록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날 한세웅에게 잘못을 깨닫고 꼭 고쳐야 한다고, 앞으로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었지만 김하천은 그대로 참고견딜수 없었다. 하여 뒤늦게야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달려가자바람으로 그를 불러내어 펄펄 뛰며 고함을 쳤었다.

《이녀석! 네가 뭐길래 감히 그런 소릴 할수 있는가, 엉?! 너 어느새 그렇게 교만방자해졌느냐? 무덤하고 불손하기짝이 없는 이녀석! 우리 군대엔 너같은 녀석이 있을 자리가 없다!》

《...》

한세웅은 머리도 들지 못했다.

《야 이놈,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나, 엉?!》 그는 돌덩이같이 꺾 부르킨 주먹을 푸들거렸다. 《그래도 존경하는 대장동지께선 너같은 놈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새벽까지 잠 못들고계신다는데... 죄많은 네놈은 쿨쿨 자구 있어?》

사실 한세웅은 자고있지 않았다. 잠수가 없는 그였다. 하건만 그로서는 달리 변명할 말도 없었다. 혀를 깨무는듯 한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님.》

《아버님?!》 김하천이 사납게 되받아췌쳤다. 《아니, 나한텐 너같은 사위가 없다!》

목갈린 부르짖음, 그렇게 부르짖는 김하천의 가슴은 모진 아픔에 갈기갈기 찢기고있었다. 잘난 사위라고 그저 자랑스럽기만 했던 자신의 눈먼 사랑과 불찰이 돌이켜졌다. 그 죄의식이 차디찬 얼음이 되어 가슴을 얼고있었다.

《다신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 내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 알겠느냐?…》

격노한 심장이 토해낸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이었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러갔다. 안해가 가끔 조심스럽게 기분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단마디로 밀막았다. 딸이 찾아와 울고불고할 때에도 소리쳐 쫓아버리곤 했었다. 그런데 그 딸이 얼마전부터 앓기 시작했다. 이틀전엔 조선인민군 룽군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상태가 몹시 위중하다고 했다. 조만간 심장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전 안해가 조심스럽게 한 말이였다.

《여보, 그 앤 지금도 하나만 바라고있어요. 이제라도 당신이 애아버지를 용서해주면 병이 똑 멀어질것 같다고요.》

《안돼, 그 일만은 절대 용서할수 없소.》

용서할수도 없거니와 용서해도 안되는 일이었다. 군인은 말로써가 아니라 싸움터에서 자기 목숨으로, 피로써 죄를 씻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각까지도 김하천의 심장속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얼음은 녹지 않고있다. 영구 동토대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더욱더 깊은 생각에 잠겨 차를 모시였다. 어둠은 잔발걸음으로 찾아와 대지를 뒤덮기 시작했다. 전조등이 켜졌다.

...

얼마후였다. 승용차가 부대에 들어서자 직일판의 보고를 받은 련대정치위원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김정은동지께서 물으시였다.

《련대장은 어데 갔소?》

《존경하는 대장동지, 련대장동문 편대를 이끌고 야간비행훈련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련대장이 직접 편대를 지휘한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련대장동문 오늘같이 불리한 기상조건에서 적들과 싸우자면 자기가 직접 편대를 지휘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

김정은동지께서는 밤하늘에로 눈길을 옮기시였다. 하늘가 멀리에서 꾸르릉, 꾸르릉!... 먼 우뢰소리가 구울러오고있었다. 비행사들을 위협하는 하늘의 경고, 그러한 구름속을 나는 비행편대의 동음도

간간이 울려왔다.

김하천은 거의나 숨을 죽이고있었다. 련대장이라면 당연히 지상에서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 대대들과 중대들의 수많은 전투기들을 단 하나의 구멍, 하나의 박동과 의지에 따라 멸적의 궤도만을 날도록 하는것이 항공지휘관이다. 국경도 차단물도 엄폐호도 없는 하늘에서 항공지휘관의 영웅심리는 절대금물이다. 그런데 한세웅은?...

그때 지휘감시탑에 있던 련대참모장이 내려와 이제 곧 편대가 착륙한다고 보고드렸다. 그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알겠소.》

이윽고 기수를 낮추고 급강하하는 전투기의 신호등이 바라보였다. 비행기의 동음이 커졌다. 드디어 대기를 썬는 아츠러운 굉음이 귀청을 찢더니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져갔다. 편대의 다른 비행기들도 하나둘 차례로 규칙적인 간격을 두면서 착륙하였다.

한세웅이 달려왔다. 감시탑의 불빛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히 빛나고있었다. 목소리도 쩡쩡했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제503군부대는 야간기습훈련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련대장 한세웅!》

김정은동지께서 반갑게 손을 내미시였다.

《그래 오늘은 무엇을 기습했소?》

《옳, 우리 련대가 맡고있는 적진지들을 모의기습하였습니다.》

역시 멋쟁이 한세웅다운 대답이였다.

《저렇게 잔뜩 구름이 끼였는데도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 타격할수 있소?》

김정은동지께서 미소를 담고 물으시였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우린 자기가 맡고있는 타격대상물들을 눈을 감고도 때릴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하고 김하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멋부리기 좋아하는 그 성미는 못 고쳤구나!... 그러나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말씀은 그와 달랐다.

《자신심은 좋으나 타격대상물은 수시로 변할수 있소. 고정불변하지 않단 말이요. 때로는 련대장자신이 자기 맡은 타격대상물뿐만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전체를 한눈에 굽어보면서 예상외의 다른 대상물에 대한 타격도 진행할수 있소.》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그럼 지휘소로 안내하시오, 련대정치위원과 참모장도 같이.》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하천을 돌아보시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가서 이 동무들이 지

금 어떻게 작전하고 준비했는지 들어보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올리면서도 김하천은 웬일인지 등 어리가 빠근해나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과연 한세웅 저너석이 그이께서 요구하시는데로 준비되어있을가?...

김하천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늘 전략로케트군사령부에 가시여셔도 그곳 지휘관들이 보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조선반도일대는 물론 태평양전역을 포괄하는 적정을 수시로 분석판단하고 제때에 단호히 타격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데 대하여 강조하시던것을 상기해보았다.

하여 그는 한세웅에게 그것을 암시해주고싶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해주고싶었다. 그러나 한세웅은 그의 경고하는 의미의 눈빛을 전혀 느끼지 못한척 했다. 범같은 성미인 김하천과 눈길이 마주칠가봐 무뎌히도 조심하는것이 알렸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윽도록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한세웅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었다.

한세웅은 자기 련대의 작전반경뿐만아니라 남조선 오산의 미제7항공군사령부소속 35, 51전투기련대와 군산의 8전투기련대, 일본 오사카의 미제5항공군사령부소속 전투기련대들은 물론 나아가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6항공단(고마쯔), 3항공단(미사와), 4항공단(마쯔시마)의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연구하고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싶어하는것이 알리었다.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군사과학사전》으로 불리울만 하였다. 그러나 김하천은 그가 열을 올릴수록 그 말마디들이 귀안에서 벌떼처럼 웅웅거리는것을 느꼈다. 입이 쓰거웠다.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지식시험을 치는것이 아니라 진짜전쟁을 준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치하하시는것이였다.

《웁소, 항공련대장이라면 웅당 사단과 사령부의 작전반경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것도 다 알아야 하오. 그래야만 하늘과 땅, 바다전체를 한눈에 굽어보면서 싸울수 있지.》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하여 환히 빛나는 한세웅의 눈빛... 그는 가슴을 짝 찢고 힘주어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우리들은 임의의 순간에 미군전투기들이든 일본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이든 대장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출격하여 타격

소멸하겠습니다.》

《그렇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전히 군용지도의 어느 한곳을 살펴보고계시였다. 《그럼 이자 동무가 떨거한 그 많은 적들이 일시에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소? 보통병사라면 그저 일당백용맹을 안고 맞받아나가 결사전을 벌리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동무야 항공부대의 지휘관이 아니요?》

한세웅이 머뭇거렸다. 그이께서는 다정히 미소하시였다.

《물론 동무 혼자서 그 많은 적들과 맞서싸우는것은 아니요. 우리에게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만 있는것도 아니구... 하지만 적들이 전쟁을 몰아오고 있는 이때 우리 지휘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이겠소?... 기회를 놓치지 않는것이요. 적들에게 강타를 안길수 있는 타격의 기회를!...》

《?!...》

한세웅은 물론이고 련대정치위원과 련대참모장도 숨을 죽이고 그이의 다음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한동무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배웠으니 잘 알겠지만 전쟁에서 기회란 저절로 차례지는것이 아니요.》하고 그이께서는 재빠른 손세로 지도의 여러곳을 가리키며 힘주어 계속하시였다. 《보시오, 지금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하겠다고 옥옥대고있는 미제와 일본, 남조선괴뢰들전체의 무력이 얼마나 방대한가? 이 방대한 침략무력을 일격에 타격소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잊지 말아야 하오. 기회란 한순간이요. 천번중의 단 한번! 그 한순간에 일체 모든 정황을 분석판단하고 제때에 결심하고 배심있게 결단을 내리는것, 말하자면 기회를 틀어잡고 리용하는것! 이것이 기본이요. 알겠소?》

《옳, 알겠습니다!》

《기회를 짝 틀어쥐여야 하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린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작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어떻게 지휘하셨는가, 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90년대에 적들이 핵소동을 일으키며 전쟁을 몰아올 때 어떻게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역경을 순경으로 돌려세우시였는가를 잘 연구분석하여야 하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군지휘관들이 주체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임의의 정황에서도 제때에 분석판단하고 제때에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강대한 적의 급소를 타격하여 꺼꾸러뜨릴수 있는것이요. 이걸 잊지 마시오.》

《알았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그럼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시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대장동지!》

밖에서는 바람이 세쳤다. 지휘소의 현관문을 나서 시던 김정은동지께서 한순간 걸음을 멈추시었다.

《참 한세웅동무, 집사람소식은 좀 알아보았소?》

《예?!》

한세웅이 굳어졌다. 그와 동시에 옆에 서있던 김하천도 헉! 하고 숨을 들이그었다. 분초를 아껴가며 사업하시는 그이께서 어떻게 그런 사사로운 일까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전쟁을 눈앞에 둔 때여서 김하천은 딸자식의 입원과 수술문제를 절대로 입밖에 내선 안된다고 집사람들에게 엄하게 신칙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럴새가 없었다고 하겠지.》 그이께서 그들모두를 둘러보며 하신 말씀이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그런 일까지 돌아볼새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말이요. 하지만... 그래선 안되오. 자기의 부모처자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왜 사사로운 일이겠소. 제일 큰 중대사이지. 조국에 대한 사랑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언제든 잊지 마시오. 우린 전쟁을 해도 큰 사랑을 안고 해야 하오.》

그이께서는 승용차에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김하천과 한세웅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급히 그이의 발걸음을 따라섰다.

그러나 차문을 여신 그이께서는 좌석우의 서류가방을 드시었다. 그리고는 그속에서 번들거리는 렌트겐필름 한장을 꺼내시는것이였다.

《렌트겐고전압촬영을 한거요. 수술을 맡은 박사선생에게 부탁했더니 이걸 보내왔소. 전지가 있소?》

참모장이 재빨리 전지를 켜드렸다.

《보시오, 심장으로 통한 큰 피줄의 미세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있소. 그래서 박사선생은 수술이 틀림없이 잘될거라고 장담하더구만.》

《...》

한세웅은 헉- 하고 큰숨을 내불었다.

그이께서 독촉하시었다.

《아니, 뭘하고있소? 어서 보라는데...》

《예, 대장동지!》

한세웅은 후들거리는 손을 내밀었으나 차마 그것을 받아들이 못하고 그만 머리를 떨구고말았다. 억눌린 호느낌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그는 거듭거듭 목구멍에서 끓고있는 눈물을 삼키고있었다. 전지불의 밝은 동그라미도 필름우에서 바르르 떨고있었다.

렌트겐필름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미세한 피의 흐름길... 김하천은 물기어린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거기에는 넓은 강폭으로 유유히 흐르는 물결과 더불어 간혹 물살세찬 여울목도 있고 무섭게 사뭇치며 떨어져내리는 폭포도 있었다. 격류하는 피흐름의 지도였다. 심장으로 급물결쳐가는 피의 흐름이 진하게 새겨진 지도, 사랑의 화폭이였다!

...

얼마후 승용차는 다시 쾌속으로 수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조향륜을 잡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더욱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씨는 더더욱 음산해졌다. 대지를 휩쓰는 세찬 바람소리, 가로수들이 몸부림치고있다. 이따금 굵은 비방울들이 후두둑, 후두둑! 차창을 때리곤 하였다.

3

밤 11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최고사령부작전모임은 벌써 한시간나마 계속되고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먼저 조성된 정치군사정세와 적정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위성을 요격하겠다고 조선동해의 공해상에 전개된 미제7함대 기동분함대(여기에는 미제7함대의 이지스구축함 2척과 일본해상자위대의 유도탄구축함들인 《곤고》호와 《쵸카이》호 그리고 남조선 피뢰해군의 《세종대왕》호도 들어있다.)의 무장장비와 그 움직임으로부터 남조선과 일본의 중요 항공 및 해군기지들, 팜도와 하와이에 이르는 태평양상의 수많은 기지들에서 출동준비를 갖추고있는 방대한 적의 해공군무력과 그 기동정형 그리고 적의 군수뇌부(미국대통령과 미국방장관 및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미태평양군사령관 등...)의 전략적 및 작전적기도를 심도있게 분석하시었다.

미국대통령 바락 오바마.

오바마는 어제 대통령전용비행기 《공군1》호기를 타고 대서양을 날아넘어갔다. 그가 이번 행각에서 제일 중시하는것은 체스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하게 되어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주제의 연설이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북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당면한 초미의 과제로 여기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유럽으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의 장미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기자의 질문에 이렇

게 대답했었다.

《북조선의 미싸일발사가 아무리 큰 위험이라고 해도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심장은 더 크다. 북조선의 도발이 아무리 크고 엄중하다 해도 그것을 짓부실 우리의 결심은 더 크고 무서운것이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하고 프랑스의 에이에프 피통신기자가 꼬집었다. 《크고 무서운 결심이란 무엇을 뜻하는것입니까. 혹시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웅변가로 소문난 오바마는 핵이라는 표현은 애써 피하며 비에에 찬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북조선에 이미 명백한 메세지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우리는 북조선의 미싸일발사를 신의 주먹으로 짓부셔버릴것이다.》

이 말은 오바마가 좋아하는 미국헐리우드에술 영화 《폭풍선수》의 주인공 흑인권투선수 루빈이 《이 세상의 악을 이 무쇠주먹으로 짓몽개버릴것이다.》라고 한 말을 잠깐 빌려쓴것으로서 그가 말한 《신의 주먹》이란 곧 핵무기를 의미하는것이라고 지금 세계의 언론이 법석 끓고있다.

미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이자는 쏘련이 붕괴되었을 때 로씨야에 가서 크레믈리광장을 걸으며 《나는 지금 혼자 크레믈리광장에서 열병식을 하고있다.》라고 하면서 쏘련의 붕괴를 야유하였다.

말장난을 좋아하고 분별없는 모험도 즐기는 이자는 얼마전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떠벌이었다.

《북조선은 이미 자체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에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미국본토가 이미 북조선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사정권에 들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선제타격을 포함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들의 미싸일발사를 저지시켜야 한다.》

미래평양군사령관 해군대장 티모시 키팅은 자기를 전쟁의 신이라고 자부하는 극단적인 호전분자였다.

《나는 이미 우리 미래평양군의 해군사령관과 공군사령관에게 〈데프콘3〉 명령서를 내려보내었다. 북조선이 위성을 발사하는 즉시 그 명령서들은 개봉될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데프콘3》이 핵선제타격을 명령하는 문서라는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

이윽도록 아무말씀없이 적정보고를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러니 한사코 우리의 인공위성을 요격하겠다는거겠소?》

《예, 그렇습니다.》

《전쟁도 불사하면서?...》

《예, 다시는 우리와의 대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일 못되게 나오는것이 남조선 괴뢰들과 일본놈들이지?》

《예, 하지만 그것들이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소리엔 별로 들을만 한것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웃으시자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모두가 소리내어 웃었다. 김정은동지의 그 말씀속에는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놈들을 다만 미국이라는 주인마누라의 치마자락에서 꼬리를 흔들어대는 충실한 개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멸시와 조롱의 암시가 들어있기때문이었다.

《문제는》하고 김정은동지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핵단추를 누를 최종권한을 가지고있는 미국대통령과 미군수뇌부가 끝내 핵전쟁이라는 끓는 가마솥속에 뛰어들 결심을 내렸는가 아니면 그저 위협해보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장군님께서도 유모아적으로 물으시였다.

《그래 적들이 끓는 물에 뛰어들가, 아니면 찬 물에 뛰어들가?》

《적들은 끓는 물이나 찬물이나 다 무서워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 역시 웃으며 말씀드리시였다. 《적들은 지금 우리의 기를 꺾어놓지 못해 안간힘을 쓰며 허세를 부리고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참모부성명을 통해 요격은 곧 전쟁이라고 엄숙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만하게 나오고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장군님께서 이미 말씀하신것처럼 선제타격은 적들에게만 있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결심이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형컴퓨터화면에 현시되고있는 동화상들을 차례로 짚어가시였다.

《우리는 이미 총참모부성명을 통해 선포한대로 여기 남조선과 일본 각지에서 출동태세를 갖추고있는 적들과 바로 여기 적의 본거지들까지 모두 사정거리안에 두고있습니다. 우리의 룡해공군, 전략로켓트군까지 다 진지를 차지하고 타격목표를 조준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감히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한다면 우린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옳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적들에게 선군조선의 주먹맛을 단단히 보여주어야겠소.》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지 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항공대를 출격시켜 여기 조선동해 공해상에 전개된 적의 기동분함대를 모의습격하게 할 결심입니다.》

《모의습격?》

《예, 장군님!》

모의라는 것은 흔히 실제와 비슷하게 그것을 본떠서 시험적으로 해보는 훈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결연히 말씀드렸다.

《그러다가 놈들에게서 단 한점의 불빛이라도 번쩍하면, 다시말하여 놈들이 먼저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쫓는 바다 물속에 처넣고말겠습니다.》

《음...》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해하시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요. 종소, 절대찬성이요. 그럼 적의 기동분함대에 대한 모의기습은 누구에게 맡기겠소?》

《제503항공련대장 한세웅동무입니다.》

《한세웅이라?...》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는 듯 했다.

《아, 생각나오. 언젠가 군사리론은 저 혼자만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 대장한테서 되게 체조를 받았다는 그 미남자 말이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 그러니 이제는 범이 댔단 말이군.》

장군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하시는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시에 김하천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그들도 김하천과 한세웅의 총대가정관계를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어떻소, 부총참모장동무 생각엔?...》

장군님께서 김하천에게 물으시었다.

《예, 장군님!...》

그 이상 더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으랴. 김하천은 버릇처럼 뚱뚱한 손가락으로 주름깊은 이마언저리를 꼭 눌렀다. 그 못난 한세웅을 위해, 이 결전의 시각을 위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금껏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고 원심을 써오시였을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쿡쿡 찌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2009년 4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구름 한점 없는 날씨였다. 대기는 따스한 봄바람에 숨쉬고있었다.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바람같이 달려오더니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앞마당에서 댔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오신 것이다.

대기하고있던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부부장, 국방과학부문의 책임일군들이 급히 달려가 차에서 내리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었다. 모두 장군님께서 잘 아시는 일군들이었다.

《그간 잘있었소?》

장군님께서서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허리에 두손을 얹으며 지휘소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보시었다.

《좋은 위치에 아주 잘 꾸렸구만, 응?》

장군님께서 밝은 미소를 그리시었다. 유구한 산촌의 정취, 파릇파릇 움트는 나무잎새들, 이끼오른 바위와 시내물, 마음속에 흘러드는 정찬 선물을 들으시는 듯... 이윽고 건물정문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들어가봅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맨 나중에야 건물로 들어가시었다. 한손에는 시종 무선전화기를 들고계시었다. 격동상태에 들어간 전군의 숨결이 그 무선전화기로 흘러들고있었다. 그속에는 우리의 인공위성을 요격하겠다고 조선동해의 공해상에 전개되어있는 미제 7함대의 기동분함대와 일본해상자위대, 남조선괴뢰 해군함정들을 향해 모의기습전을 벌리는 한세웅비행련대의 아찔러운 금속성들도 들어있다. 금시라도 불과 철의 육탄이 되어 날아들듯 번개처럼 대기를 찌는 하늘의 결사대원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의 결단에 혼비백산하여 놀아나는 적들의 물결도 날날이 살펴보고계시었다....

적들이 아우성치고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체스표의 수도 뿌라하의 고풍스러운 성곽유적이 있는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앞에서 자신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는 력사에 남을 화려한 연설을 하고있었다.

연설이 끝나기 바쁘게 그가 받은것은 북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된 불길한 보고였다. 위성발사가 박두하였다. 북조선의 전투기편대가 조선동해의 공해상에 전개된 기동분함대의 상공에서 실전

과 류사한 모의기습훈련을 벌리고있다. 어떻게 하라는가? 북조선의 전투기들부터 사격하라는가? ...

오바마는 정신없이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 통신실에서 미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을 호출하여 북조선의 기도가 무엇인가고 암호전문으로 물었다.

답전들은 다음과 같았다.

《북조선은 이미 우리에게 〈인공지구위성에 대한 요격은 전쟁이다!〉라고 선포하였다. 그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지로 보여주지고있는것이다.》(국방장관)

《그들은 기회를 노리고있다. 우리가 요격할것을 바라고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공해상에서 벌리고있는 모의기습훈련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북조선은 지금 우리의 전략적대상들을 겨누 미싸일들의 발사준비를 갖추고있을것이다. 또 조선동해에서는 북조선잠수함들이 우리의 기동분함대밑에 숨어서 타격의 기회를 노리고있을수도 있다.》(합동참모본부의장)

다음으로 날아온 미래평양군사령관의 답전은 전혀 뜻밖의 기고만장한것이였다.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는 선제타격으로 위성발사장과 중요도시 및 군사요충지들을 향해 단번에 수백기의 순항미싸일들을 퍼부을수 있다. 핵잠수함들도 지금 작전수역에 들어가 〈데프콘3〉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오바마는 무지스러운 태평양군사령관 키팅의 답전에 치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며 부드득 이를 갈았다.

《아니, 안돼! 그래선 안돼!...》하고 그는 중앙정보국소속 대사관 통신담당 역원을 향해 소리쳤다. 《즉시 작전을 중지하라고 치시오. 일체 모든 비행대 및 함선들의 기동을 중지하고 북조선의 전략적기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할것. 위성이 발사되면 더이상 떠들지 말고 그의 행적을 수시로 추적하면서 보고할것!》

역시 오바마다운 림기응변이였다.

...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현대적인 전자설비들로 장비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내부를 돌아보시였다. 실내중심의 대형현시막과 량옆에 놓여있는 컴퓨터와 갖가지 전자설비, 통신기재들... 지휘소의 주인공들은 모두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였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으로 미루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크나큰 기쁨속에서도 적들의 《요격설》때문에 생긴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로 하여

초긴장상태에 있는것이 알렸다.

그러한 분위기를 직감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직관도에 그려진 운반로케트를 보시며 자신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것이지만 우정 《동체에 날개는 왜 달았는가?》, 《이 태양전지판도 우리가 제작한것인가?》, 《재질은 무엇인가?》, 《출력은 얼마인가?》하고 연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도 국방과학부문의 한 책임일군이 무수단발사장의 전경이 펼쳐진 대형현시막을 통하여 발사장과 비행궤도, 속도와 제1, 2계단 분리지점들에 대해 설명해드리자 친히 지시봉을 잡으며 일본지도의 상공에 원을 그리시였다.

《여기가 일본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구간이지. 그렇지 않소? 그래서 무슨 요격이요, 뭐요 하면서 법석 떠들고있지만... 안될 소리! 만약 놈들이 위성을 요격하는 경우 우리 대장이 섬멸적인 반타격전을 벌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고있소. 그러니 동무들은 절대 긴장하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맡은 일들을 하시오.》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지휘소의 사람들도두가 거의 일시에 장군님으로부터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눈빛을 모으며 힘차게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침내 대형현시막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중심자리에 앉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도 화면에 펼쳐지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발사장에 눈길을 주시였다. 한순간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기사를 상기하시였다.

《...무수단, 바다물이 춤추는 해안절벽이라고 했던가. 지구촌의 내노라 하는 언론들이, 힘깨나 쓰는 국가들이 무수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아름다운 풍경때문이었는가... 해안절벽을 넘어 분지로 둘러싸인 곳에 북의 미싸일기지가 있다. 갈대가 많아 갈골로 불리웠던 대포동은 1950년대 행정구역개편때 무수단리에 편입됐다. 이런 동네이름이 하늘우로 올라가는 미싸일의 이름 〈대포동〉이 되였다.》

...

사실 《대포동미싸일》이라는것은 적들이 제멋대로 붙여부르는 이름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계를 보시였다.

오전 11시 19분.

드디어 대형현시막옆에 붙어있는 작은 현시막에 무수단발사장에 나가있는 국방위원회 위원의 모습

이 나타났다. 엄숙한 표정, 무게있게 울리는 목소리, 그가 위대한 장군님께 힘찬 목소리로 보고올려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지! 〈광명성-2〉 호 발사준비를 끝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차수 김광혁!》

《좋소, 시작하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순간 장내의 증폭기를 통하여 《점화!》하는 구령소리에 이어 전자음향설비에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고 알리는 신호음에 이어 《발사!-》하는 웨침소리가 들리었다.

마침내 울려 퍼진 요란한 폭음, 운반로켓트 《은하-2》호가 대지를 박차고 붉은 불기둥을 뿜으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장쾌한 장면이 대형현시막에 나타났다. 숨을 죽이고있던 사람들이 거의 일시에 《야!》하고 부르짖었다. 거센 불길처럼 장내로 퍼져가는 경탄의 속삭임...

이어 운반로켓트는 대형현시막의 푸른색에측레도선을 따라 붉은선을 그으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한순간 미끄러지듯 선을 그으며 전진하던 붉은선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피곳 김정은동지께 시선을 돌리시었다. 《뭐요, 요격인가?!》하는 의혹의 눈빛... 순간 김정은동지의 안광에서도 섬광이 편뜩하였다. 어느새 그이께서는 무선전화기를 쳐드시었다. 진짜요격이라면 전군에 반타격의 불벼락을 명령하실 순간이었다. 그러면 전쟁이다. 하늘과 땅, 바다가 일시에 뿔어번지게 될 무자비한 전쟁!...

바로 그때 국방과학부문의 한 일군이 다급히 《장군님!》하고 속삭이며 현시막을 가리켰다. 현시막에서는 다시 붉은선이 이어지며 전진하고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처음 보고를 올리던 김광혁차수가 작은 현시막에 나타나 말씀드리는데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자 방금 공해상에 나가있는 우리 관제선에서 신호를 받아물었습니다.》

장내에 퍼져가는 안도의 숨... 불과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수단의 관측람지기에서 공해상의 관제선에 신호를 넘겨주는 단 한순간에 벌어진 일!...

운반로켓트 《은하-2》호는 계속 현시막에 새겨진 푸른색의 예측자리길을 따라 일본상공을 날아지나갔다. 이어 처음엔 1계단이, 계속하여 2계단이 분리되었다. 드디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

호가 분리되더니 자기 궤도에 들어섰다. 운반로켓트가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였다. 숨막히는 환희! 증폭기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율!...

순간 장내에 《성공이다!-》하는 부르짖음과 함께 만세의 환호성이 터졌다. 일군들과 관제소의 성원들모두가 자리에서 뛰쳐일어나 위대한 장군님과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만세!-》, 《만세!-》, 《만세!-》하고 목메어 웨쳤다.

장군님께서도 벅찬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고계시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장군님께서서는 그들모두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었다.

《수고했소. 동무들, 완전한 성공이요! 순전히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된 운반로켓트와 인공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으니 나는 정말 기쁘고 감개무량함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동무들, 정말 수고가 많았소.》

그러시고도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인가 다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신듯 그들모두를 둘러보시다가 이 기쁜 날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자고 하시었다.

넘치는 환희와 행복...

중앙홀에 나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성원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는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오늘 운반로켓트 《은하-2》호가 하늘높이 날아오르는것을 보니 매우 안정되어있고 불꼬리모양이 아주 좋았다고,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하다는것을 보여준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계속하시었다.

《내가 오늘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운반로켓트 〈은하-2〉호와 〈광명성-2〉호의 제작과 성과적발사에 참가한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20대로부터 40대에 이르는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는것이요. 정말 고맙소. 이번에 국방공업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제일먼저 두드렸소.

문은 두드리면 열리기마련이지.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번에 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소. 동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봄빛이 무르녹는 4월 5일이었다. 청명날의 정오, 중앙홀로 흘러드는 눈부신 해빛의 홍수,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이루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었다.

《사실 나는》하고 장군님께서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오늘 여기에 나올 때 위성발사문제를 두고 생각하면서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공위성발사문제를 보살펴주시

거라고 생각하였소.》

뜨거운 감회에 잠긴 그 음성... 사람들이모두가 숙연한 감정에 휩싸여 눈시울을 떨고있는데 국방과학부문의 한 책임일군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사실 우리들은 이번에 적들이 요격소동을 일으키면서 정세를 전쟁절경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그만 모두 초긴장상태에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이번에 적들이 우리의 운반로케트와 위성을 요격하였더라면 아마 우리 대장의 반타격전에 단단히 혼썰이 났을거요. 놈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고강도의 무자비한 반타격전이 준비되고 있었지. 사실 이번에 또 보니 우리 대장은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비범한 령군술,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눌지 않는 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장군중의 장군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뜨거움에 젖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고있었다.

하지만 그때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선전화기로 무엇인가 보고를 받고계시었다. 처음엔 매우 신중한 기색이시었다. 그러나 차츰 밝은 미소가 그이의 존안에 자잘한 물결처럼 파문지어갔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사연일까?... 허나 누구도 알지 못했다. 누구도 그것이 한 군인가족의 신상과 관련되는 보고였다는것을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그이께서 바로 국방위원회 위원 김하천의 딸이며 방금전까지 조선동해의 공해상에서 미제7함대 기동분함대에 대한 모의기습훈련을 벌리던 련대장 한세웅의 안해에 대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받으셨다는것을 파연 그 누가 상상인들 할 수 있었으랴!

드디어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가운데 모시고 모두들 나란히 줄지어섰다. 머리우에서는 따사로운 해별이 내려쬐이고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서있는가? 사람들이 일시에 서로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존경하는 대장동지께선 왜?...》

다음순간 누군가 한달음에 달려가 그이께 《존경하는 대장동지! 대장동지도 우리랑 같이 찍읍시다.》하고 간절히 요청했건만 그이께서는 거듭 사양하시었다.

12시 15분.

패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구배진 길가에서 급정거를 하며 멎었다. 잠시후 차에서 내리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멀리 대성산통쪽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그이의 손에는 승용차의 앞창턱우에 놓인 꽃병에서 방금 망울이 지기 시작한 작은 철쭉꽃나무가지가 쥐여져있었다.

한순간 그이께서는 마음속에서 흘러드는 유정한 선율을 느끼시었다.

어머님을 그리실 때마다 마음속 금선을 울려주는 노래, 어머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노래...

어머니가 되어도 검은머리 희어도

아이적 목소리로 찾는 어머니

아 어머니 따사로운 그 품은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샘물

부지불식간에 가슴이 젖어드는것을 느끼신다. 기쁠 때도 괴로워도 언제나 먼저 찾는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하고 그이께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신다. 《오늘 우리는 적들의 요격소동을 짓부시고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우주에 쏘올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어머니!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선군조선의 존엄이 우주의 한끝까지 가닿았습니다.》

그이께서는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벅찬 흥분을 애써 누르신다. 그리고 천천히 손에 든 철쭉꽃가지에서 상긋한 냄새를 맡아보신다. 이 꽃 역시 어머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꽃이다. 어머님의 정겨운 미소가 어려있는 꽃...

이윽고 그이께서는 다시 어머님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신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언제든 믿어주십시오. 제 기어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평생 념원하신대로 이 땅, 이 하늘아래 남먼저 꽃을 피워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강성국가의 새봄을 앞당겨오고야말겠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저 하늘, 눈부신 해빛이 온 나라의 하늘과 땅, 바다에 아낌없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따사로운 빛발아래 희망찬 새봄이 무르녹고있었다.

궁전을 나서는 어머니들

장 명 길

사람이 병을 앓은것이
어찌 자랑이 될수 있으랴만
완패된 아이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면
동네방네 자랑하겠답니다
병원이 아니라
왕들의 궁전에 다녀왔다고

사람이 병을 앓고싶은것이
어찌 소원이 될수 있으랴만
다시다시 찾아오고싶은 마음에
돌아보고 돌아보며 차마 나서지 못합니다
육류아동병원 이 궁전문을

병을 깨끗이 털어버린 아이손 잡고
병원문을 나서는 마음이
새 생명을 품에 안고 꽃다발을 받으며
산원문을 나서던 그날의 심정같다는
이 나라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 손에 마이크를 쥐여준다면
가슴그들먹이 차오르는 고마움에
음성은 젖어도 명가수 다름바 없는
우리 생활의 노래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무대에 세우면 어제날 무용수였던듯
멋들어진 사회주의만세의 춤가락을 뽑아낼것입
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탈없이 무럭무럭 자라라고
이 나라 어머니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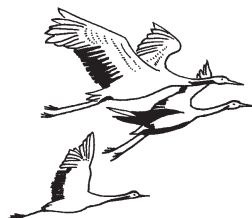
잔근심 하나 없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혁명의 미래를 더 따사로이 안아주는
어머니 우리 당 원수님의 품이여

나이는 아직 철부지
허나 이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어린 마음들이 더는 철부지가 아님을
나는 봅니다 믿고싶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커서 틀어쥔 총대를
과학자가 되고 체육인이 되어
열렬히 불태울 그 심장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병을 보러 왔던 그 보통날에
꿈만같이 원수님을 만나뵈온 어머니들이
아, 원수님축복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사랑이면 어떤 사랑을 더 줄수 있겠습니까
정이라면 어떤 정을 더 줄수 있겠습니까

천만금을 들여 지은 이 병원에
출생증 하나 손에 들고왔다가
약값조차 모르고 나서는 어머니들
자애로운 어머니당의 사랑 알면서도
묻고있습니다 심장에 손을 얹고

낳아준 어머니사랑 대신해준
의사들과 나어린 단발머리 간호원들에게
고마운 우리 당을 위해
대를 두고 갚아도 못다 갚을 그 은혜에
정녕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가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하자면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말로도 얼마든지 심오한 생활철학을 표현할수 있다. 가사는 곡과 함께 노래로 부르는 시이기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가사를 창작할 때 마치 그 무슨 표현경쟁이나 하는것처럼 저마다 기발한 표현을 꾸며내는데만 신경을 쓰는데 가사에서 어휘와 표현을 기발하게 탐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에서 그것이 기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가사는 원래 곡과 함께 한번 듣고도 내용이 제격 리해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가사는 몇줄밖에 안되는 짧은 시이다. 작은 용적에 여러가지 어려운 표현을 담은 방법으로 깊은 사상을 보여주려고 하는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일이다. 가사의 표현은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고 또 별치않은 말 같지만 다 읽고나서는 무엇인가 충격을 받고 오래동안 생각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옥류에 뜻을 올린 행복의 배여!

— 옥류아동병원 정원에서 부른 노래 —

전 수 철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려 사는
우리 나라엔 그 어디에나 있다
학생소년궁전 학생도서관
아동백화점 어린이들의 유희장...

천년을 흘러 변함없고
만년을 흘러 끝없는
대동강 옥류의 흐름우에
뜻을 올린 유람선마냥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나는 지금
옥류아동병원 정원을 거닐며
해빛에 웃는 창문들과 속삭인다
방금 돌아본 치료실이며 입원실
교실이며 도서관과 유희오락장...

그 어느 나라에나
아이들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치료실과 유희장이 함께 있고
입원실과 교실이 함께 있어
병원이자 학교인 그런 병원이 있었던가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의 손목 잡고
병원문을 나서는 녀인들 얼굴마다
만발한 웃음꽃 웃음꽃
아이들도 병원을 떠나기 아쉬워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행복의 요람

벽은 벽마다 그림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동화세계에로 불러주고
치료받고 나온 아이들 오락장에 들려
하하호호 즐거운 놀이에
집생각도 다 잊는 사랑의 요람이거니

오, 옥류아동병원
옥류의 흐름우에 뜻을 올린
치료와 배움의 병원이어
너를 바라보니 눈앞에 어려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병원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건설장에 나오시여
건물의 모양도 내부의 장식도 설비도
아이들의 동심과 정서에 맞게
최상으로 꾸려주라고 하시고

대를 이어지는 후대사랑을 담아
대를 이어 전해질 미래사랑을 담아
몸소 그 이름도 지어주신
옥류아동병원은
사랑의 옥류에 뜻을 올린 행복의 배!

그 사랑의 배 행복의 배는
옥류아동병원!
그 사랑의 굴발 돛쪽에 새기고
나라의 왕 조선의 미래를 싣고
강성국가의 봄언덕을 향해 달리고있구나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이고 최대의 애국애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수령결사옹위에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고 승리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참담하게 실현된다. 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수령을 옹위하는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여기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로 수놓아야 한다.

여기에 혁명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이 있고 혁명가의 값높은 삶이 있다.

혁명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이다.

수령결사옹위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최대의 애국애민이 있다.

세상에 부림없는 집

박 성 일

낮이면

해빛도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밤이면

별들도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는

동해기슭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천밤 자며 꿈을 꾸고

만번을 상상해보아도

그 꿈 그 상상도 닿지 못할 곳에서

아이들 《세상에 부림없어라》 노래부르며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꿈이 아닌줄 알면서도

꿈같은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

웁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 원수님의 리상이 이루어진

꿈같은 현실속에 살거니

복속에 살면서

그 복을 다 모르고 살아온 아이들조차

오늘의 이 행복이 꿈만 같아

야영의 하루에 어른이 된듯

야영의 나날에 앞날의 모든 복 다 누려보는듯

얼마나 황홀하고 눈부시나

백사장으로 달려오는 파도도

원수님 그 품 향해 달려오고

해도 달도 별도 지지 않고

회관과 창가에 빛나고있지 않느냐

상상이나 했더니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듯

소년회관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높은 천정에는 칠색령룡한 무리등

바닥에는 눈부신 보석주단

한눈에 세상을 다 보라고

한가슴에 세계를 다 안고살라고

바다세계가 펼쳐진 수족관

땅의 세계가 펼쳐진 조류사와 박제품진렬실들은

먼먼 미래를 앞당겨 펼쳐준 원수님사랑

축복받은 조선의 아이들이

너희들이 받아안은 사랑은

대원수님들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사랑

너희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누려갈 행복은

우리 원수님 빛내주시여 영원무궁하리니

너희들이 누리는 오늘의 이 행복은 꿈이 아니다

꿈같은 행복 꿈같은 현실은

천만년미래를 앞당겨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사랑의 품이다



판공계절

락 속 본

1

《참 지배인동문 알다가도 모르겠구려. 어쩌면 그냥 그자식을 끼고도는거요. 글썽 보시구려, 그 자식이 코대가 어떻게 높아졌나 말이우다. 사람됨을 바라는데서야 그 사람 장인되는 이 늙은이가 지배인보다 낫지 않겠소다? 어쩌면 그자식을 우리 전기기로에 안 보내고 평양전력설계연구소로 보낸단 말이우다? 예? 세상에 듣다보다 난 책벌을 주어야 할 자식을 평양전력설계연구소로 보내서 실습을 시킨다는게 리해되지 않소다. 지배인동문 도대체 그 자식 편역을 왜 자꾸 드는거요?》

어찌나 흥분했는지 그의 입안에서 단내가 확 풍겨나왔다. 목젖까지 치밀어오르는 말을 인내성을 가지고 꼭 누르고있던 심홍길이가 이 대목에 이르러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는 했지만 의외로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담담하였다.

《기사장동무, 진정하십시오. 책임비서동무도 동의한 문제를 회의밖에서 또 논의했잖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보다 10년이나 우인 강규근을 내심 존경하고있는 심홍길지배인은 깍듯이 기사장을 레절있게 대하였다.

이때 갑자기 사무실이 암실이 되어버렸다. 정전이 된것이다. 한치의 앞도 분간기 어려웠다. 이 시기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때였다. 서랍을 열어 전지를 꺼내들고 기사장을 사무실밖까지 바래준 심홍길은 다시 들어와 초불을 켜놓고 앉았다. 생각이 깊었다. 기사장의 말이 목에 돌을 매단것처럼 걸려왔다. 방금전 이 방에서 연합기업소 법무위원회가 열렸었다. 회의에서는 연합기업소 건설과 건축설계

원 최영진의 책벌문제가 토의결정되었다. 그 결정은 최영진을 현직에서 떼고 평양으로 보내어 설계실습을 6개월간 받게 한다는것이였다. 바로 그래서 강규근이 저토록 흥분한것이다.

일인즉 이렇게 된것이였다.

지난해부터 영평연합기업소에서는 옥천강물을 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공사를 다그치고있었다. 지하에 발전기를 들여놓고 기세 좋게 발전기실을 일떠세우던 건설장에서는 하루밤사이에 숨이 죽고 정적이 깃드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되였다. 그것은 도건설감독일군들이 발전기실건설 중간검사를 진행하고 건설시공을 중지시켰기때문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발전기실건설은 일반건물과 시공내용이 질적으로 차이나기때문에 건물의 질적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것, 그것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발전기의 진동음에 발전기실이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거기에 리용되는 철근과 세멘트세기를 강도높게 써야 했지만 현재 진행중에 있는 발전기실은 이 원칙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였다. 상급단위일군들은 그 원인을 발전소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최영진의 설계도면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끓어번지던 발전소건설장은 숨을 죽였고 로동자들은 맥을 놓고 어깨가 축 처져있었다.

이무렵 인민경제대학 재교육을 마친 지배인 심홍길이가 기업소로 돌아왔다. 사실 심홍길은 최영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였다. 청진광산금속대학졸업생인 심홍길은 몇해전에 여기 영평연합기업소에 지배인으로 부임되어왔었다. 올 당시만 하여도 기업소의 물질기술적대대는 매우 빈약했다. 그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의 사적

이 깃들어있는 기업소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떠세울 경영전략과 생산전략을 세운데 기초하여 폐기와 정열에 넘쳐 사업에 착수하였다. 심홍길은 일을 벌리는 과정에 건설과에 쟁쟁한 건축설계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물색된 사람이 최영진이었다. 그때 도건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졸업배치를 앞둔 최영진은 연합기업소에서 기술혁신신구자로 이름을 내고있던 최재옥의 집에 얹혀살고있었다. 부모가 없었던 그는 하나밖에 없는 누이 최재옥의 보호를 받으며 공부했던것이다. 즉시 최영진을 기업소로 데려오도록 했다. 제대군인으로서 전문교육을 받은 최영진이 기업소 건설과 건축설계원으로 배치되어 처음으로 맡은 과제가 정문설계였는데 정문은 예상외에 도적인 보여주기사업까지 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설계의 첫걸음을 뗀 최영진은 기업소의 크고작은 창조물들에 열정과 정력을 아낌없이 바쳐왔었다.

심홍길은 그의 재능을 믿고 이번에는 발전기실설계를 맡겼고 역시 시공도 그가 맡아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그만에야 그런 사고가 날줄이야...

심홍길은 사고의 전모를 해부해보았다. 그러고나서 연합당집행위원회앞에서 말했다.

《그런만큼 나는 그를 평양의 전력설계연구소로 보내어 6개월정도 전문설계실습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수준을 높여주고 발전기실설계를 보충완성하여 기술자도 살려내자는것입니다.》

지배인의 제의는 연합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마침내 상급당조직에 보고되었으며 그에 따라 연합기업소 법무위원회는 최영진의 문제를 결정하였던것이다...

회상에서 깨어난 심홍길은 초를 갈아붙이고나서 생각에 또다시 잠겨 사무실벽에 걸어놓은 기업소개전망도앞으로 다가갔다. 초불빛에 비추인 기업소 전망도가 화려한 색으로 채색되어 마치도 동영상처럼 살아움직이는듯 하였다.

정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후문에 이르는 넓은 포장도로 중심부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비가 있고 생필분공장 행정청사 그 맞은편 산턱으로는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된 강철분공장의 산소분리기직장이 일떠서있다. 그리고 울타리밖 살림집구역에는 은정원과 정양소건물이 운치있게 앉아있고 후문 옥천강기슭에는 수천키로와트의 출력을 가진 옥천강발전소가 붉은별로 진하게 표시되어있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기업소 노동자지구의 조명은 물론 탁아소, 유치원, 노동자합숙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할뿐 아니라 편의봉사망들에서 쓰게 되는 전력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소건설을 완공하자면 아직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가장 난문제는 옥천강의 물

을 잠관을 통해 끌어들이는것이였다. 이 공사를 강철분공장이 맡고있었다.

심홍길은 경제대학으로 떠나면서 강규근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어 겨울전에 완공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달라진것은 크게 없이 부진상태에 있다. 심홍길은 초물이 녹아내려 손을 뜨겁게 지지자 또다시 초를 갈아대었다. 초불이 밝아지자 큼직하게 써넣은 상무일군들의 이름이 눈앞에 안겨왔다.

강철생산정상화사업—강규근

공장현대화사업—4.15기술혁신돌격대 최재옥

꾸리기사업—로동과장 장홍진

설계도안—최영진

부업정리후방사업—후방부지배인, 연합당책임비서

이날 심홍길은 사무실에서 새아침을 맞이했다. 4월의 짧은 밤은 심홍길지배인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도 린색한듯싶었다. 아침햇빛이 창문에 비쳐들자 사무실밖으로 나선 심홍길은 정열로 불타듯 이글이글하는 태양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했다. 벌써 구내길에는 아침출근으로 바쁜 종업원들로 붐비였다.

아침은 그날의 청춘이다. 그의 몸에는 20대청춘 시절의 몸에 뿜던 활력이 막 끓고있었다. 가슴속에는 지금껏 무르익혀오며 갈망해온 희망, 기업소를 한점의 티도 없이 꾸려 아름답고 풍만한 단풍계절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리라하는 오직 그 하나의 열망이 새삼스럽게 끓어번지고있었다.

2

반년만에 최영진을 기업소에서 만나는 심홍길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이번 평양실습기간에 발전소건설설계를 특색있게 개작완성했을뿐아니라 은정원이며 정양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탁아소와 유치원들까지 멋쟁이로 건설할 설계도면까지 완성해왔다니 우리 로동계급이 누릴 문명한 생활이 방금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 그가 참으로 대견하게 느껴졌다.

최영진이 평양으로 떠난 후 심홍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지만 강규근의 생각은 다른것 같았다. 심홍길은 최영진이 오자 종전의 직무에서 일하도록 합의를 했지만 강규근은 로동과장 장홍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것이다.

《과장동무, 내 사위라고 해서 두둔하면 안되오다. 지난번 법무위원회앞에서 찻절한 눈물 몇방울

흘리며 자기비판을 한것과 또 평양 가서 설계실습을 하고왔다고 그자식이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우다. 사람이야 껌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겠소다?》

어제 기업소에서 발전기실과 은정원, 정양소를 동시에 건설할데 대한 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최영진이 실습기간에 완성한 설계도면들을 놓고 토론에 붙이었다. 협의회에는 기업소안의 부직간부들은 물론 분공장들의 초급일군들과 일부 작업반장들도 참가하였다. 심홍길지배인이 회의를 사회하고 최영진의 설계도면을 토론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나서 말하였다.

《그러니 담당자의 설명을 잘 듣고 기탄없이 의견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중의 이해와 창발성을 합쳐 최상의 수준에서 발전소와 은정원을 그리고 정양소를 건설하자는것이 오늘 협의회의 기본제이니 말입니다.》

이어 최영진이 발전소설계의 정면도와 세부부분도를 그린 직판도를 놓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난날 실무자질이 낮았던탓으로 엄중한 과오를 범했지만 당조직의 믿음에 의해 다시 설계실습교육을 받으면서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진수를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었다고 진실하게 허두를 떼었다.

최영진의 설명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배인옆에 앉아있는 연합당위원회 책임비서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사람들은 특히 발전소설계가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했다.

무엇보다 발전소개작설계가 좋다는것은 발전소운영자들이 주야로 근무를 서면서도 아무런 불편도 없이 숙식을 비롯한 모든 문화후생시설들을 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된것이라고 했다. 식당, 침실, 휴식오락장, 면담실 등 설명을 듣고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최영진이 발전소와 은정원, 정양소에 대한 세부 직판도까지 설명하고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에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50미터의 해염길을 가진 수영장과 10미터높이의 물에 뛰어드는 조약대 같은것은 로동자지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평양전학때 창광원에 들렀던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설계가라도 되는듯 흥분하여 큰 목소리로 그 의견을 일축해버리었다. 심홍길은 그가 얼마나 고맙고 미더운지 막 안아주고싶었다. 그리고 발전소와 은정원을 보다 멋쟁이로 건설해야겠다는 신심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지배인이 강규근에게 의견이 없는가고 물었으나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후 사무실에 들어오니 로동과장 장홍진이 사업수첩을 든채로 뒤따라들어섰다. 쏘파에 털썩 앉으며 심홍길에게 말했다.

《지배인동지, 은정원건설에 대해 기사장동지가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최영진에 대해 생각하는걸 봐도 그래, 며칠전에 있는 협의회때 지배인동지가 의견이 없는가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걸 봐도 그렇고...》

장홍진의 말에 심홍길이 그를 주시하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예. 처장동무, 일전에 도에서 얘기한대로 그도면을 그대로 비준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동자동무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 적어도 도적으로 으름가는 발전소로 될것이라고들 모두 좋아합니다.》

전화를 받고난 심홍길은 얼굴에 화색을 띄우며 장홍진에게 《방금 들었겠지만 도에서도 절대찬성이요. 최영진이 평양에 갔다온 값을 하는것 같소. 이번에 그가 설계한 발전소와 은정원설계는 외형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매우 특색이 있다면서 찬성하였소. 그러니 동무는 곧 발전소건설을 재개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잘해야겠소. 이미 당위원회와도 충분히 토론이 된것만큼 도면이 내려오면 온 기업소의 힘을 집중하여 빨리 공사를 끝내자는거요.》

장홍진을 보내고난 심홍길은 저녁식사를 생각도 잊고 기업소일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문득 협의회때 발전소설계가 최상이라고 흥분해서 제 할소리를 감추지 않던 단조직장의 류월림작업반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한 로동계급다운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된게 언제였던가? 현장에서 여러번 보아왔고 속보판에서도 이름을 익힌터이지만 그와 인상적으로 만난것이 언제였더라?)

지난봄 어느날이었다. 강철공장 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었고 한편으로는 기업소구내를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단위별로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심홍길은 낮은 가로수를 뺏고 길을 넓히는 현장으로 나갔었다. 정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후문에 이르는 구간의 길을 넓히고 도로를 포장하며 이미있던 가로수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평양뽕뿌라를 심을데 대한 파업을 받은 강철분공장 일군들속에서의 의견이 있다는것을 알고서였다.

현장에서는 방울나무를 도끼로 찍는 사람, 톱으로 베는 사람, 폭을 넓힌 길에 자갈을 깔고루 펴고

다지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땀을 철철 흘리며 도끼질에 여념이 없는 한 청년결으로 다가가면 심홍길은 그의 손에서 도끼를 찾아내며 말했다.

《담배 한대 피우라구. 그새 도끼질은 내가 하지.》

그리고는 청년 못지않게 도끼질을 걸싸게 해댔다. 도끼질소리가 날 때마다 하얀 나무살이 쟁쟁쟁쟁 튀며 떨어져나갔다. 그날에 알게 된 청년이 바로 단조직장 공기함마공인 류월림작업반장이었다.

그날 심홍길은 강철분공장 일부 사람들이 기업소 꾸리기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한다는것을 자세히 확인하였다.

《지배인이 생산에 관심이 적다. 울타리와 정문에 신경을 쓰며 길다귀에 몰두한다. 기업소구내에 비행장활주로같은 길이 뿔뿔이 필요한다.》

강규근기사가장이 강철분공장의 작업반장들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라고 했다.

이때 등뒤에 련결차가 다가와 섰다. 차를 세운 운전수는 지배인을 알아보고 꾸벅 인사를 했다. 《운전수동무, 잘 왔소. 그러지 않아도 내 도끼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련결차신세를 질가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소.》

그 말에 운전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예? 지배인동지가 우리 신세를 진단 말입니까?》

《왜, 난 동무의 신세를 지면 못쓴대?》

《?...》

《놀라긴. 나한테 신셀 지우면 받아낼게 없을가 봐?》

결에 서있던 청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배인을 에워쌌다.

《운전수동무, 걱정말라구. 오늘 내 말만 들어주면 무엇이든 신세값음을 하지. 자, 저 쇠바줄을 풀라구. 그 콩무니에 데롱데롱 달고다니는걸 말이야.》

이렇게 말한 심홍길은 도끼질을 하던 청년에게 꺾뼉 눈짓을 했다. 눈치빠른 청년은 몸을 훌쩍 날려 련결차고리에 매달려있던 쇠바줄을 안고왔다. 심홍길은 그것을 풀어 찢고있던 방울나무밑등에 매게 하고는 운전수의 엉치를 철썩 갈기며 발동을 걸라고 했다. 그제서야 모든것을 알아차린 운전수가 부르릉 하고 발동을 걸어 차를 몰았다. 삽시에 방울나무가 뿌리채 뽑히워 쿵 하고 자빠졌다.

작업장에서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도끼질에 여념이 없던 젊은측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나무밑등에 바줄을 걸고 차를 끌었다. 어느새 수십대의 방울나무가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나자빠졌다. 이 광경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던 심

홍길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운전수동무, 수고했네. 내 신세값음을 하겠다는건 이거야.》 하고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심홍길의 익살섞인 말에 작업현장에서는 삽시에 와— 하고 즐거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이 겹히자 심홍길이 청년들에게 말했다.

《낫은것에는 언제나 보수성이 있거던. 그래서 이 나무처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해.》

이날 심홍길은 류월림으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들었다. 지배인이 강철기사장을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길을 넓히고 빠치포장까지 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강철에서 련결차가 어디로 다니겠는가고 기사장이 걱정한다는 것이었다.

《월말이면 강철에서 생산된 강재가 외통길인 이 길로 화물역으로 나간다는것을 지배인동진 알고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한 류월림은 지배인을 뵈히 바라보았다.

심홍길은 충격을 받았다. 류월림의 말이 공감될수록 그가 얼마나 돈보였는지 모른다. 노동자들 역시 공장전망을 두고 일군들 못지않게 생각이 깊다는것에 큰 충격을 받은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심홍길은 이 시각 자신의 사업에서 허점을 발견했다.

다음날 심홍길은 책임비서에게 말했다.

《우회로를 뽑아 련결차들이 다니게 해야겠습니까.》

《우회로건설을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래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말인데? 오늘이 27일이 아닙니까?》

《노동자동무들에게 호소하여 하루밤새에 제끼겠습니다.》

《지지합니다. 당위원회에서도 동원되겠습니까.》

심홍길은 다음날 계획한대로 생산이 긴장한 강철분공장로력을 제외한 나머지단위들을 총동원하여 우회로건설전투를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우회로작업장은 불천지를 이루었다. 전투는 후문앞산에서 화물역으로 가는 2키로미터의 전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4

심홍길은 련합기업소 행정일군회의를 열고 전날에 격전장을 방불케 했던 우회로건설전투정형을 총화하고나서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강규근이 일어나 하는 말이 생산이 바쁜 월말에는 평균주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생산이 늘 긴장한 강철분공장을 고려해달라는 말이었다. 지배인은 방에서 나가려는 강규근에게 물었다.

《아니, 강철에서도 동원되었습니까?》

《그걸 지배인이 몰라서 묻는거요?》

강규근은 앞상에 놓여있던 사업수첩을 와락 소리가 나도록 접고 홀 나가버렸다.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있던 심홍길은 로동파장 장홍진의 얼굴을 찾았다. 없었다. 회의가 끝날무렵 장홍진이 일 있다고 먼저 퇴장한 일이 생각되어 강규근이 나가버린 문쪽만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얼마후 심홍길은 한참이나 전화통을 들고 찾아서야 장홍진을 만날수 있었다. 지배인이 어제 벌린 우회로전투에 강철분공장로력을 다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동원시켰는가고 묻는 말에 한참이나 대답을 못하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빠 포치사업을 하다나니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얼버무리는것이였다.

다음날 심홍길은 강규근이와 마주앉았다. 그날은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돌생일이라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였지만 어떻게 그냥 보내겠는가고 하면서 생일음식을 소박하게 마련하였었다. 심홍길은 옆집에 살고있는 강규근이 생각이 불쑥 났다. 류월림이 기사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던 일도 있고 또 우회로전투때 강철로력을 동원시킨것으로 하여 강규근이 오해하고있는것이 내려가지 않아 그와 조용히 마주앉고싶었던것이다.

소박한 상을 마주하고앉은 두사람은 한잔씩 잔을 댔다.

간단히 찾게 된 사유를 말하고나서 심홍길은 단도직입적으로 속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기사장동무, 그날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강규근은 지배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고, 뭐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며 다음 말을 밀막아버리었다. 심홍길은 우회로전투시 장홍진에게 파업을 준 사실을 명백히 하려는것이였다. 하지만 미주알고주알 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은것이 한편으로는 더욱 마음편히 느껴져 《기사장동무, 모든것이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해 그런 불미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말았다.

《잔을 내십시오.》

심홍길이 술잔을 들어 그의 가까이 밀어놓으며 말했다.

《나야 술마실줄 아우다?》

《나 역시 같지 않습니까. 누군 배꼽 떨어지자 술마셨겠습니까. 술이란 애기둥무란 말도 있어 술병을 울려놔습니다.》

심홍길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리를 같이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업소생산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많이 얘기했는데 그속에는 심홍길이 아직까지 강규근에 대하

여 알지 못하고있던 진실이 많았다.

시간이 어지간히 지나도록 심홍길은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그러던중에 최재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불현듯 심홍길에게는 한때 장홍진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한 최재옥이 남편을 따라 여기로 온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당시 회계과 부원으로 일하던 최재옥은 비생산로력을 줄일 때 제일먼저 현장에 진출하였다. 가장 힘든 부문에서 일하겠다고 하여 로동파장 장홍진은 강철분공장 성형작업반으로 배치장을 떼어보냈었지만 강규근의 반대로 그 작업반에 못 가고 그후 그 파견장을 가지고 공무직장으로 갔었는데 어쩌도 이악하고 정열이 있었던지 기대를 켜 6개월만에는 그 어떤 정밀한 제품도 척척 가공해내는 유능한 선반공이 되는데 대하여, 뿐만아니라 기업소에 세멘트생산기지가 없다는것을 알고는 녀성기술혁신돌격대를 무어 1년만에 세멘트생산기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기업소적인 본보기가 되는데 대하여 자랑하지 않았던가.

심홍길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강규근이 최재옥의 이름을 부르며 《지배인동무, 그런데 글썽 그후에...》 하고 한참이나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이런 말 있지 않소다. 딱한 사람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구. 보시구려, 최재옥이가 내 당사돈이 되었고그려. 이 일을 어쩌면 좋소다. 일부러 누가 꾸민것처럼 최재옥이하고 맞다드는데 이게 다 우연이겠소다?》

심홍길은 한숨을 쉬고 강규근의 생활사에 푹 빠지고있었다. 강규근이 최재옥과 사돈이 되여 최영진을 사위로 맞아들이던 때의 심정을 푸념삼아 늘어놓았다. 물론 이야기는 심홍길에게 영 그름밤이 아니었지만 강규근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데 꽤 유익하였다.

...강규근은 장홍진이가 최영진을 사위로 삼지 않겠느냐고 혼사말을 꺼냈을 때 펄쩍 뛰며 반대했다. 두가지 조건을 내대며 혼사말은 100리밖에 가서도 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강규근이가 말한 두가지 조건이란 하나는 아들없는 집안에 사위가 들어오면 아들삼아 강철로앞에 세우자는 자신의 희망이 실현될수 없게 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의 혼사를 장홍진과 짜고 적극 부추긴 최재옥이와의 관계문제에서 오는 내놓고 말하기 딱한 사연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장홍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두더라도 말이 났던김에 한번 만나보는거야 일 없지 않는가. 그래서 둘을 마주세웠는데 일은 맹랑하게 되어버리고말았다. 딸과 최영진이 한번 만난것이 그만해야 영원을 약속해버릴줄이야 어떻게 알

았으랴. 이런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연분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처녀도 총각도 단번에 떨어질줄 몰랐으니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벼락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후 젊은 부부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발전소건설설계오작이 원인이 되었던지도 모른다.

발전소건설장사고를 놓고 강규근이 한 말을 장흥진이 심홍길에게 전해준 일이 있다.

《설계오작사고는 달라. 팔다리가 성성하고 머리가 멀쩡한 녀석이 실무적자질이 낮아 나라에 그런 손실을 줬으니 이걸 내가 어찌 좋게 보겠나 말이다. 그때위녀석을 내 어찌 사위라고 두던하겠는가, 영? 그녀석을 그만큼 전기로에 가져다놓구 닥달질 해서 무른 떡최가 아니라 강으로 만들어주자는건데 지배인이 끼고돈단 말이다. 그래서 장흥진이까진 내 욕하는거다. 아무리 사위가 귀하기로서니 그따위 열이 있으면 땀하고 백이 있으면 땀한대.》

강규근의 이 말에는 진실이 땅처럼 깔려있다.

심홍길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았다. 따져볼수록 강규근의 인간으로서의 전모가 알려졌다. 그래서 심홍길은 아들자식이 없는 강규근의 집안에는 최영진이 아들맞잡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사장동무, 그러니 사위를 너무 박대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사위박대는 딸학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강규근은 잔을 소리가 나도록 상우에 놓으며 말하였다.

《지배인동무, 내가 그걸 왜 모르겠소다? 영진이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지난날 나는 내 딸을 아껴 그놈에게 잘해줬소다. 옛사람들은 사위를 100년손님이라고들 했소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았소다. 정말 친자식으로 여겼기에 발전소사고때에도 그놈을 전기로에 가져다놓자구 했터랬는데. ...》

《그렇습니까?》 하고 심홍길은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 사위문제로 생각이 많겠습니다.》

《그렇소다. 자식이란 나이가 들어도 강가에 세워둔것처럼 늘 마음놓지 못하는게 부모된 심정이 아니겠소다. 아들맞잡이인 영진이에 대해선 더욱 마음을 쓰게 되니 어찌겠소다. 요전에 지배인이 발전소개작설계를 놓고 협의회를 조직했을 때 내가 한마디도 빠치지 않은것은 그때문이였소다. 발전소설계가 너무도 요란하여 영진이가 걱정되더라 말이다. 이번에 또 사고를 치면 어찌겠소다?!》

그 말에 심홍길은 이윽도록 기사장을 바라보다가 《마음놓으십시오. 젊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읍시다. 영진이는 꼭 해낼것입니다.》 하고 강규근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강규근의 말을 들으면서 심홍길은 그를 좀더 일찍 만났더라면 더욱 좋았을것이라는 생각에 후회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

5

월생산총화회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의 하나가 강철분공장 생산정상화사업에서 큰몫을 차지하는 수평단조기수리문제였다.

강철분공장에 있는 수평단조기는 여러해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온 연합기업소적으로 한 대밖에 없는 외아들설비다. 기계를 오래 쓰다보니 베아링이 나갔는데 그게 자그만치 500볼베아링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 그런 베아링을 생산하지 않고있었다. 강철분공장에서 거의 매일 연합공무파에 독촉을 했으나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해 연합당확대위원회의에서까지 그 문제가 상정된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공무파장이 회의도중에 여러번이나 일어서 회의를 집행하는 책임비서의 닥달질을 받았지만 그 해결책이 씨원치 않아 심홍길은 무척 실망해했다.

회의가 끝났지만 심홍길의 머리속에는 공무파장이 하던 말이 그냥 귀전에 들려오는듯 했다.

《500베아링을 해결하려고 총국에 여러번 제기하고 사람도 올려보내봤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장동무가 국내에서 해결할 방도가 없으면 수평단조기를 사온 나라에 의뢰하여 수입하자고 하길래 해당 국에도 가보았지만 베아링 한두알을 위해 외교적경로를 거칠수 없다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해결해달라고 문건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받은 일군은 빨라야 석달은 걸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앞에서 심홍길은 더는 해당 부서만을 믿고 기다릴수 없어 당조직과 토론하여 연합안의 기술일군들과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에는 지난날 기술혁신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적지 않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참가하였다.

물론 기사장 강규근도, 최재옥이도 참가했다.

심홍길지배인은 기업소형편을 말하고나서 500베아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리상적이며 빠른 길은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다. 물론 심홍길은 수입해오자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므로 그 방법은 현 기업소형편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말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으나 그 누구도 이렇다할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최재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이 맡아 무조건 해내겠노라고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모

았다. 그 눈길들에는 믿음과 의혹,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토론끝에 심홍길은 최재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기술협의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까지 쓰다달다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강규근이 심홍길에게 바투 다가서며 한마디 했다.

《지배인동무, 정말 그렇게 하시려우다? 아무리 사람을 믿는다 해도 믿을게 따로 있지 500베아링을 만들겠다는 그 녀인의 말을 믿소다? 그 녀자를 믿고 기다리다가 안되면 계도 구력도 놓치는격이 될가봐 걱정돼 하는 말이니 심중히 생각하기 바라오다.》

사돈되는 녀인이라 앞에서 말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지만 심홍길은 입을 열었다.

《기사장동무, 부탁입니다. 최재옥동무를, 대중을 믿읍시다. 아무려면 이 큰 기업소에서 베아링 하나를 못 만들겠습니까? 정 믿음이 안 가면 래일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앉아 의논해봅시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강규근은 찾아오지 않았다.

알아보니 충수염으로 강규근이 갑자기 현장에서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고 병원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심홍길은 안해를 시켜 그의 병문안을 하게 하고 자신은 최재옥의 베아링제작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소재준비를 위하여 강철에서 규격대로 뽑아 단조 직장 공기함마공 류월림에게 맡겨 최재옥의 요구대로 때려다주었고 선반가공이 제기되면 공장적으로 가장 높은 기능공들을 붙여주어 잠시도 시간허실이 없도록 날자별로, 시간별로 맞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최재옥은 일판을 벌려놓은지 꼭 한달만에는 대형베아링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제 손으로 만들어낸 베아링을 가지고 지배인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최재옥은 얼굴도 손도 말이 아니었다.

심홍길은 베아링을 앞상우에 받아놓는 순간 피부가 닳아 피가 배인 자리에 반창고를 여러번 붙인 손가락들을 차마 바라볼수 없었다.

《손이 아프겠습니까.》

지배인은 겨우 이 한마디 말을 하고 그의 손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았다. 며칠전에 장홍진이 말하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지배인동지, 그는 녀성이고 안해이며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재옥동무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남편에게 바칠수 있는 모든 정성을 오로지 기술혁신운동에 바쳤습니다. 강규근기사장에게 누군가가 최재옥이 베아링을 만들면 손

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장동무가 동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수 있었습니까? 최재옥동무도 귀가 있으니 나도는 말은 들었겠지요. 가슴에 맺혔을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심홍길은 그의 손을 다시한번 힘껏 쥐어주었다.

《재옥동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장한 일을 했습니다. 이 베아링에는 동무가 하고싶은 모든 말이 다 깃들어있습니다. 동무는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실천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최재옥의 큰눈에 맑은것이 차오르더니 해쓱한 불편으로 또르륵 구울러내렸다.

대바르고 이악하며 외유내강한 최재옥이 어머니와 안해로보다 공장파 집단을 위해 더 많이 산 녀성이라는 생각에 이 시각 심홍길은 그가 큰산처럼 높이 돋보였다.

이윽고 최재옥이 눈물을 거두고 밝게 말했다.

《지배인동지의 고무가 정말 컸습니다. 협의회때로부터 전기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말한 심홍길은 전화로 책임비서를 찾아 베아링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책임비서의 목소리가 수화기통을 뛰어넘어 최재옥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기쁨을 앉아서 사무실에서 맞이할수 없지요. 내가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심홍길은 최재옥에게 《들었지요? 책임비서동지가 이리로 곧 오겠습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두사람의 눈빛은 밝고 환히 빛나고있었다.

6

다음날 심홍길은 공무직장 수리공들을 데리고 강철분공장으로 나가 수평단조기에 베아링을 교체하고 설비를 가동시켜보았다. 성공적이였다.

기사장의 입원으로 당분간 기사장방을 지배인이 차지하고 생산전투를 지휘했다. 어느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니 안해가 낮에 강규근기사장에게 면회갔던 일을 알리며 말했다.

《이보세요, 기사장동지가 이번에 큰일날번 했어요.》

《당신이 오늘도 또 갔겠소?》

《지배인이 못 가면 나라도 매일 가봐야지요.》

《참 고맙소. 그래 지금상태는 어땡소? 한번 가봐야겠는데...》

《퍽 낫긴 했는데 아직두. 충수염을 참다가 터져 복막염이 되어 4시간이나 수술을 했으니 그 나이 많

은분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나요.»

이렇게 말한 안해는 홍길에게 《30분만 지체했다라면 큰일날번 했대요. 오늘 침대에 누워있는 기사장을 보니 완전히 할아버지더군요. 며칠새에 머리가 완전히 백발로 변했더라구요.》하고 혀를 찼다.

그리고는 속이 안 내려가는지 또 말을 이어나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기사장에게 다가갔을 때 나는 정말 놀랐어요. 본래 몸집이 실하고 키가 큰 기사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체구에 비해 목이 어쩔 그리 가늘어졌겠나요. 얼마나 보기 딱하던지. 그 가는 목에 왜서 피줄만 그리 굵게 눈에 띄던지 너무 가엾게 생각되어 내 손으로 침대에 기대고앉은 그에게 배개를 베여주고 조용히 눕혀드렸어요.》

안해는 눈물까지 흘치었다.

《그렇단 말이지. 70이 넘었으니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지. 헌데두 그 나이에 그 몸으로 강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됐지. 참 아까운분을 잃을번 했소. 다행이요.…»

한달후에야 강규근은 치료를 끝내고 돌아왔다.

어느날 생산일보를 들여다보던 심홍길은 건설장에서 강철분공장 교대로력이 나오지 않아 건설계획이 일정대로 나가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장홍진의 보고에 의하면 기사장이 그동안의 생산이 밀려 로력을 보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기사장이?》

심홍길은 강규근을 전화로 찾으려다말고 로동과장 장홍진을 먼저 불렀다.

《강철에서 생산이 긴장한데 꼭 거기서 로력을 빼야겠소?》

《지배인동지, 그 동무들은 지내합니다. 기사장 입원기간 우린 그곳 로력을 다치지 않았습시다. 공장일군치고 생산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사장은 아무때나 생산입니다. 강철을 빗대고 너무 생산일변도란 말입니다. 사실 우린 강철로력을 안 써도 은정원을 일떠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될것이 없지 않소?》

《지배인동지, 은정원을 지어놓고 내 혼자 호강하겠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보겠습시다, 그 동무들이 은정원이 완공되면 어떻게 하나 말입니다. 아마 제일먼저 강철에 걸고 덕을 보겠다고 할 사람들은 그들일것입니다.》

《과장동무, 말을 좀 굵게 하면 안되겠소. 동문 아직 생산을 잘 모르는것 같소. 동무의 말을 들어 보면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사정도 없고 체면도 럽치도 없는 사람이라는건데 그건 지나친 생각 같소. 나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정

없고 량심이 없이는 그리고 집단을 사랑할줄 모르고 명예를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한마디로 공장애가 없는 사람은 생산을 맡아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소에서 생산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소.》

지배인은 여기서 잠간 말을 쉬었다가 다시 말에 그루를 박았다.

《기업소에서 생산문제는 언제나 첫자리에 놓아야 할 기본문제입니다. 때문에 생산지도일군들의 사업을 떠맡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무도 그렇고 지배인사업을 하는 나도 생산을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전소도 은정원건설도 생산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이 일하는걸 보면 내 생각과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 심홍길은 우회로전투때의 일이 생각났지만 그 일을 허밀에 묻어두고 《오늘 내 여러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을 동무에게 한것이니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심홍길은 연합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책임비서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한시간정도 은정원건설장에 나가 블록을 운반해줍시다. 은정원건설을 10월 10일까지 끝내기로 당결정에 밝혀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회로를 낼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본 좋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날 책임비서를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전원이 건설장에 달려나갔다.

심홍길이 강규근을 멈춰세우고 말했다.

《병원에 한번도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무슨 소린지? 아주머니가 매일이다싶이 와주어서 고마웠습시다.》

《그래도…》

홍길은 그와 헤어지며 《기사장동무, 나는 강동무가 생산문제로 누구보다 수고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사장동무가 제강소출신답게, 강철공업부문의 원로답게 기업소종업원들속에서 여전히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새삼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는 정이 가득 넘쳐있었다. 그 말의 뜻을 받아들였는지 강규근도 진정어린 어조로 대답하였다.

《고맙습시다, 지배인동무.》

그날 밤 심홍길은 건설장에서 로동자들과 똑같이 블록을 등짐으로 져나르고 늦게야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러고도 심홍길은 초불을 켜놓고 새날을 맞이한 기분으로 일손을 잡았다.

그는 앞으로 할 사업을 놓고 머리를 찼다.

기업소앞에는 발전기실건설이 끝난 조건에서 옥천강발전소를 완공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나서고 있었던것이다.

그는 일력장에 《옥천강발전소》, 《종합배전반》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붙였다.

7

어느날 3. 4분기 연합당위원회 회의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토론되고 비판도 되었다. 특히 긴장해지고있는 전력문제에 대해 토론한 당원들은 옥천강발전소건설문제에 모를 박고 비판을 날카롭게 하였다.

사무실에 돌아온 심홍길은 회의기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발전소문제에 집착되어있는데 장홍진이 뛰어들어 불은 불에 키질하듯 지배인의 심기를 돋구었다. 장홍진은 회의에서 강철분공장에서 맡고있는 발전소완공문제가 지금까지 부진상태에 있는 근본원인은 전적으로 기사장 강규근에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아직도 무엇이 내려가지 않는지 강규근의 토론내용과 지어 그의 성격이며 개성까지 거들며 불만을 토해놓았다.

그리고는 강규근이 최근 발전소문제에서 핵심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는 종합배전반조종장치제작소에서 최재옥을 제명시킨 사실을 거들며 《지배인동지, 최재옥이가 배전반제작소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동무들에게 기사장동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공부질만 한다고 고약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뭐라구?》

《사실입니다.》

심홍길은 이때 너무도 억이 막혀 《여보, 정말 고약한것은 동무들이요. 기가 차오.》 하고는 더욱 토록 말을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 자신을 진정시킨 심홍길은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과장동무, 나는 동무들이 회의에서 기사장동무를 비판할 때 나자신을 먼저 돌이켜보았소. 나는 비판자체를 말하는게 아니요. 내자신을 돌이켜봤다는건 발전소문제에서 지배인인 내가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돌렸는가를 따져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나 동무도 말로만 발전소가 중요하다고 했지 실지행동으로 도와준건 별로 없지 않소.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소. 어깨를 들이밀고 일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바로 일군의 사업내용이고 가장 정확한 언어가 아니겠소. 말로 도와주는것은 단명이지만 행동으로 도와주는 훌륭한 행동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 법이요. 몸을 아끼지 않고 실천행동으로 일하는 일군이 나는 기사장동무라고 생각하오.》

《지배인동지,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게 못됩니다.》

장홍진의 이 말에 심홍길의 질은 눈섭이 꿈틀거리었다.

《과장동무 가만 보면 기사장동무에게 곱지 않게 굴거던. 말하는 품이 그에 대해 연구도 한것 같은데 애기와 별도로 하나 묻겠소. 그때 기사장동무의 경력에서 15살때 무엇을 했는지 알고있소?》

《?...》

《내가 알려주겠소. 그는 그 나이에 벌써 성진제강소에서 강을 뽑아 나라의 강철생산에 기여했소. 우리 기업소에 전쟁때 제강소출신은 오직 기사장동무 한사람이요.》

여기서 말을 중단한 심홍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울데 대해 주신 말씀을 강조하며 일군들에게 부족점이 있는것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것이 문제라고,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면 자연주의에 빠져 엄청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고 하면서 장홍진이가 현상에 치우쳐 사람의 진가를 못 보고있는 사실을 실례를 들어 이야기해주었다.

장홍진은 눈을 크게 뜨고 심홍길의 말을 듣고있었다.

《기사장동무가 왜 팔의 결혼을 반대했는가? 상대인 최영진이가 싫고 그의 누이 최재옥이와의 인간관계때문이였겠는가? 아니면?》 하고난 심홍길은 언제인가 집에서 둘이 마주앉아 이야기할 때 들은 사실을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사실대로 말해주면서 최영진이 건축설계사이니 강철로앞에 세우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했다고, 그가 발전소건설오작사가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회에 그를 설계실에서 완전히 떼내어 강철로앞에서 단련시켜 아들 없는 강철집안의 대를 잇게 하려고 평양실습받으러 갈 때에도 것처럼 반대했다고 말했다.

심홍길은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다음, 동무가 말한 최재옥에 대해 말해주겠소. 강규근기사장이 옥천강발전소에 놓게 될 배전반조종장치제작소에서 그를 기어이 뽑아낸데는 그만이 알고있는 내용이 있기때문이요. 그게 뭐가?》

《?!...》

장홍진의 얼굴표정이 긴장해졌다.

《과장동무, 잘 들소. 최재옥이 위암에 걸렸소. 나는 이걸 기사장동무한테서 며칠전에 알았소. 병원에 알아보니 사실이었소. 벌써 때가 늦었다오. 암성이 여러 장기에 전이되었다는거요. 그래서 기사장이 대상과제에서 그를 뽑고 치료시키자고 했던거요.》

《하...》

《그런데 동무 기사장동무에게 어쩌면 그리 모지

오. 과장동문 오늘 보니 정말 나빠. 지금까지 내가 동무를 잘못 봤는가? 이미전에도 내가 동무에게 이런 경향성에 대해 신호를 했었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은 2년정도 같이 생활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린 벌써 5년나마 같이 일하고있지 않소. 그런데 내가 동무를 몰랐다면 이게 무슨 똑똑한 지배인이겠소.》

《지배인동지!》

《어쩌면 지배인사업을 도와준다고 늘 뛰어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이 지배인을 괴롭히기만 하오.》

지금까지 심홍길은 장홍진에게 이처럼 큰소리로 꾸짖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장홍진은 그만 와들쭉 놀랐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떠들떠들 말하기 시작했다.

《지배인동지, 알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저는 일군자격이...》

《자격이 없단 말이겠지. 말 좀 해보오, 도대체 원인이 뭔가?》

심홍길은 진정으로 그의 호소를 듣고싶었다.

장홍진은 중심마저 잃은듯 비칠거리며 앞상모서리에 겨우 몸을 지탱하는가싶더니 무엇을 외우듯 힘들게 말을 꺼냈다.

《저는 확실히 속통이 나쁜 사람입니다. 위선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거짓의 바닥에는 자기 보신의 개인리기주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

그의 말에 한참 침묵을 지키고난 심홍길이 이렇게 말했다.

《동무의 말이 옳은것 같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을 잘 모른다고들 하오.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하오. 자신의 결함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말ियो. 동무가 자신을 옳게 돌이켜봤다고 생각하오.》

《...》

《그러면 됐소. 천리길을 갔어도 잘못 갔다고 생각하면 되돌아서 다시 시작하는것이 옳소. 나는 과장동무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을 마친 심홍길은 장홍진을 바라보았다.

장홍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분명 그는 울고있었다.

그런 로동과장을 보는 심홍길의 가슴속에 그보다 더 아픈 눈물이 고이고있었다.

8

련합기업소행정일군회의가 열렸다. 심홍길지배인과 련합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기업소안의 부원급이상 일군들이 모두 참가하고있었다.

연락에 나선 심홍길이 사업수첩을 펼쳐놓고 말

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련합당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안에 옥천강발전소를 완공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100명돌격대원명단이 얼마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검토한데 의하면 100명중에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있는 동무들이 여러명이나 있습니다.》

장내를 엄한 눈길로 둘러보던 지배인은 잠시후 힘주어 말을 계속하였다.

《여기 앉아있는 일군들이 명단을 작성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 도대체 인원선발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을 중단한 지배인의 눈에는 심중한 빛이 어려있었다.

사람들은 기침소리 하나 없이 정숙해서 그를 지켜보았다.

심홍길은 이번에 작성된 돌격대원명단을 보면서 자신은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일을 잘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가슴저리게 느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오전에 있는 련합당집행위원회에서 돌격대원들을 새롭게 선발하여 옥천강발전소를 올해안으로 무조건 완공하고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조직한 돌격대원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돌격대장 심홍길, 부대장 장홍진, 참모 최영진, 대원 류월림, 김필준, 안성령, 박광식... 이상 100명입니다.》

거의가 다 유급일군들이거나 부문당비서, 세포비서, 부직장장들과 작업반장들이었다. 이날 심홍길은 돌격대원들이 준비할 물품들과 현지로 떠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모임을 끝냈다. 이리하여 1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심홍길지배인을 대장으로 하는 련합기업소 100명돌격대원들이 옥천강반에서 전투를 벌리게 되었다.

12월달의 옥천강반의 날씨는 맵찔다. 이해따라 설전에 눈도 많이 내렸다.

10년만에 처음보는 눈이라 했고 추위라 하였다. 그렇다고 휴게실을 짓고 일할 형편도 못되었다. 전투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 가설천막을 치고 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대상은 50미터구간의 미진된 흙판매물작업과 옥천강물속에 대형흙판을 뿌리박아 잠판과 련결하는 작업이었다.

전투는 시작부터 치열한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드디어 전투를 결속하는 마감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전투원들이 현지에 도착한 이래 기온이 가장 내려간 날이었다. 전투원들은 새벽부터 옥천강반의 얼어붙은 얼음을 깨내기 시작했다. 얼음두께가 1미터를 넘었다. 흙판을 들여다놓자니 넓이

5메터이상의 얼음판을 꺼내야 했다. 얼음을 꺼내는데 오전시간이 걸렸다. 얼음을 꺼낸 자리에는 검푸른 옥천강물이 시퍼렇게 내려다보였다. 점심식사를 끝낸 전투원들은 곧 흙판을 들어놓을 작업준비를 했다.

작업준비가 끝났을 때 그와 때를 같이하여 기다린듯 옥천강반에서 세찬 바람이 터져나왔다. 년중 이맘때면 들이닥치곤 하는 동북풍이 터진것이다. 천지를 뒤집어놓은듯 우르릉대며 터져나오는 바람이 앞산통선을 핏으며 강기슭을 휩쓸었다. 이런 때면 사람도 자연도 온통 흰눈에 묻히어버린다.

직경 2메터, 길이 30메터 대형흙판을 30조의 목도로 운반해가던 전투원들의 전진이 그만 일시에 좌절되고말았다. 눈보라폭풍이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휘몰아쳐왔던것이다.

바람이 멎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전투를 지휘하던 심홍길은 심호흡을 하며 앞을 바라보았다. 눈보라는 파도식으로 전투원들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갈기고는 하늘 저쪽으로 꼬리를 사린다. 은회색의 뽀얀 공간은 빗마져 없었다. 자연의 광란은 대장을 비롯한 전투원들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양갈지게 기승을 부리었다. 사람이 이기는가, 자연이 이기는가. 좌절된 대오가 여전히 전진하지 못했다.

심홍길은 호각을 입에 힘껏 물었다.

그런데 호각을 부는 순간 입술이 몽청 묻어나왔다. 하지만 그에는 아랑곳없이 심장의 힘을 모아 구령을 쳤다. 《앞으랏!》 결사전이였다.

심홍길의 구령에 좌절되었던 대오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나갔다.

드디어 판이 얼음구멍에 접근했다. 판을 물속에 박아넣는 전투였다. 이 전투는 말그대로 위험을 동반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돌격대장의 구령에 따라 대형흙판을 45도의 얼음경사면을 따라 물속으로 내리우고있었다.

그처럼 엄혹한 추위였지만 판을 물속에 들어놓는 전투를 할 때 돌격대원모두는 거의 맨손으로 일하고있었다. 심홍길이며 장홍진, 최영진, 류월립 등은 모자도 장갑도 지어 옷통까지 벗어던진지 오래였다. 몸에서 뿜어나는 신열로 하여 전투원들의 몸과 얼굴에는 성애가 하얗게 불리었다. 흡사 영화에서 보는 북극의 백곰이었다. 누가 누구인지 분간조차 하기 힘들었다.

순간 누구인가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는 소리가 하늘공간을 찢으며 들려왔다. 알고보니 물에 빠진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든것이였다.

잠시후 사람들이 연방 바줄을 집어던지며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물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작업을

성파적으로 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지배인동지!》

장홍진이 그 시퍼런 찬물속에서 지배인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투는 멋지게 결속되였다.

여전히 옥천강기슭에는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있었다. 웅— 휘익— 전투가 끝났을 때 사람도 자연도 눈사태속에 파묻힌듯 했다. 누가 사람이고 무엇이 자연인지? 사람들은 분명 북극대지의 몽실몽실한 《백곰》들이였다. 그래도 좋았다. 분명 기업소안의 전투원들일진대야.

그러나 알아야 했다. 심홍길은 눈덩어리가 되어버린 찢찢한 손을 들어 눈을 썩썩 비비며 하나하나 일별해보았다. 그러던 심홍길이 그만에야 아— 하고 놀랐다.

그 《백곰》들속에는 분명 연합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당일군들과 같이 웃고있는 70대의 강철기사장 강규근이도 섞여있지 않는가?!

또다시 옥천강반에서 폭풍이 터져나왔다.

허나 그것은 옥천강을 넘어 질풍치는 눈보라의 퇴성이 아니라 전투를 결속한 전투원 《백곰》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터치는 환호성이였다. 그 소리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또 하나의 조국의 고지를 탈환한 전투원들이 웨치는 승전고의 함성과 무엇이 다르랴! 만세! 만세! 만세!

심홍길의 심장은 승리자의 쾌감을 한껏 느꼈다.

환호성은 저 멀리 옥천강너머 멀리멀리 창공률이 울려퍼져갔다.

×

그로부터 며칠후 연합기업소는 옥천강발전소의 준공식을 크게 했다.

준공식이 있는 날 기업소안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두의 남녀로소가 모두 명절옷차림을 하고 행사장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신 행사장은 명절일색으로 장식되어있었다. 기발들이 힘있게 나뭇기고있는 행사장에는 화려한 색테프들이 줄줄이 늘어져있었다.

시간이 되자 행사장에 연합의 책임일군들이 도에서 내려온 일군들과 같이 자리를 잡고 심홍길지배인의 발언에 이어 옥천강발전소의 준공식을 선포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이어 준공식을 축하하는 기동예술선동대예술공연과 함께 노래와 춤판이 벌어졌다. 종업원들은 너도나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춤판에 뛰어들었다.

행사가 끝나자 심홍길은 강규근을 찾았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강규근은 종합조종실에 하
염없이 서있었다.

강규근은 심홍길지배인이 다가온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기사장동무, 웬일입니까? 어디가 피롭습니
까?》

말이 없었다. 두세번 반복해서야 강규근이 주름
많은 얼굴을 돌리고 뜨직뜨직 말했다.

《최재옥이 이걸 위해 목숨을 바쳤소다. 참 그가
보고싶구려. 사돈이 돼서가 아니라 진정한 혁명동
지란 생각에 보고싶단 말이오다.》

《...》

《그 녀자는 참 나를 많이 도와주었소다. 배아
링두, 이 배전조종반두... 최재옥이 비록 치마두
른 녀자였지만 우리같은 사내 열을 주고도 못 바
꿀 사람이오다. 그에게는 특출한것이 있었지오다.
그는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확실성을 가
지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몸에 불을 달
고 산 녀성, 진짜배기기술자였소다. 이것이 우리
가 쉽게 가질수 없는 그의 특출한 정신력이 아니겠
소다.》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가 있었다
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심홍길이 추연히 하는 말이였다.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볼지도 모르지오다.》

이렇게 말하는 강규근의 눈에는 맑은것이 번뜩
이였다.

《기사장동무, 이젠 자신있습니다. 오늘 발전소
준공식까지 하고나니 더욱 신심이 생깁니다. 이 성
파는 비록 첫발자국에 불과하지만...》

《...》

《우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옥천강에서 검증된

100명의 돌격대원들이 기업소에 피줄처럼 뻗어있습
니다. 최재옥이 발휘한 그 정신력으로 일하면 우리
는 반드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습니다.》

《제 이번에 또다시 새삼스럽게 절감했지만 현실
을 지배하는것은 물질과 돈도 아니며 또한 기술만
능도 아닙니다. 정신, 정신력입니다. 우리 과학기
술과 로동자대중을 선생으로 보고 풍만한 단풍계절
을 향하여 돌진합시다.

나는 기사장동무가 생의 끝까지 15살나이에 강철
로앞에 섰던 그 모습으로 살며 투쟁하리라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고답수다. 그새 지배인 마음고생 컸을거우다.
나이많은 부하 다루기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소다.
내 그 빛을 다 갚겠는지.》

《빛이란 무슨 말입니까. 년간강철생산도, 이러
게 발전소도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면 되고도 남겠
습니다. 기사장동무.》

《?!...》

두사람은 굳게 손을 잡았다. 안해가 가늘어보인
다고 서글프게 생각하던 강규근의 목이 오늘은 유
별나게 굵어보이였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하늘높이 떠올랐다.

눈덮인 산밭을 타고 눈바람이 쇄 하고 불어
왔다.

옥천강의 눈보라를 상기시키는 바람이였다.

그러나 두 일군에게는 그 맵쌀 바람이 10월의 풍
요한 대지를 활으며 불어오는 단풍계절의 싱그러
운 가을바람인양 시원하게만 느껴지고있었다. 정말
좋았다.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도 없는 기분이였다.
저쪽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장홍진이며 최영진이 또
그뒤로 류월림이 어퍼러질듯 달려오고있었다.

가사

꽃들은 쌓이고 별빛은 내려도

전 광 원

승리한 용사들 잠시라도 쉬라고
밤하늘 별빛도 고요히 내리는가
승고한 경의의 뜨거운 마음앞에
그대들은 오늘도 50년대용사들
아 위대한 승리상에 꽃들은 쌓이고
영웅들 총창은 오늘도 번쩍이네

불타던 전호가의 병사시절 그날처럼
불뿔는 화점향해 달리던 그날처럼
변함없는 혁명의 파격을 향해

영웅들 총들고 앞으로만 나아가네
아 승리에서 승리로 오늘도 이어주며
영웅들 총들고 앞으로만 나아가네

위대한 년대의 승리한 용사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한모습 변함없네
번영하는 내 조국에 행복은 꽃피고
서리발총창은 더욱더 번쩍이네
아 영원한 승리의 그 빛을 이어주며
정의의 총창은 더욱더 번쩍이네

웃음에 대한 철학

손 광 수

웃음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수하고도 위력한 감정 표현형식의 하나이다.

웃음은 기쁨의 절정이고 승리의 쾌감이며 행복의 상징이다.

예로부터 밝고 경쾌하며 낙천적인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웃음을 특별히 사랑해왔다.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에는 다른 민족어들과는 달리 웃음과 관련한 표현이 수백개나 된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 조선어처럼 웃음과 관련된 언어가 많은 나라는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토록 웃음을 사랑해왔고 웃음을 갈망해온 민족이었지만 우리 인민의 필생의 소망은 언제나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행복의 웃음동산에서 즐겁게 살기를 그토록 기원했던만 해방전 백성들에게 차례진것이란 식민지노예의 눈물과 나라없는 설움뿐이 아니었던가.

웃음은 인류의 리상이고 꿈이다.

아마 눈물의 한생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꿈을 꾸고 바란다고 해서, 세기를 두고 하늘에 빈다고 해서 웃음이 아무때나, 아무에게나 찾아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모란봉기슭에 단풍이 불타던 가을날에 나는 아들과 함께 인민의 문화휴식터 문수물놀이장을 찾아가다.

그날따라 이 땅의 모든것은 왜 그리도 정답게 안겨오던지...

울긋불긋 황금의 새옷을 차려입은 모란봉은 소리없이 웃음을 터치는 한송이 모란꽃같았고 행복을 노래하며 출렁이는 대동강은 풍만한 가을빛에 눈부신 미소로 화답하는것만 같았다.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룡라인민유원지를 지나 문수물놀이장에 이르니 마치 룡라도와 웃음경쟁이라도 하듯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하늘땅이 다 울리는것 같았다.

한해전까지만 해도 재래식유희기구만 있던 대동강기슭에 하늘에서 똑 떨어졌는가 꿈같이 솟아난 문수물놀이장.

그야말로 동화세계에 나오는 희한한 물동산이었고 전설속의 룡궁같이 황홀한 물의 궁전이였다.

십여메터의 아찔한 급강하물미끄럼대에서 참매마

냥 날아내리는 청춘들, 금빛버섯조가비에서 반짝이는 진주마냥 튀어나오는 어린이들...

어머니와 아이들이 따뜻한 물의 요람에 몸을 잠그고 행복의 미소를 짓고있었고 처녀들은 마치 팔담에 내린 선녀마냥 한껏 미쁜 웃음을 터쳤으며 로인들은 덕수를 맞으며 백년은 젊어진듯 주름살을 찹 찢고 웃었다.

굽이굽이 무지개빛미끄럼대속에서 총알마냥 튀어나오는 처녀들, 저저마다 벼랑을 뚫아오르며 정복자의 쾌감을 느끼는 젊은이들, 탄성판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솟구쳐오르며 연해연방 탄성을 울리는 저 풍만한 녀인... 반대로 남편인듯싶은 한 남성이가 그를 지켜보며 혹시 탄성판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절반에 벅굴서하게 웃고있다.

여기 들어와서는 웃지 않고는 못 견딜 모양이다.

하하하, 호호호... 해해해...

끝없는 웃음소리가 폭포마냥 쉬임없이 쏟아져내린다.

그야말로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지휘자도 총보도 없는 하나의 웃음교향악, 인민의 꿈의 교향곡이 휴식없이 흐르고있다.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을 이겨낸 인민이, 피눈물의 언덕을 강의한 의지로 넘어서신 우리 인민이 세계를 향해 보내는 심장의 정서였고 마음속 축포였다.

머지않아 여기에 청소년들도 아찔해하는 최대급 강하물미끄럼대가 솟아난다고 한다.

나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이 행복의 물동산을 떠받들고있는 거대한 기계바다도 돌아보았다.

수백대의 뿔프와 전동기들이 컴퓨터의 조종에 의해 췌췌 돌아가고 수십대의 물려파기, 공조기, 조파기들이 무지개색등의 신호에 따라 쉬임없이 가동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저 물동산의 주인공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있는 맑은 물방울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알기나 할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던 한 일꾼이 문득 실내물놀이장기초굴착시 《USA》라는 글자가 생생한 300키로그램이나 되는 불발탄, 미국제화학탄을 발견한 소름끼치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였다.

여직껏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물보라와 같이 무수한 웃음은 삼시에 사라져버리고 증오와 분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USA!

이 땅 어느곳에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미제의 가증스러운 총구가 아직도 우리의 웃음동산을 겨냥하고있단 말인가.

둘이켜보면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탄과 소이탄, 나팔탄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투하한 폭탄총량이 수십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보라, 세계의 량심이어!

십자가를 들었던 미제가 과연 어떤 천추에 용서 못할 야수들인가를...

미제승냥이들이 조선은 100년이 가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였듯이 놈들은 그 더러운 폭탄으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숨을 가진 생명체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 땅을 영원히 악몽에 시달리는 불행과 고통의 식민지로, 공화국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려고 덤벼들었다.

야수들은 우리 조선민족에게서 삶의 희열을 빼앗고 행복의 웃음을 영원히 앗아가려고 짐승도 낮을 불힐 만행을 저질렀다.

이 문수물놀이장전설장에서 발견된 미국제화학탄이, 세포등판개간전투의 6개월동안에 해체된 2만여개의 생생한 불발탄들이 바로 세계앞에 명명백백히 웅변적으로 증명하고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제는 어떤 폭탄으로도 우리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 락천적웃음을 감히 꺾을수 없다는것을 알라. 나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증오와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사방에서 연방 터져오르는 웃음폭탄에 순간 나는 정신을 번쩍 차리었다.

아, 인민의 웃음폭탄과 미국놈들이 뿌린 화학폭탄!

군사가 약할 때 웃음이 아니라 인민의 피가 흐른다!

정녕 총대를 중시하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열

마나 정정당당한가.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이 바로 개설텐년공원의 하늘가에서, 룡라인민유원지와 곱등어판, 전자오락판과 물동영화판,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에서, 옥류아동병원과 류정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에서 아름다운 물보라속에 웃음폭탄으로 폭발한것이다.

나는 중앙홀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렀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품에 안긴 사랑스런 자식들의 구김살 없는 모습을 보시는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끝없이 터져오르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는것이 너무도 행복하시여 오늘도 바다가백사장에 서시여 해님처럼 환히 웃고 계신다.

아, 복받은 땅— 신비한 웃음의 대지여!...

《아버지, 나 군복을 입을래요.》

그때까지 아무말없이 나를 따르던 아들이 생각깊은 목소리로 나의 사색을 깨웠다.

《?...》

《웃음을 향유하는것도 좋지만... 그 웃음을 지킬 줄 아는 청년이 되고싶어요.》

나는 결코 자식을 헛키우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의 총창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민의 웃음이 있다.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피로써 새겨온 이 진리,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묵숨처럼 대를 이어 물려주어야 할 절대불변의 이 철학을 나와 나의 아들여기 웃음의 꿈동산 문수물놀이장에서 다시금 피로써 새겨안았다.

천만대적도 웃음으로 이기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이 계시고 령장의 락천적기질을 그대로 닮은 억센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은 오늘도 웃고 창창한 래일도 영원히 웃을것이다.



말발굽소리

정 성 환

말발굽소리
말발굽소리
승마장에 울리는
말발굽소리

망아지같은 작은 말 탄
귀여운 저 아이를 보아라
흰 말 검은 말 밤색말을 타고달리는
저 사람들을 보아라

세상이 그리도 부러워하는
아득히 펼쳐진 승마장
야외장에도 실내장에도
행복의 웃음꽃이 떨기떨기 피어난다

문수물놀이장에서 만났던
건설장의 기증기운전공도
자랑스레 달리누나
아아한 마식령스키장에서
며칠전에 나와 함께 스키를 타고내린
그 청년도 승마복을 펼쳐입고
본때있게 달려볼 신심에 넘쳤구나

고맙구나
원수님 그 사랑이 정말로 고맙구나
평범한 근로자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 그 은정이

인민의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앞당겨주시려
잠시 휴식마저 잊으시고
그 몇번 이곳을 찾아주시었던가
아, 우리 원수님

조국의 운명을 안으신 원수님께서
승마구락부건설장에 오시여
한점 구석까지도 손색이 없게
행복의 활무대 펼쳐주신 사랑을 믿고
하늘땅을 울리는 말발굽소리 말발굽소리

우리 언제 이런 행복
꿈엔들 생각이나 했더냐
기쁨의 노래 말발굽소리
들어본적 있더냐

마음은 끝없이 즐겁다
인민의 가슴에
천만가지 좋은 꿈 다 안겨주시고
크나큰 그 리상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사랑속에
문명한 생활의 주로를 달리는
행복의 말발굽소리여

산촌의 메아리

박 정 애

산에 산이 솟아 연연이요
산넘어 산이 첩첩 산산이라고
이름도 연산이라 불렀건만
오늘은 연연히 울리는 행복의 메아리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내 붓끝에도 울려오는
오, 연산땅의 행복의 메아리여!

×

청맑은 노래소리 나를 불러

새벽안개 헤치며 산판에 오르니
등성이넘어 사래를 감춘 강냉이밭이랑
포기마다 쌍둥이이삭을 엮었는데

풀판에 흐르는 안개이런듯
염소떼 몰고나온 방목공처녀들
손들어 바래주는이 누구냐 물었더니
이른새벽 방목장에 찾아온
방목공 우리들의 아버지래요

×

령넘어 고개넘어 읍에서 백리
휴양생들 따라 차를 타고갔더니
금강산호텔이 여기에 옮겨진듯
처마높은 인민휴양소 열려진 문
어서 오라 나를 부르고

다른 호동 찾아가듯 한굽이 돌아가니
아담한 황대마을 분교선생들
저저마다 들려주는 우리 학부형 자랑
듣고보니 눈앞에 보여오네
이른아침 방목공들 바래주던 그 모습

×

내가 들린 집은 방목공의 집
내가 만난 녀인은 방목공의 안해
평양에서 살다가 남편따라 왔다면
정들면 고향이요 정들면 형제란 말
저를 두고 생겨난 말갈다네

덩실한 세칸짜리 새집들이날
성냥들고 찾아온 군당의 일군들
평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온것 같아
그 정에 낳은 정마저 잃을번 했다는
아, 평양녀인 방목공 안해의 이야기여

×

읍거리엔 평양으로 곧추 뻗은 살림집거리
거리엔 푸르싱싱한 가로수들과 꽃밭
밤에는 가로등아래 쌍쌍이 거니는 남녀청춘들
창가마다에서 울려오는 가슴젖는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따르니
나날이 꽃피나는 행복한 살림
첩첩산발 징검돌마냥 딛고 달려오는

복받은 세월이여 강성부흥할 래일이여!

×

나는 여기서 보았노라
도시문명 닳아가는 산촌의 풍경
전기가 넘쳐나는 발전소의 높은 언젠
언제아래 오בות한 휴양소며 분교...
과일나무속에 묻힌 방목공들이 사는 집...

나는 여기서 들었노라
이른새벽 일군을 바래주는 방목공처녀들의 목소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형이라 자랑하고
평양녀인 이곳 사람들의 정에 끌려
부모의 정마저 잊을번 했다는 진정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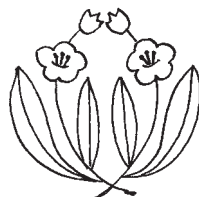
×

나의 눈앞엔 보여오누나
땀에 젖은 옷 뒤축이 닳은 신발
흙내 기름내 배인 일군의 손
산촌마을에 든든히 선 거목의 뿌리
자신을 태우는 초불의 모습

원수님의 리상을
산촌에 하루빨리 앞당겨 꽃피우기 위해
산이 많은 산촌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가는
오, 우리 당의 참된 당일군의 모습

×

오! 어데 가나 울려오는 행복의 메아리
나의 붓은 노래하노라
원수님의 뜻으로 온넋을 불태우는
이런 마음 이런 인민 이런 일군들이 있어
더 높이 울려퍼질
로동당의 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오, 산촌의 메아리여!





백 현 숙

1

무릎이 와당탕통탕 트랙터의 속력을 높이는 바람에 옆을 지나가던 해반지르르하게 생긴 처녀가 짱충 놀라 토끼땨를 하더니 길옆 코스모스꽃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다. 낮빛이 해쓱해서 서있는 꼴이 아마 몹시도 놀란 모양이다. 무릎은 그러는 처녀를 어이없이 바라보고는 흥-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참참, 저 말간 입술로는 쌀이 안 들어가고 바나나만 들어가나.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거름을 실은 트랙터만 보면 오만상을 찌프리고 코며 입이며를 손으로 막고 고개를 외로 틀고 지나간다. 그것이 거름차의 주인에게는 어떤 불쾌감을 주리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벌써 여러해째 이 일을 해오는 무릎이지만 벼모 몇대 꽃아보지 못하고 자연의 순환법칙도 모르는 저런 《공주님》들을 대할 때마다 오장이 꿈틀거렸다. 화장품냄새보다 들판의 낱알향기를 더 사랑하는 춘림이와 같은 처녀들이 모욕을 받는것만 같았던 것이었다.

춘림은 70년대의 첫해인 올해에 기어이 정보당 벼 5톤을 내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김이 문문나는 두엄더미우에서 두손을 가슴에 포개었고 분조원들에게 호소하였었다. 그리고는 대추집할아버지네 두엄을 한웅큼 손에 들고 《보세요, 얼마나 잘 익은 두엄이냐요. 대추집할아버지네가 제일입니다.》 하며 온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었었다.

헌데... 어떤 사람들은 거름을 꺼려한다. 오늘날만 해도 그렇다. 무릎은 첫새벽에 농장에서 그닥 가까운 축이 아닌 해주시내에까지 나가 인분을 두

차 실어나르고 이젠 좀 쉬라는 작업반장의 인정기 어린 목소리를 구두표창처럼 들으며 한탕 더 뛰려고 떠난 참이었다. 이제 한차만 더 실어나르면 시험적인 버짚거름생산준비가 멋들어지게 완결되고만다.

이제 버짚거름까지 내면 풍년은 받아놓은 당상이요, 말뽕을 부리던 트랙터부속도 교체하여 발동소리가 가릉가릉 흥그럽게 울리는터여서 기분이 날아갈듯 하였는데 고 해반주그레한 처녀가 코를 싸쥐는 순간에 싹 잡치고말았다.

그래도 처녀에게 미안한감이 없지 않아 속도를 내어 그결을 빨리 지나친다는것이 그만 처녀를 놀래워놓고만것이다. 헌데 웬일인지 처녀의 해쓱하던 표정이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이제 생각해보니 반장이 자기를 만류하던것이 자기를 생각해서라기보다 길손들에게 실례가 될가보아 그런것도 같다. 글썽 작업반일군이 생각이 다 있어 작업조직을 한것을... 하지만 이왕 떠난 길이니 내쳐 갈 수밖에 없다. 구름처럼 봉 뚫던 마음이 비를 맞은 솜처럼 잦아들면서 또 길손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일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길손이 없었다. 한창 점심을 맞이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다.

드디어 그럭저럭 남에게 미안한 일이 더 벌어지지 않고 번듯한 광장앞도로에 접어드는데 돌연 호르레기소리가 귀청따갑게 트랙터쪽을 향하여 날아왔다.

무릎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광장 맞은편에 여러명의 안전원들과 상당한 직급에 있음직한 일꾼들이 당황하여 무릎을 향하여 손을 단호하게 내휘두르는것이 보였다. 그들의 행동에서 류

다른 촉감을 느낀 무렬은 자기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음을 아니, 상상할수도 없는 파오를 범하고있음을 깨달으며 알지 못할 전율이 온몸에 짜릿이 퍼져갔다. 그도 그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황해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따뜻한 바람처럼 황해도땅에 퍼지고 있었기때문이였다.

문득 방금전에 처녀가 코를 싸쥐었던 모습이 상기되면서 무렬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무렬은 프락포르의 조향륜을 돌리였다. 왜서인지 손이 떨리고 방향을 잘 알수 없었다. 한방망이 호되게 얻어맞은 말마냥 프락포르는 그냥 한자리에서 이리저리 길길이 뛰며 돌아갈뿐 광장어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있었다.

안타깝고 야속한 시간이 한초한초 육박해들어왔다.

무렬은 광장 맞은편도로로 까만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도당일군들이 아연한 눈길로 프락포르를 쏘아보는것을 무아몽중인듯 느끼며 간신히 광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

(리무렬?)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 윤덕수는 어버이수령님의 짧은 점심시간에 거름냄새를 끄우고 불쾌하게 뛰어들어 이 곱지 않은 불청객의 이름이 어딘지 귀에 익어 기억을 되살리느라 끙끙거렸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전원회의를 현지에서 지도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수령님께서는 오전회의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느닷없이 불쑥 나타난 빨간 《풍년》호프락포르를 띄여보시고 도당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마치도 거름을 나르는 그 프락포르운전수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기 해주땅에 오시기라도 하신듯 오랜 시간 점심도 잊으시고 진지한 담화를 나누고계시였다.

(어디서 꼭 들은 이름인데...)

윤덕수는 나무의자에 대충 걸터앉아 좁전에 도당청사 앞마당으로 통탕거리며 들어서던 프락포르운전수의 민망스럽던 모습을 상기해보았다. 얼굴은 갱핏하고 키만 멋없이 꺾두룩한데 청년답지 않게 잔등이 꺼져부정하였다. 아마도 그 큰 키에 하루종일 프락포르에 앉아있다가니 등이 그렇게 굽은듯싶었다.

(얼굴이 꼭 시루속의 콩나물처럼 새말간것이...)

운전수의 해말간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윤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 녀석이구나. 춘림이가 같지도 않는 자랑을 늘어놓던.)

윤덕수는 다름아닌 춘림을 수령님앞에 내세운것

만 같아 마음이 초조하게 들뛰기 시작했다.

춘림은 윤덕수의 더없이 살밭은 조카이며 왕신협동농장 3작업반 4분조장이였다. 언젠가 춘림이가 《해썩해서 돌아가는 무렬동물 보면 가슴이 아파요. 10톤을 하겠다고 장참 트랙톨에서 내릴줄 모르니.》 하고 걱정스럽게 종알거리던것을 윤덕수는 기특하게 들었었다. 그림의 떡같은 정보당 10톤소리를 들고다니는 철박서니없는 공상가가 춘림이말고 또 있구나 생각되면서도 낮모를 청년운전수에 대하여 애모쁜 감정을 품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풍선같은 10톤소리며 도당청사에 어울리지 않는 거름냄새며가 윤덕수를 불안하게 만들어놓았다.

무렬의 출현이 마치도 자기의 잘못이기라도 한듯 윤덕수는 수령님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저 녀석까지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윤덕수는 두눈을 지그시 감고 오전에 있는 회의의 전경을 가슴아프게 돌이켜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황해남도의 6개년계획을 먼저 토의에 붙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에서는 이제 래달에 당 제5차대회를 열고 사회주의경제건설 6개년계획을 제시하려 한다, 6개년계획에서 자신께서는 전국적으로 700~750만톤의 알곡생산목표를 내걸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죽으나사나 200만톤은 맡아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황해남도 6개년계획에 200만톤이라는 방대한 알곡생산수자를 박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마당에서 수령님께서는 불쑥 유치원아이들까지도 뜬금으로 외우고있는 옛이야기 《황금덩이와 강낭떡》을 꺼내드셨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큰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던 농민과 지주놈이 나무우에 올라갔는데 농민은 강낭떡을 몇개 가지고 올라가고 지주놈은 금덩어리를 몇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옛이야기가 끝났을 때 윤덕수는 머리를 들지 못했었다.

지금이야말로 금을 주고도 쌀을 사올데가 없는 그런 시대임을 윤덕수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올해만 봐도 흉년이 들어 지구라는 큰 마을이 황금덩이로 강낭떡조차 사지 못할 옛이야기의 흉수난 마을처럼 되어버리고말았다. 여러 나라들에서 저저마다 쌀을 사려고 하기때문에 쌀값이 매우 비쌀뿐아니라 쌀을 팔겠다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구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다 말해보시오.》

기대가, 믿음이 한껏 실려있는 수령님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윤덕수는 수령님의 기대어린 눈빛앞에서 머리를 떨구었다.

현재 황해남도의 연간알곡생산수확고는 최고 91만톤계선… 지금처럼 정보당 강냉이 2.3톤, 벼 3.5톤의 수준에서는 100만톤도 어려웠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구구한 실태자료는 수령님께서 아까부터 벌써 몇번짜나 번져보시는 저 문건안에 깨알같이 써여져있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서는 그 무엇인가를, 기적을 안아올수 있는 신비한 묘안이 반드시 있으리라는것을 굳이 믿고계시는듯 했다.

그러나 자신이 수령님께서서 그토록 믿어 기다리고 계시는 기적의 묘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었을 때 윤덕수는 통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어제날 머슴군이었던, 해방후에는 열성농민으로 이름떨쳐던 자신이 어버이수령님앞에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다는 그것으로 하여 윤덕수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쌀은 반드시, 반드시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시며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무거운 음성이 다시금 윤덕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3

윤덕수가 우려하던 일은 끝내 일어나고야말았다.

도당일군으로부터 윤덕수에게 왕신협동농장 선출임분조장에 대한 파악이 있느냐 하는 전화가 걸려온것이였다.

파악으로 말하면 이악이 발발한 그 성격으로부터 웃을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는 덧이에 이르기까지 모를리 없건마는 윤덕수는 한동안 영문을 몰라 소처럼 우뚝 서서 머뭇거리였다.

《출림동무네 분조에서 올해 정보당에 상수확고가 5.5톤이나 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수령님께서서는 대단히 기뻐하시였습니다.》

《예? 5.5톤 말입니까?》

5.5톤, 그것은 정녕코 믿을수 없는 수자였다. 황해남도에서는 정보당 벼 3.5톤이 최고기록이였다. 그것도 3.49톤인것을 경영위원장 책상머리에서 사소취하여 만들어낸 수자였다.

(어느분앞이라고 감히?)

윤덕수는 리무텔에게 본격하는 순간에 조카인 춘림에게 육설이 나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늘아래 자란 싱아대같이 꺾두룩하고 만문하게 생겨먹은, 게다가 어버이수령님앞에서까지 아무 말이 나주어대는 저런 꼭 배기지 못한 녀석을 뭐가 좋

다고 칭찬이람.

윤덕수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수확기에서는 도당 일군의 활기넘친 목소리가 그냥 울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 정보당 10톤을 내겠다는 윤전수동무의 대답을 들으시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생활을 이악하게 끌어올려가는 농촌의 선진적인 청년들의 열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는것, 정보당 10톤이 아니라 5~6톤의 수확만 담보되여도 5차당대회 6개년계획에서 700만톤의 알곡생산 목표를 내세울수 있다고 하시면서 윤전수동무를 이번 회의에서 토론시킬것을 제의하시였다는것, 경영위원장 윤덕수가 토론준비를 좀 봐주어야 할것 같다는것 등등.

윤덕수는 한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무릎을 토론시키다니.

그는… 프락프르윤전수에 불과하다.

너무 어리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리고 또… 당원도 아니다. 그런 그를 한개 도의 경제계획을 의논하는 도당전원회의의 연단에 내세우다니…

《저… 그런데 그 윤전수동무가 당원이 아니어서…》 윤덕수는 말끝을 얼버무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200만톤을 하자는 회의인데 200만톤을 하겠다는 사람, 200만톤이 자신있다는 사람은 당원 못지 않은 사람이라고, 꼭 토론을 시켜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도당회의에 술한 일군, 당원들이 참가했으면 될합니까. 수령님께 만족한 대답 한마디 못 드리는데… 그러니 윤전수동무의 토론은 같은 군의 위원장동무가 좀 맡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송수화기를 놓고나니 덕수는 자기도 알수 없는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무엇을 알았던 말인가. 여기 왕신군농사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경영위원장인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있다고 윤덕수는 생각했다. 그런데 자기도 울리지 못한 대답을 평범한 윤전수가 가볍게 대신해버린것이다. 어서 윤전수녀석을 만나봐야겠다. 도대체 궁냥이 어떻게 돼먹은 녀석인지 속내를 확 들춰봐야 마음이 놓일것 같다. 덕수는 무작정 사무실을 나섰다.

윤덕수는 눈에 띄우는대로 앞마당에 서있는 《풍년》호프락프르에로 다가갔다. 프락프르의 주인은 아직 보이지 않고 가을열매를 익히는 정오의 따가운 해별만이 프락프르의 빨간 도색감을 녹여내릴듯이 쏟아지고있었다.

덕수는 내려찍이는 해별을 피해 운전칸안에 훌쩍 올라섰다.

순간 무엇인가가 덕수의 머리에 부딪치더니 땡그랑, 찌걱찌걱 거친 소리를 내며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볼품없는 쇠방울이 운전칸 앞머리에서 땡그랑거리고있었다.

《취미도 참, 이따위 쇠조박을...》

입귀를 찡그리며 괴이한 장식품을 일별한 윤덕수는 자기가 앉은 자리가 몹시 불편한것을 느끼고 오사리로 엮은 방석을 힘 들추어올렸다.

뜻밖에도 손바닥만 하게 《10톤연구일지》하고 또박또박 박아쓴 빨간 학습장이 그 밑에 깔려있었다.

(그저 꿈같은 10톤소리.)

윤덕수는 아이들 숙제장을 번지듯 대수롭지 않게 별컹별컹 책장을 뒤적거렸다.

망 굴

작업반장이 오늘은 끝내 나에게 큰소리를 치고 말았다.

《동문 전주대처럼 키만 멋없이 꺾두룩해가지구 하늘고추만큼 쪼꼬만 체내한테 꼭 쥐여서 넌장. 만 날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일을 치고있으니. 소풀밭을 몽땅 엮어놓고 이제 경영위원장이 오면 뭐라고 둘러대겠나? 오늘공수는 미누스야, 미누스! 넌장.》

참 땡땡한 일이다. 하루종일 남보다 두배, 세배로 팔이 떨어져나가게 일을 하고도 욕벌이니.

내가 춘림동무의 분조에 소속될 때 누군가 슬그머니 충고하였었다.

그 분조에 가면 공수를 벌지 못한다는것이였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였다. 프락트포른전수들속에서 송송 돌아가는 말을 나도 이미 들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분조에 내려갔다. 나는 독신이기때문에 공수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하게는 그 분조에 해방전 나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땅이 있었던것이였다.

처녀분조장인 선춘림은 까다롭고 이악쟁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중학생처럼 천진란만해보였다. 웃을 때마다 하이얀 덧이가 유묘하게 반짝거렸다. (덧이가 곱게도 배졌는걸.) 하고 나는 처음에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덧이앞에 두손을 번쩍 들고말았다. 처녀가 원 그렇게 이악살스러워서 누가 데려가겠는지 하던 동무들의 말이 괜한 걱정이 아닌듯싶었다.

춘림분조장은 가만 앉아있으면 몸살을 앓을만큼 발발이였다. 특히 그는 손이나 발보다도 머리가 부지런한 계획꾸러기이다. 그의 밑에 있으면 이것을 해라, 저것도 해달라 달달 뉘우는데 어느 사람이고 정신을 차릴새가 없다. 다른 분조에 동원된 프락트포른전수들은 작업반장이 주는 공통적인 지시

만 잘 집행하면 한공수 넉넉히 벌고 저녁이면 기라도 타고 이따금 이 고장 토배기들이 담근 밥알이 동동 뜬 탁배기도 쟁하게 들이켰으나 나는 춘림분조장이 생각해내는 오만가지 《계획》을 수행하느라 언제나 쨌쨌매였다.

오늘만 해도 그랬다. 춘림은 날더러 작업반에서 소풀밭으로 떼어놓은 망골의 새초등판을 갈아엎어 달라고 하였다.

《새초등판이야 소먹이풀판이 아니요?》

《경영위원장판판이예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해요.》

춘림은 사업일지를 딱 소리나게 접으면서 나를 보고 방긋 웃음을 지어보였다. 얼굴이 아니라 덧이가 웃는듯 했다.

《경영위원장별명이 뭔지 알아요? 윤두소야요. 삼촌은 그저 소밖에 몰라요.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가 하느니라, 늘 이래요.》

춘림분조장은 경영위원장의 조카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서인지 춘림의 랑만의 세계에는 언제나 경영위원장이 부정인물로 등장하곤 한다.

《어쨌든 난 새초등판을 갈지 못하겠소.》

나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자 춘림은 분조장의 권한을 행사하는것이 아니라 그 천진한 눈빛으로 어린애처럼 나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맨 산천진데 소먹이감은 얼마든지 있다는것, 새초등판의 모양을 분석해봤는데 토질이 좋아서 소출이 높을거라는것, 수령님께서 아까운 땅에 풀밭을 조성해서 소를 방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계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는것 등등...

이쯤되면 누구든 견디어배길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작업반장에게서 애매한 추궁을 받고 시뚱하여 합숙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솟아났는지 춘림분조장이 다람쥐처럼 뽀르르 달려왔다. 기준수치대로 갈아놓은 새초밭을 한번 더 갈아달라나. 이 등판은 2센치미터정도를 더 깊게 갈아야 소출이 제대로 나온다는지.

나는 덧이를 살짝살짝 드러내며 안달이 나서 콩당 거리는 그를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예라 이왕사 욕벌이를 한바엔 직성이 풀리게 말짱 들어준다 하고 선선히 프락트포르를 끌고 새초등판에 다시 나갔다.

프락트포른운전칸에 올라앉은 춘림은 향긋하게 구워낸 햇고구마를 나의 턱밑에 쑥 내밀었다. 내가 머리를 젓자 춘림은 고구마의 껍질을 발가 노오란 살을 닮은 한입 깨물었다. 그리고는 남남 맛있게 먹어대며 조알조알 이야기를 내리여기 시작했다.

《여기 새초등판을 왜 망골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해방전에 한 지주가 여기 땅을 사서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대요.》

《그런데 해마다 농사가 망해서 망할놈의 골이라고 저주하며 모두가 이 땅을 떠나갔대요. 그때부터 여기는 망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지.》

《어마나, 그걸 어떻게?》

춘림은 고구마를 쫄쫄 삼키며 놀라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방싯 벌어진 입술사이로 덧이가 반짝거렸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트랙토르만 몰아갔다.

해방전 이 망골에 뜨내기보따리를 풀어놓았던 우리 부모들의 피절은 역사를 구태여 상기하고싶지 않았다.

《무릎동무, 난요 이 망골을 이제 흥하는 골로 만들테어요. 망골을 논으로 풀면 새땅이 2정보, 그러면 알곡이 10톤 아니, 20톤...》

(허참, 닭알을 보고 어미닭 몇마리이나 식의 욕심꾸러기계산법이군.)

고구마 한알을 냉큼 다 먹고난 춘림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트랙토르 우릉우릉 넓은 들에 달리구요
소리고운 종달새는 하늘높이 지저귀네
...

그러나 나의 마음은 트랙토르에 매달아놓은 소방울에 가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주고 간 옛시대의 유물이었다.

팔랑, 팔랑— 내가 어렸을적에 소방울소리는 얼마나 요란했던가. 그러나 세월이 많이도 흘러간 오늘날 소방울소리는 이미 트랙토르의 청높은 동음에 눌리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있었다. 벌써 오래전에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버린 소방울소리를 타고 춘림의 말이 새삼스럽게 상기되었다.

《경영위원장별명이 뭔지 알아요?》

윤두소... 그가 혹시 이 소방울의 진짜 주인은 아닐까.

10 톤

보름전부터 나는 춘림분조장에게 하루 한시간씩 트랙토르를 배워주기 시작했다. 하도 졸라서 그러마 룡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이악한 덧이가 어찌나 극성으로 접어드는지 오늘은 제법 자기 운전기술을 구경하라고 나에게 빼기기까지 하였다.

정말로 그의 운전기술은 나를 놀라게 했다.

《대단한데? 현대 분조장일두 배찬데 트랙토르까지 몰려우?》

《왜요? 난 트랙터를 하루 24시간 리용하자는거예요. 동무와 교대해서. 그래서 꼭 10톤을 하고야 말겠어요.》

춘림은 언제나 10톤밖에 몰랐다. 10톤을 위해서 별이 총총한 꼭두새벽에 남먼저 포전으로 달려나왔으며 10톤을 위해서 구슬알같은 자기의 땀방울을 온 벌판에 뿌리며 뛰여다녔다.

그야말로 10톤을 위해서 사는 처녀였다.

《정보당 10톤을 내기 전에는 시집도 안 갈테어요.》

나는 하하 큰소리로 웃고말았다.

《그러다 꼬부랑할머니가 될 때까지 시집 못 가게?》

내가 긴 허리를 꼬부라뜨리며 우스운 흥내를 피우는데 춘림은 진실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이 되어버렸다.

《야, 그럼 어떡해요? 난 3년안엔 아니, 못해도 명년엔 10톤을 하자고 하는데...》

《동문 공상가로구만.》 나는 기특한 철부지학생에게 보내는듯 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흥! 필요성이 가능성을 낳는됐어요. 농사를 지금보다 더 과학화하고 집약화하고 적기적작, 적지적작하면, 한마디로 주체농법을 철저히 지키면 얼마든지 될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들어볼래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춘림은 농장대학에 특강을 내려온 농업대학 교수처럼 진지하게 논리를 세워가며 자기의 발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하는데 알곡증산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 모를 5월 25일전으로 낸 논에서는 그 이후에 낸 논에서보다 정보당 벼가 한톤씩 더 난다. 이것은 우리 분조의 논들을 놓고 몇해동안 고심하여 얻은 결론이다. 우리 나라의 전체 논면적을 볼 때 5월 25일전으로 모내기를 다 끝내면 수십만톤의 벼를 더 얻는것으로 될것이다. 트랙토르운전수들이 논갈이와 씨레질을 제때에 잘하면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얼마든지 끝낼수 있다. 현대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기계들이 문제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철부지처럼 생각했던 그의 마음속에 온 나라가 들어앉아있는것이다! 저 처녀처럼 한톤씩, 한톤씩 비결을 찾아낸다면!

10톤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공허한 수자가 아니었다.

아니, 반드시 현실로 되어야 할, 될수 있는 수자인것이다.

《벡타이김》

벡타이는 남보기가 우선 좋으라고 앞에 매계꿈 만들어줬다고 한다.

그 벡타이처럼 우리네 반장은 경영위원장이 보기 좋으라고 강녕이발 《벡타이김》을 부지런히 맨다. 어떤 사람들은 《벡타이김》이라는 멋쟁이이름대신에 《경영위원장김》이라는 야박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물론 경영위원장이 지나가다 자주 들리는 발의 김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것이다. 김을 매도 길바닥김부터(우리는 길옆의 밭에 난 김을 두고 벡타이김, 길바닥김이라고 부른다.), 물을 줘도 비료를 주어도 길가주변의 밭부터...

언젠가 한 실없는 녀석이 강녕이로 태어나려거든 길바닥강녕이로 태어나거라 하고 읊조리다가 대추 집할아버지한테 통을 맞은 일도 있었다.

어째서 춘림의 세계에 언제나 경영위원장이 부정 인물로 등장하는지 이제는 의문이 가지 않았다.

오늘도 작업반장은 나에게 꽃밭같이 알뜰한 길바닥논을 한번 더 써레질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망꿀은요?》

나는 처음으로 작업지시에 대하여 반문하였다.

《넌장, 자네도 춘림이처럼 물어보누만. 거긴 소를 대서 후치질을 하라고 했네.》

잡초의 무성한 뿌리로 뒤덮여있는 망꿀은 소로 후치질을 해가지고서는 원만한 소출을 기대할수 없다. 이제 잠시후면 춘림이가 바로 그 순진한 눈과 이악한 텃이를 반짝거리며 나에게 나타날것이다. 그러면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와 함께 망꿀을 깊이, 더 깊이 갈아엎을것이다.

물론 10톤을 위해서.

나는 돌아서서 트랙포르에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확신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영위원장은 이 소방울의 주인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절대로 그럴수 없는 사람이기때문이다.

수 령 논

《난 못하겠소.》 나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다.

《야, 동문 전번 새초밭도 대담하게 갈아엎지 않았나요?》

나는 그때 작업반장에게서 짜증섞인 추궁을 듣던 일이 생각되어 썩은 콩을 씹은듯 미간을 찌프러였다.

《이번엔 문제가 다르단 말이요. 그러다 트랙포르가 사고라도 나면...》

정말 그랬다. 나는 나의 트랙포르가 언제나 나보

다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며 활력에 넘쳐있기를 바란다. 트랙포르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 다음가는 귀중한 존재였다. 그런데 보리장마가 시작되어 미끄럽기 짝이 없는 그 가파로운 산길로 트랙포르를 내몰라고 하니.

《야참, 저 앞산에서 석비레를 마저 실어와야 수령논에도 모를 낼수 있겠는데. 사정 좀 들어줘요.》

춘림은 이번에도 부탁하고 조르는 식으로 나에게 매달렸다.

《뭐요? 동문 참, 참새에 굴레씩을 생각은 없소? 손바닥만 한 수령논은 없는셈치오.》

《?... 있는 땅을 어떻게 없는셈쳐요?》

《어쨌든 난 못하겠소.》 나는 단호하게 손을 내리었다.

《그럼... 10톤은요?!》 춘림의 마지막말이 돌덩이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텅 울리고 튀어났다.

나는 춘림의 맑은 눈이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꼭 눌러썼다. 그리곤 대답도 없이 힘 돌아서버렸다. 나에게 트랙포르가 너무도 소중한것이었다.

...

춘림이 수령논에 들어서고있었다.

나는 황황히 그를 막아나섰다.

《아직 석비레를 더 깔아야 하지 않소?》

《그럼 10톤은요?》 춘림은 이런 단순하고 자명한것도 동문 모르나요 하는 이상한 눈길로 나를 스쳐보고 곧장 수령논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몇걸음가지 않아 폭 앞으로 꼬꾸라져넘어졌다. 아직 농사를 짓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논이었다.

《춘림이, 나오라. 내가 석비레를 실어올게.》

나는 큰소리로 누이동생에게 말하듯 소리쳤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춘림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논판으로 걸어들어갔다.

《나오라아-》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다. ...

《룩!》

누군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1분조 트랙포르운전수가 나를 두들겨 일으켜세웠다.

《무렬이, 야단났어. 사고가 났어.》

나는 룡감적으로 (앗! 트랙포르!) 하고 생각했다.

《춘림분조장이 간밤에 트랙포르를 몰고 비탈길을 내리다가 그만... 춘림동무가 심하게 다쳤다는데...》

그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의바람으로 무작정 뛰쳐나갔다.

벌써 나의 트랙포르는 다른 트랙포르에 끌리워

작업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전조등이 꺼져져나가고 앞대거리가 불뿔없이 쭉그러들어있었다. 대사고였다. 트랙토르의 처참한 모양을 보는 순간 나는 리성을 잃고말았다. 나는 동무들이 말리는것을 휘뿌려던지고 춘림이 실려갔다는 리인민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팔에 붕대를 감고 비스듬히 누워있던 춘림은 나를 보자 어린애처럼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내 트랙토르를 살려내라야 하고 소리치고싶었으나 하얀 붕대를 보는 순간 금시 튀어나오는 그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말았다. 대신 에익- 하고 모자를 움켜쥐고 다시 한달음에 본조로 내려오고말았다.

소방울소리

로동수단을 잃어버린 나에게 작업반장은 선심이 나 쓰는데 살찐 황소의 고삐를 쥐여주었다.

《옛날같은 이런 소 한짝이면 부자축에 들었다네. 소가 반질반질한게 힘꼴깨나 쓸게야.》

나는 속이 달아 마뜩지 않게 황소를 흘겨보았다.

《말씀드린 트랙토르부속품은요?》

《인츰 해결해주겠대. 아무럼 경영위원장이 제조카일에 모르쇠할라구. 헌데 이 바쁜 모내기고비는 소라두 동원해서 넘기고 보라누만. 1작업반 트랙토르도 말썹이 생겨 나흘째 세워두고있는판이니. 넌장,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긴 글렀어.》

나는 분격하였다.

《난 경영위원장동지가 정말 리해되지 않습니다. 트랙토르들을 시퍼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인력으로 씨레질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트랙토르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농장에 자그마한 수리소같은것을 차려놓고 기능공 두어명을 배당해놓으면 해결될텐데 그저 써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소리뿐이니. ...

농사라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로동인지 경영위원장동진 모른단 말입니까?》

이것은 춘림이가 언젠가 나에게 했던 말이였다.

《이 사람, 그런 말 말게. 멍에밑에서 뼈대를 굳힌 사람이야.》

반장은 의미를 알수 없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헌데 사람이 좀 달라졌거던, 넌장-》 하고 중얼거리며 가버렸다.

소를 앞세우고 밭으로 나가면서 나는 과거를 거슬러 걸어가는듯 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침이슬에 축축하게 바지가랭이가 젖어들었다. 뽕안개가 싱싱한 향기를 풍기는 대지를 살뜰히 애무하며 떠돌고있었다.

밭머리에 이르러 나는 작업에 착수할념을 잊고

그 자리에 퍼터버리고앉아 서둘게 담배를 맡았다. 한모금 빨기 바쁘게 거부반응이 세차게 일어났다. 《경청-》 나는 아직까지도 좀처럼 담배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던것을 요즈음에는 무슨 줄담배군이나 된듯 출창 담배만 입에 물고다닌다. 나는 이것이 트랙토르가 못쓰게 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나는 감각으로 느끼고있었다.

춘림이 없는 들판, 그것은 종다리가 없는 그야말로 한적한 들판이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나다니는 춘림의 총총한 발자국소리, 끝없는 공상의 속살거림, 눈코뜯새없이 산더미같은 일감을 맡겨놓고는 미안하여 어쩔바를 모르던 티없이 맑은 눈빛... 이 모든것이 지금은 내곁에 없었다. 춘림이가 지금 무엇을 할가. 농번기에 침대에 누워있자니, 그것도 석달씩이나 안정치료를 해야 한다니 속이 새까맣게 타겠지.

나는 이제 춘림을 만나면 정식으로 사죄하리라 속다짐했다. 트랙토르가 상한것은 가슴아파하면서도 춘림이 변을 당한것은 관심에도 두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찬바람을 일구며 튀어나올 때 얼마나 나를 원망했으랴. 소중한고 아름다운 그 10톤의 꿈을 위해 더는 나에게 조르지 않겠구나 생각하니 오장이 순간에 텅 들리워나가는듯 허전해왔다.

춘림이가 없어 한가하게 지내게 되니 오히려 흘러가는 생활이 의미를 잃어버린듯 했다.

나는 손에 서툰 보타를 쥐고 밭을 갈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마뺨만 한 땀기밭에서 오전내껏의 시간이 날아나버렸다. 더우기 손바닥에 물집이 지고 어깨가 떨어져나가는듯이 쭈서났다.

나는 점심먹을 맥도 없어 해벌이 파스하게 쏟아지는 자갈밭에 넘적 엎드려버렸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불쌍한 윤두소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해방전 왕신마을에 욕심이 앞산만 한 지주놈이 살았단다. 지주놈은 죽은 자기 집 윤두소대신에 나 어린 청년을 끌어오지 않았겠니. 그리곤 소방울을 매달아서 밭으로 내몰았구나. 연약한 청년은 낮에도 밤에도 남의 집 밭을 갈아주느라 지치고 또 지쳐버렸단다. 어느날 밭머리에 쓰러졌던 그는 소보다 못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고향을 떠나버리고말았지. 너의 아버지는 그 청년이 도망간것을 지주놈이 모르게 하느라고 온밤 빈밭에서 소방울소리를 울렸구나. 그날 새벽 온몸이 밤이슬에 젖어 와들와들 떨면서 들어온 너의 아버지의 손에 바로 그 청년의 소방울이 들려있었던단다.》

《어머니, 난 기계로 소를 대신하는 트랙퐁운전수가 되겠어요.》

나는 불쌍한 그 청년을 마음속으로 끝없이 동정하며 기계화의 초병이 되었다. 그리고 불쌍한 그 청년의 소방울을 트랙포르에 달아놓았다. 트랙포르의 드높은 동음속에서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던 소방울소리가 오늘은 나의 귀전에서 요란하게 절랑거리는데 했다.

기계화의 시대에 소시대를 고집하는 경영위원장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경영위원장의 인생을 제 나름으로 상상해보았다. 머슴으로부터 한개 군 경영위원장으로.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의 삶이 아닌가. 하기가 어버이수령님품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노예로부터 존엄높은 자주적인 민으로의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인간을 사회정치적구속뿐이 아니라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도 완전히 해방하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다. 때문에 수령님께서서는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켜 농업로동을 공업화하면 알곡소출도 늘이고 능률도 높이게 되며 농민들이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노동이 노래로, 기쁨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미래가 경영위원장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단 말인가. 일꾼들은 농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넘쳐나는 지혜의 샘과 열정을 전혀 보지 못하고있으며 길바닥일군으로 물우에 뜬 기름처럼 되고 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가는 곳마다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이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농사를 짓는것은 죄악이다. 내 힘으로라도 트랙포르를 살려내고말테다.

나는 자갈밭에서 벌떡 일어나앉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동무가?》

내앞에서는 사랑스러운 덩이가 활짝 웃고있었다. 그옆에는 묵직한 배낭이 놓여있었다.

트랙포르부속품들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춘림의 맑은 눈빛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것 같았다.

《날 용서하지요?》

그 눈빛을 향해 황황 불타는 나의 심장은 이렇게 대답하고있었다.

(난 사랑하오, 동무의 소중한 그 10톤의 꿈을, 아침이슬과도 같은 동무의 땀방울을, 봉데안에 숨긴 동무의 그 아픔과 그리고 동무의 반짝이는 그 하얀 덩이까지도.)

나는 배낭을 와락 그리안았다. 그리고는 오래간만에 시름있고 웃었다. 나와 춘림의 웃음소리가 눈부신 해살사이로 퍼져나갔다.

...

윤덕수는 더이상 글줄을 읽을수가 없었다.

운전칸안에 매달아놓은 소방울이 눈앞에서 조용히 흔들리고있었다. 과연 30년전의 소방울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어제날의 소방울소리는 덕수의 가슴속에서 사라져버린지 오래였다. 높아가는 행복의 웃음소리에 묻히어 그 소리는 영영 자취를 감추어버리고말았었다. 그런데 한 청년의 가슴속에 아직도 그 소방울소리가 살아있는것이다.

아, 정녕 그 피눈물의 세월을 내가 잊고살았던가.

두터운 락엽을 쓰고 잠자고있던 어제날의 쓰라린 추억이 어렴풋이, 그다음은 뚜렷하게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

해방전 덕수의 아버지는 왕신리 시골지주의 머슴군이였다.

지주놈은 윤두소를 돌려가며 집집마다 밭을 갈아주고 가을에 비싼 값으로 소값을 받아내는 재미에 불이 일게 덕수 아버지의 손에 윤두소의 고삐를 쥐여주어 소작농들의 밭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히영히영 힘을 잘 쓰던 소가 어느날 엇덩이처럼 땅에 늘어붙어앉아서 멍청한 빛으로 먼산만 바라보며 진득한 침을 흘리었다.

《이 소도 때가 된 모양이다.》 누군가 하는 말에 덕수의 아버지는 코마투가 시큰하였다. 자기와 함께 산전수전을 겪어온 소였다.

덕수 아버지는 낮이나 밤이나 소열을 떠날줄 몰랐다.

소는 삼일 낮 삼일 밤 맥없이 앓더니 끝내는 덕수 아버지의 무릎아래서 죽어버리고말았다.

덕수 아버지는 주먹같은 눈물을 툴툴툴렁 뿔구며 소방울만 손에 든채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인지 탁주인지 모를 뿌연 물을 턴이어 들이키더니 아예 자리에 누워버리고말았다.

지주는 덕수 아버지가 살인이나 친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네놈이나 뒤여질노릇이지 소를 도록내? 응? 응? 네 이놈, 맥여주구 이, 입혀주니까 도, 도살을 해? 기어이 네놈에게서 소값을 받아내고야말테다.》

덕수 아버지는 매일 문지방이 깨져나가게 밭을 굴러대는 지주의 꼴을 더는 보기가 싫었던지 원한 많은 세상을 비명에 떠나가고말았다.

지주놈은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가장을 잃은 명줄 끊긴 덕수네 집에 와서 강다짐으로 덕수를 끌어내며 야단질을 쳤다.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들로 나가는 법이야. 예비가 죽었으니 말놈이라도 내 집에서 윤두소 노릇을 하며 소값을 물어야겠다.》

이리하여 덕수는 열네살 청춘의 문어구에서 지주 집 억압의 솟을대문밑으로 들어갔다.

《저놈은 윤두소보담 더 리득이 나는 놈이야. 소처럼 콩여물을 달래길 하나, 복테길 갈아달라고 하나, 똥을 취달라고 하나. ... 히히, 이름두 신통하지. 윤덕수나 윤두소나 갈구갈질 않아. 석전경우라고 저놈은 날 때부터 윤두소로 점지된 황해도누릉소라니.》

온종일 밭을 갈고나면 온몸은 땅속으로 찾아드는것만 같았다.

지주놈은 어린 덕수가 앉아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인다고 그의 목에 소방울을 매달았다. 자기가 나타나는 임의의 시각에 방울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날 덕수에게는 귀밑밥도 차례지지 않았다.

혈기왕성한 나이였지만 몸에 축적된 힘이 너무도 부족했다.

뼈를 굳혀야 할 시기였지만 그러기에는 어깨우에 실리는 멍에의 짐이 너무도 무거웠다.

축축히 비내리는 어느날 밤 밭을 갈아나가던 덕수는 이랑우에 쓰러졌다. 어깨가 깨져나가듯 저리고 배가 고됐다. 너무도 차거운 땅에 쓸쓸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멍에밑의 인생, 소나 말보다 못한 학대속에 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아, 차라리 나도 물이었으면. 물이 되어 땅속에 스며들어 영영 이 고된 세상에 솟구치지 말았으면. 땅속에서 이 모든걸 잊고 자유롭게 흘렀으면...

자기를 짓누르고있는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잔인하고 숨가쁜 이 구속과 압박에서 벗어나고싶었다. 지주놈을 위해서 씹없이 울려야 했던 이 소방울소리로부터 멀리로, 멀리로 달아나고싶었다.

그렇다. 도망치자. 이 세상 한끝이라도 좋다. 지주놈만 없다면! 덕수는 소방울을 나꿔채여 어둠속에 뻘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

어느 고마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온밤 소방울을 울려주었으며 한 청년이 불쌍한 윤두소청년을 동정하며 지금껏 마음속에 소방울을 안고살고있다는것도 모르고 덕수는 행복에 취해 소방울소리로부터 너무도 멀리로 달아나버린것이였다.

언제부터인지 밖에서는 쭈룩, 쭈룩,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다. 바로 윤덕수가 구속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도망치던 그밤처럼...

윤덕수는 소방울을 들고 프락포르에서 내리었다.

어서빨리 무릎을 찾아가자. 그와 함께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다리고계시는 훌륭한 토론원고를 쓰자, 날이 더 저물기 전에.

5

《통통통.》

《풍년》호프락포르가 거름을 가득싣고 농촌길을 달리고있었다.

이 나라 어느 농촌에 가나 흔히 볼수 있는 폐사로운 풍경이였다.

그러나 그 프락포르안에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청년이 가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입당을 보증해주시고 존엄높은 도당전원회의의 연단에까지 높이 내세워주신 자랑높은 농촌의 기계화초병이 가슴터질듯 한 환희와 감격을 안고 가고있었다.

수령님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나라의 농업생산계획을 의논한 장하고도 위대한 인민의 한사람을 파도치는 풍년벌이 기쁘게 반기고있었다.

바로 그 옆자리에는 잔뼈를 굳힌 고향땅을 찾아가는 일군이 앉아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준절히 이리시던 말씀을 덕수는 또박또박 심장에 쏘아박아넣었다.

《옛날의 봉건관료들은 모두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또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중의 의견이 요구되지 않았습시다.

군중을 떠나고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의 통치배들처럼 관료화되고합니다. ...

혁명사업에서 기적을 안아오는 묘술은 다 군중속에 있습니다. 동무들은 군중우에 군림한 관료가 될것이 아니라 군중에게서 배우는 학생, 군중을 섬기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혁명을 떠밀고나가는 가장 강력한 절대의 힘이 바로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합니다.》

덕수는 배낭을 꾸리었다.

군중속으로! 이것은 윤덕수의 한생의 좌우명으로 될것이였다.

덕수의 배낭속에서 팔랑— 소방울소리가 울려나왔다. 새로운 더 많은 기계를 창안하고 발명하여 온 들판을 기계로 덮을 때까지, 농민들이 더는 허리아픔을 느끼지 않고 모를 내고 가을걷이를 하고 유해로운 노동조건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되어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되는 그날까지 소방울소리는 계속 울릴것이다.

덕수에게 일군의 자각을 새겨주는 준절한 경종소리가 되어.

시 초

우리의 총대는 얼마나 강한가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서—

김 춘 호

두자루 권총이여

무엇을
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장장비관의 대문앞
대돌에 새겨있는 두자루 권총이여

우리 수령님
유산으로 총을 물려받던
그날부터 세월은 멀리도 홀렸는데
하늘 땅 바다에
철진을 펼친 무장들이
이 땅을 지키고있는데...

무장에는 무장으로
혁명의 그 뜻이 나래치던
못 잇을 첫기슭을 잊지 말라 속삭이느냐
혈전의 앞장에서 불을 뿜으며
하많은 무장들을 뒤따라세우며
걸어온 영광의 길 전해주느냐

광야에 솟아오른 붉은기와 함께
선군의 첫 무장으로 빛나던 총
수천수만 무장들을 이 땅에 낳은

우리 총대의 시원이여

이야기하느냐
첫걸음을 총대로 댄 혁명의 녀을
숨결처럼 안고살라고
그날에 겨누었던 혁명의 파닉
흔들림없이 똑바로 겨누라고

심장의 피 끓여주며 이야기하느냐
어제도 오늘도 혁명의 명맥
총대에 달려있다고
희세의 령장 원수님따라
후손들이여 총대계주봉을
더 굳게 잡으라고

아, 세월을 넘어
물려주는 그 뜻이 하도 높아
뜨겁게 우러르는 두자루 권총이여
성스런 총대혈통 자자손손 이어주며
혁명의 먼먼 기슭까지
우리 무장 첫자리에 숭엄히 빛을 뿌리라!

우리의 총대는 얼마나 강한가

그 어떤 총칼도 꺾어버릴
무적의 방패 여기 있다
그 어떤 장벽도 부셔버릴
멸적의 검 여기 빛난다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것을 지켜낼
그 힘이 넘치는
우리의 총대는 얼마나 강한가
그 대답이 여기 있거니

말해보자 총대여
너의 힘 뻗치는 곳 어디까지나
산을 넘어 구름너머
천리더나 만리더나

어마어마한 무장들의 번쩍임
땅위에 차고넘치는 그 위력이
아득히 치닫는 저 하늘 끝까지나

그 누가 우리 집의 유리 한장
이 땅의 잔디 한포기라도 다친다면
보복의 노성터쳐 벼락을 안길 총대
침략의 무리 덤벼든다면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화산구같은 불의 함정에 처넣을 총대

한계없는 그 힘을
여기서 바라보고 안아보며
얼굴마다 통쾌한 웃음이 비끼고
가슴마다 필승의 환희로 설레거니

이 땅을 노리는자 용서가 없고
함부로 날뛰는자
무주고혼이 되리라는
조선의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번쩍이는 무장들로 보여주는 곳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님을 따라

조선의 존엄을 총대로 펼칠
막강한 힘의 노래
끝없이 울리는 곳

오,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총대의 위력 차넘치는 집이여
여기서 바라보니 최후승리광장은
우리의 눈앞에 지척이구나!

《총알폭포》 쏟아지네

시작은 어디고 그끝은 어디나
줄줄이 쏟아지네 《총알폭포》 쏟아지네

만져볼까 쓸어볼까 알알이 이 총알
가슴에 안아보니 생각은 깊어지네

사랑알 그보다 총알이 더 귀해
허리띠 조이며 걸어온 길 떠오르네

이 폭포 안겨주려 절세의 위인들

바쳐오신 그 로고 뜨겁게 어려오네

그래서 더 소중히 바라보는 《총알폭포》
볼수록 힘이 나고 가슴벅차오르네

이 총알이 폭포처럼
인민의 웃음도 폭포인양 쏟아지니

아, 《총알폭포》 흐뭇한 그 풍경에
만복의 온갖 폭포 황홀하게 비껴오네

재부에 대한 생각

보고도 보고도
결음 못 떼며 또 바라본다
엄엄한 이 포신들
강철의 무한궤도들...

아직은 우리 생활에
어려운것 없지 않아도
여기에 서면
억만의 재부를 안은듯 흐뭇하다

이 모든 무장들이
남의것이 아닌 우리 것이라는 생각
그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부유하다

천만의 재부가 있다 한들
황금의 더미가 있다 한들
얼마나 가련하랴
지킬 힘이 없다면

땅도 잃고
존엄도 잃고
쌓아놓은 재부조차
빼앗기고 불에 타고...

하지만 우리에게
자위의 힘이 있어
하늘도 땅도 예대로 다 있고
불패의 요새우에 락원이 꽃피거니

가난중의 가난이
힘이 없어 제 집조차 잃는 신세라면
부유중의 부유는
힘이 있어 천하를 굽어보며 사는 자랑

가슴에 그득해라 행복이여 금지여
그 어떤 재산에도 황금에도 못 비길
값비싼 힘의 재부
무적의 총대숲이 이 땅을 덮었거니

무엇이 두려우랴
그 무엇이 부러우랴
부귀영화 꽃피 이 땅에 무궁하리
그 신심 백배해주는 총대재부여

천가지 만가지
온갖 재부 앞자리에
자랑으로 당당히 빛발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선의 총대재부 그 위용이여!

꽃 눈

박 동 칠

꽃.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 무엇이든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할 때면 꽃에 비기고있다.

꽃봉오리, 꽃무지개, 꽃동산, 꽃구름...

그 아름다운 꽃송이는 꽃눈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꽃눈 그 자체는 아름답지 않다.

잎도 피우지 못한 앙상한 과일나무가지에 흰쌀알 크기밖에 안되게 봉긋이 돋아난 꽃눈은 사람들의 눈에조차 인차 띄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 꽃눈이 얼마나 아름답게 안겨오던지 새삼스럽게 느껴본 때가 있었다.

봄철에 고산과수농장에 취재갔던 나는 한 처녀의 사과나무가지자르기작업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팔각팔각 전정가위질소리가 날 때마다 잘라진 나무가지가 규칙적으로 땅에 떨어져내렸다.

과일나무가꾸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부족했던 나는 그가 잘라버리는 과일나무가지가 아깝게 생각되었다.

문득 가위질소리가 멎었다.

《?...》

나는 처녀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처녀는 사과나무의 가지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작업복주머니에서 웃고름처럼 좁게 쪼갠 비닐박막조박을 꺼내어 사과나무가지의 중간쯤에 봉긋이 돋아난 꽃눈주위를 정성스럽게 감기 시작하였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가락에 생긴 상처를 감싸주듯이 조심조심...

술한 나무가지를 잘라버리던 처녀가 꽃눈 하나를 놓고 마음을 쓰고있기에 나의 의혹은 더 커졌다.

《그건 왜?...》

처녀가 생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센 바람이 불 때 옆가지에 스치면서 꽃눈주위에 상처가 났군요.》

《?...》

나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듯이 처녀가 설명해주었다.

《이 가지는 철저히 열매가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돋아난 꽃눈은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사과 한알을 잃어버리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사과 한알!

순간 나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우리 인민들에게 한알의 과일이라도 더 먹이시려

고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다녀가신 고산과수농장이 아닌가.

지난해 가을 농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꾸어온 사과나무에서 한알한알 정히 따서 바꾸니마다에 채워넣으며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추억을 더듬어왔던가.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농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굴지의 대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킬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많은 현대적인 운수기재들과 련결농기계들, 농약과 비료까지 우선적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못 잊을 추억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졌다.

한알의 사과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다시 들려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고 지난해 고산과수농장을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도 함께 어려왔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 고산과수농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관고가 넘쳐나도록 사과알들을 가득가득 채워넣고도 그 무엇이 부족한것만 같아 수확이 끝난 포전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지 않았던가.

그 마음이 처녀의 가슴속에 뜨겁게 자리잡고있었다.

나는 처녀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과원의 향기에 묻혀 사과알처럼 빨간 볼, 등지안의 어린 새처럼 참하고 어진 성미일듯싶은 처녀, 그 얼굴전체에서 빛나는 눈빛이 사과나무가지들을 살피며 과원을 가꾸어가고있었다.

그 눈빛은 그대로 꽃눈이었다.

그 마음이 그대로 꽃눈이었다.

꽃눈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청춘과원을 가꾸어가는 과수생산자들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바로 오늘날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꽃바다풍경을 가꿔가는것이 아니던가.

환하게 웃으시며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떠오른다.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키 인민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먹이시려 한평생 이 나라의 과수원길을 걷고걸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념원을 꽃피우시는 길을 오늘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그이께 기쁨을

시조

위성처럼 솟구치자 아름다운 거리여

한 동 선

건설장의 붉은 마음

표식기가 아니다
대공을 무찌른 기중기들의 팔뚝우에
무섭게 솟구치는 콘크리트골조우에
대건설의 열풍을 휩싸안고 나뭇기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의 붉은 기발이여

휘날리어 수십성상
비바람 강풍에도 바래인적 없는 빛
그 붉음은
재더미속에서 천리마를 안아올렸고
시련을 맞받아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켰나니

오, 표식기가 아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의 붉은 기발이여
너는 원수님의 뜻으로 고동치는
우리 군민의 붉은 마음이다
피끓는 가슴헤쳐 머리우에 추켜든
우리 군민의 붉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웨친다 낮이나 밤이나
-명령은 내렸다 10월 10일전으로!
새우리라 우리는
이 거리를 조선속도로!
솟구치라 거리여 우리의 위성처럼!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들끓는다 은정과학지구의 이른아침
과학자들 출근길에 진군가 울려주며
발걸음도 척척 대렬맞춰 씩씩한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땀에 젖고 비에 젖고 눈바람에 얼며
언제 한번 안식에 몸 맡긴적 있었던가
산을 내밀어 새 거리를 세워가는 용감한 청춘들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한번도 없으라 불가능을 인정한적
당의 권위 수령의 권위를 두어깨로 받들며
성스러운 조선의 존엄을 지켜가는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넘어서기 어려운 전투의 고비고비

가서지지 않는 작업의 피로도
노래로 날려보내며 완공의 날 향해가는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씩씩하다 병사들 얼마나 튼튼한가
과학지구 구내도로 대렬맞춰 지나며
인민앞에 사열받는 인민의 병사들!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경례를 받으라 은정과학지구의 경례를
부대의 명칭과 군사칭호는 달라도
사랑담아 정을 담아 인민이 부르는
최고사령관 김정원수님의 전사들

아,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건설장의 새벽에

새벽도 이른새벽
동이 틀무렵
야간전투 끝마친 병사들
비를 들고 정성스레 마당을 쓴다

마당이야 웬걸 마당이라 하라

술한 자재 드나드는 전투장이건만
드넓은 작업장 구석구석 누비며
쏟아가는 그 마음을 누군들 모르랴

뽀꼬도 또 뽀꼬싶은 우리 원수님
예전처럼 문득 첫아침에 오실가봐

모래무지모서리 하나 다스려질세라
병사들 정히 쓸고 또 쓰는 새벽

아, 쌓이고쌓이는

기다림의 언덕우에
아침해가 솟는다
그리움의 새날이다!

화선결혼식이야기

불판우에 콩튀듯
숨돌릴 틈없는 건설의 일정이다
그러나 동무들
잠깐만! 우리 잠깐만!
휘틀조립 바빠도 잠시 일손 멈추라
미장판 내려놓고 옷차림 다듬으라
언제나 걱정많은 로동안전원동무
입에 문 그 호각 가슴에 드리우라

품들어만든 건설장의 고요다
기중기도 차렷! 선회를 멈췄구나
우줄우줄 경쟁하며 키دون하던 아파트들도
셈들은 총각애처럼 정숙히 섰구나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는데

들어선다 신랑신부
자갈돌 정히 퍼놓은 길로
꽃보라 맞으며 신랑신부 들어선다
화선에 어울리는 수수한 작업복
화려한 레복인들 저보다야 멋지랴

순간
터져오르는 박수! 박수! 박수소리!...
폭풍같은 악대의 들썩한 음악속에
방송원의 축사는 구렁이 아니건만
온 건설장을 정렬시킨다
충막우에... 베란다에... 여기서 저기서
휘뿌리는 꽃보라... 꽃보라... 축하의 꽃보라...

원수님의 명령 심장으로 받들어
이 거리 세우고야 결혼하리라던
돌격대의 처녀총각 동지들의 손에 이끌리워
나란히 섰구나 화선결혼식장에

기념하자 화선결혼식의 이 랑만을
온 건설장의 초점이 여기에 모였거늘
누르라 샤타를 호흡을 멈추고
둘레둘레 아파트들 굽어보는 한복판에
신랑신부 아름다운 그 모습이어

앞당기라 미래의 모든것!
바치라 타끓는 애국의 마음!
축복하라 그들의 화선결혼식
이제 그들이 애국의 열정 안고 건설장에 나서리
그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벽체는 솟으리 거리는 뻗으리니

완공의 날 앞당기고 또 앞당기려
레식을 건설장에서 화선식으로
신혼의 애뜻한 꿈마저
건설장에 다 바친 신랑신부이야기
새 거리는 전설처럼 전해주리라

사람들아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어이 아름답지 않으랴
이 정신이 우리 거리를 세우고있으매!
이 숭고함이 조선속도를 창조하고있으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은 아름답다!

아직은 거리가 아니다
여기는 건설장
모래무지 골재무지 철근무지...
그러나 아름다운
여기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

묻지 말라 그 아름다움

어디서 오는것인지...
건설장을 뒤덮은 기발들의 붉은 색조인가
과학지구를 진감하는 증기계의 동음인가
별천지같은 조명등빛이
칠칠야밤을 밀어내는 그 눈부심인가

취재수첩 펼쳐든 기자동무여

휘틀조림에 드바쁜 일손 더디게 말자
 축조를 끝내는 그날쯤엔
 아마도 원수님 오실지도 모른다고...
 간밤에도 원수님을 꿈에 보유했노라는
 막내가병사의 축축한 그 목소리에서
 이 건설장에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자

화판을 멘채 뛰어다니는 화가동무여
 건설장의 풍경구도도 서둘러 잡지 말라
 아직은 포장도 못한 이 험한 길로
 원수님 찾아오시면 어찌랴
 눈시울 적시는 저 시공지도일군
 불별에 다 그을은 안전모밑의 그 얼굴에서
 가장 건설한 아름다움을 찾으랴

가슴마다 타드는 그리움 그리움
 원수님안녕 바라는 간절한 마음 말고
 더 숭고한 아름다움 어디 가 찾으랴

소중한 그 마음에 별이 솟고 달이 지는
 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은 아름다웁다

그 마음에 떠받들려
 솟구치는 아파트와 학교 위성원...
 머지않아 여기엔 건설의 흔적 없어지리
 정성스런 군민의 알뜰한 손길에
 거리엔 가로수 공원엔 꽃들이 만발하리

허나 말해주리라 황홀한 새 거리는
 거리먼저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마음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신
 어버이의 다심한 약속 심장속에 새겨안고
 최고사령관의 충직한 전사들이 이 거리를
 세웠다고

영웅들의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름다웠다고!...

동봉벌의 새 모습

조 광 철

-동봉벌에 컴퓨터화가 실현됐대요!
 선동원 선녀가 손나팔 불며
 동네방네 자랑하는 청맑은 목소리는
 오늘따라 더 정다운걸요

너무도 희한하고 꿈같은 일이어서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듯
 7작업반 오랜 기술원아바이
 머리를 저으며 혼자 하는 말
 -원참 벌에 컴퓨터화라니...

하지만 웬걸요
 작업반별 배미가
 관리위원회 컴퓨터실 대형컴퓨터화면에
 그림처럼 척척 펼쳐지고있는데야

마우스 살짝 누르면

새로 개간한 샘치는 물온도며
 청년작업반 모살이상태
 린비로 카리비료시비정형까지도
 기다린듯 펼쳐지는 동봉땅의 새 모습

전국의 분조장들 평양에 부르시여
 과학농사 짓는 법 차근차근 일깨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말씀대로 하니
 흐뭇한 가을의 작황도
 벌써 눈앞에 어려오는걸요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나날이 흥하고 번영해가는
 사회주의농촌의 문명한 새 모습
 우리 동봉땅 사람들이 먼저 보는 이 기쁨
 온 나라 컴퓨터마다에 전송하고싶어요





변영옥

이슬한 밤이다.

퇴근시간이 지난지도 오래지만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당비서 류웅식은 불이 꺼진 방에서 점도록 앉아 있었다.

뜻박의 골치거리가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지배인동무가 이 사실을 당분간 몰라야겠는데...)

류웅식은 뜻박의 골치거리를 들고와 종일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 한 여인의 모습을 다시금 상념 속에 떠올렸다.

오늘 아침이었다.

해가 봉산마루에 성큼 올라섰을무렵 류웅식의 방으로 한 여인이 들어섰다.

머리가 희석희석하고 얼굴에 로인반점이 듬성듬성한데다가 주름살이 짙은 여인은 공장이 지금과 같이 현대적으로 일떠서기 전에 국수작업반 고급기능공이였었는데 고난의 행군시기 기대가 몇자 하루이를 집에서 나오지 않더니 아예 사직서를 내어 서인옥지배인의 마음에 《도피분자》로 새겨져있다는(공장에 온지 얼마 안되는 류웅식은 지배인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금정녀인이었다.

지금은 파자작업반에서 혁신자로 이름내고있는 그의 딸 리진주가 어머니의 불미스런 과거에 한줄기 빛을 보태주고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공장을 떠났다는 그것으로 하여 서인옥이 박금정이라 하면 골살을 모으고 불쾌해하는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여인이 웅식의 앞에 한장의 사진을 내놓았다. 웬 군관의 모습이 찍혀진 사진이었다.

류웅식은 사진을 보며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아주머니, 이건 무슨 사진입니까?》

《저... 그건 우리 진주의 신랑감...》

《아니, 그럼 진주한테 애인이 있었단 말입니까?》

뜻박이었다.

너무도 뜻박이어서 류웅식의 버들치같은 눈은 단번에 두배로 커졌다.

《저두 침엔 몰랐었는데... 일이...》

웅식은 순간에 머리가 뻥해졌다.

어안이 빙빙해서 말도 나가지 않았다.

녀인이 갑자기며 무엇인가 증언부언하고있었지만 류웅식의 귀전에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류웅식의 인상에서 무엇인가 감촉하였는지 녀인은 황급히 인사하고 방을 나섰다.

류웅식은 이윽도록 문가를 바라보며 내쳐 앉아있었다.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생각들이 머리속을 한바탕 헤집어놓는듯 하였다.

(이럴수가 있나? 진주는 지배인이 자기 집 맡며 느리리 삼고싶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배인 혼자 욕심이였는가?...)

문득 류웅식에게는 공장에 지열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서인옥이 어느 조용한 기회에 기쁨젖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온 공장이 지열설비도입에 필요한 물원천을 찾기 위해 모두가 뛰던 때였다.

도탑사판리국에서 시추설비들을 전개하고 로력까지 동원하여 한창 판을 크게 벌리고있던 때라 식료공장 노동자들도 때없이 작업장을 찾아 더운물을 떠준다, 허드레일을 돕는다 하며 커다란 기대를 보이고있었다.

그들중 한 처녀가 시추기에서 나오는 물을 보며 시추공들에게 물었다.

《시추기를 이렇게 돌리느라면 물이 많이 나옵니까?》

《글쎄, 물이야 나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것은 원물줄기와 이어진 샘이랍니다. 2천여립방의 물이 나올수 있는 샘줄기...》

걱정이 실린 한 시추공의 말이였다. 하지만 처녀는 손뼉을 치며 랑만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어야나, 그게 없으면 시추기를 왜 여기 박았겠습니까. ... 샘줄기를 꼭 찾아주십시오. 동지들은 꼭 찾을수 있습니다.》

두손을 모아잡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처녀가 바로 파자작업반에서 현실체험을 하고있던 리진주였다.

그때 시추공들은 물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굳혀주는 처녀의 기특한 행동을 다들 어여뻐 생각했었다.

건설장에서 그 광경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던 서인옥이 아래쪽에서 물끓을 쪼고있는 류용식에게로 다가와 웃음이 비긴 얼굴로 나직이 속삭이였다.

《비서동지, 진주동무가 어떻습니까?》

《글쎄... 처녀가 푹푹한것 같습니다. 그를 공장에 받길 잘한것 같습니다.》

《비서동지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 <도피분자>의 딸이여서 신통하게 보지 않았더랬는데... 그가 하는 한마디한마디 말이 이 가슴속 웅어리를 다 녹여주는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저 진주동무가 우리 집 맘머느리감으로 어떤가 하는겁니다.》

《맘머느리감?》

그제서야 류용식은 리진주의 모습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세히 훑어보았다.

균형잡힌 탄탄한 몸매에 복성스러운 동실한 얼굴, 마주치기만 하면 시원한감을 주는 정기도는 검은 눈, 웃을적마다 밧그레한 입술사이로 매력있게 엮보이는 가지런한 흰 이발, 어찌 보면 그는 서인옥의 모습과 어딘가 비슷해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처녀보다 서인옥이 키가 한뼘은 더 크고 뼈대가 좀더 굵직하며 얼굴전체에 로숙한 세련미와 마스한 인정미가 짙게 흐른다고 할가.

맘머느리감이라면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그 아들과 나란히 세워보았다는 소린데...

그 아들이라면 류용식이 자체가 친아들맛잡이로 마음에 흠씩하니 여기고 대견하게 생각해오느러였다. 그래서 지나치는 처녀들을 볼 때면 그와 나란히 세워보며 괜히 이모저모 생각의 저울추를 울리고 내리고 하던 류용식이였다. 그는 한눈을 실그시 감으며 손을 가로저었다.

《글쎄 진주동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실력있고 푹푹한건 사실이지만 키가 작은게 흠이라면 흠일지...》

《참 비서동지두, 키가 작으면 뭐랍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지 않습니까. ... 난 지금두 그가 우리 공장에 입직하러 왔을 때 하던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서인옥은 마음속에 서려있던 불쾌감이 기쁨으로

이어지던 그날을 그려보는듯 봉산마루에 서서히 지는 해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류용식도 그날이 되새겨져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 《우리 지배인동무가 하는 말이 몹시 맺히는가 본데 동무를 뽕뽕하게 대하는 지배인동무의 마음을 동무는 리해해야 하오. 사람이란 원래 추세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량심이란게 있어서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데 동무 어머니 이 공장이 제일 어려운 때 기대결을 떠났단 말이요. 제일 어려운 때... 그 어머닐 보는 눈으로 우리가 동무를 보게 되는걸 어쩔수 없구만. 동무도 앞으로 어떤 리유로든지 공장을 뜨게 된다면...》

지배인을 만나고서 무척 실망하여 당비서의 방에 찾아온 진주에게 그때 류용식은 애돌지 않고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그만큼 박금정녀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서인옥을 통하여 류용식의 가슴에도 압정을 박은것처럼 아프게 맺혀있었던것이다.

애써 키운 자식이 어머니를 배반했을 때의 심정이라 할가.

잠자코 서있던 처녀는 도톰한 입술에 힘을 주며 담차게 말을 꺼냈다.

《전 비서동지의 그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닐 그렇게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는걸 알면 어머니가 옥하실테지만 전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나간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적에 다리를 다친 일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장시간 서서 하는 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터를 떠나게 되였던겁니다.

그때 중학교졸업반이였던 저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주야, 너 기계대학이나 공업대학에 가서 기계를 배우지 않으련?〉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녀자들이 배울것이 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기계를...〉

그랬더니 어머니는 단박에 눈물이 글썽해지며 저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진주야, 우리 공장 국수기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에 오셨을 때 몸소 보아주신 기계란다. 그런데 기계가 구실을 못해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그 기계가 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자니 조건이 불리한데다 이 엄마의 몸이 허락칠 않누나.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해주었으면 한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공장의 국수기계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장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

아보시다가 국수작업반에도 들리시여 인민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질을 높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국수를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 이랑...

어머니의 그 진정을 외면할수 없어 전 공업대학에 갈 결심을 내렸습니다.

비서동지, 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 깃들어있는 국수기계와 이 공장의 모든 기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공장을 더 젊어지게 할 마음을 안고왔단 말입니다.》

동실동실한 생김새처럼 속도 또글또글 영근 처녀의 말은 뱅뱅하던 류용식의 마음을 순간에 녹여버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그가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제기하면서 기술자로서 자기 몫을 못하면 내보내도 좋다는것이였다.

류용식은 할말을 찾지 못하고 내쳐 서있기만 했다. 얼굴엔 빙그스레 웃음발이 피어나고...

(복이 굴러들어왔구나, 복이...)

그후 리진주는 서인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년남짓한 사이에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국수생산공정을 현대적인 자동흐름공정으로 개조해 놓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국수진공포장기도 새롭게 만들어놓았다.

진주의 장점은 높은 실력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말은 일이 끝나면 교대작업조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하였고 편속전투로 기대공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면 노래도 선동연설도 하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런 나날이 쌓여 이제는 서인옥의 마음에 리진주란 존재가 가장 사랑스러운 처녀, 보석같은 처녀로 담썩 새겨들었던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인옥은 기회때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진주는 내 며느리감이요.》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가 박금정녀인을 만나 봐둔 사위감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사위로 맞으려 하는가 등 그의 내심을 타진하던 끝에 앞으로 자기가 맞춘 사위감을 골라보겠노라고 은근히 속생각을 비쳤다. 사실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박금정녀인이 진주의 신랑감이라며 뜻밖의 사진을 가져왔으니...

×

생각의 꼬트머리를 맺지 못한채 류용식은 천천히 일어나 퇴근길에 올랐다.

도탐사관리국 작업조에서는 공장주변에 샘줄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

서인옥의 얼굴에는 장마철구름장이 옮겨온듯 어두운 그늘이 떠나지 않았다.

(정말 공장에 샘줄기가 없단 말인가? 그럼 지열

체제도입은...)

류용식은 며칠째 고심하며 도탐사대와 조사측량대,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안 다닌 곳이 없었다.

서인옥이도 생산을 기사장에게 떠맡기고 지열설비를 설치한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강계와 회천, 평성과 평양...

허나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 류용식의 방에 맥없이 앉아있었다.

류용식은 답답한 가슴을 헤칠수 없어 고삿을 얹는 사람처럼 끔뎌 잡자르며 앓음소리를 다 냈다.

(물, 샘줄기가 없다면 모든것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그무렵이였다.

류용식이 공장뒤에 있는 파수밭주변에서 지대를 두릿두릿 살피고있는데 현장에 나갔던 서인옥이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달려왔다.

《비서동지, 우리 공장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요?》

《글쎄 진주동무 어머니가 옛날 보이러셨던 건물 앞에 오래전에 파본 우물자리가 있다면서...》

《샘줄기잡니까?》

《글쎄... 하지만 탐사대에 제기해서 다시 파봅시다.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 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또 탐사대는 옛날 우물자리에서 물량을 측정하고 시추작업을 다시 전개했다.

이번에는 리진주가 휘동했는지 특별한 조직사업이 없었는데도 현장노동자들이 교대가 끝나면 누구나 없이 시추기주변에 달려와 지원했다.

그들속에 섞이여 흠을 파주던 류용식이 리진주를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 그가 낭떠러지에서 모태기는 일군들의 손을 잡아준셈이었던것이다. 그는 상글상글 웃는 진주에게 말했다.

《진주동무, 보통이 아니구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했소?》

《어마나, 이건 우리 지배인동지 생각입니다.》

《음?》

《지난해 원료기지에서 일할 때 지배인동진 손이 다 부르트고 힘겨워하는 우리 처녀들을 꺼안고 이렇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동무들! 며느리가 푸짐한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갈 때 싫어하는 식구들을 본적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덕에 생산이 쑥쑥 올라가고 인민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을 주면 아마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동무들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줄을 설게고, 호호... 그러니 우리 힘을 내자요.>

그때 지배인동지의 모습은 공장의 한 일군이 아니라 우리 도에 없어서는 안될 만며느리 같았습니다. 저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이 아마 저를 그런 생각으로 떠민것 같습니다.》

류용식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서인옥의 마음속진정이 기대공들의 진정으로 이어지고있으니 샘줄기는 벌써 찾은샘이라는 생각이 든것이다.

허나 욕망과 실천은 언제나 동떨어져있는 법인듯 애써 찾은 우물자리도 많은 량의 물을 보장할수 있는 샘줄기가 아니었다.

류용식은 얼핏 서인옥의 얼굴에 눈길이었다.

그의 얼굴에 다시 구름이 끼어들가 저어되었다.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보름달처럼 동실한 서인옥의 얼굴엔 어느때없는 강심이 비껴있었다.

그는 시판개관리소와 협의하고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저수지의 물을 끌어올 대담한 결심을 가지고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나갔다.

그 잡도리가 범상치 않아 류용식은 이번에 서인옥이 드팀없는 끝을 보게 되리라 확신했다. 허나 그것도 저수지에서 물이 오는 도중 온도가 떨어지게 되며 결국 지열의 리용가치가 없게 된다는 해당 연구소의 조언을 받게 되었다.

(샘줄기, 샘줄기라...)

샘줄기만 문제로 되는것은 아니었다. 새로 제작해야 할 지열설비에 드는 자재, 자금문제, 그것도 아직은 묘연한 상태였다.

자다가도 입에서 튀어나올듯싶은 샘줄기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자 서인옥은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말았다.

류용식은 마음속에 덧쌓이는 그늘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서성거렸다.

그러던 어느날 리진주가 동실한 얼굴에 방글방글 웃음을 담고 류용식의 방에 나타났다.

그는 급히 뛰어온 모양 할딱거리며 숨을 몰아쉬다가 말을 이었다.

《비서동지, 지열설비가 있답니다.》

《물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지열설비?》

《아이참, 물은 지배인동지가 꼭 찾습니다. 그러니 지열설비를 마련하면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

류용식은 처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언제 봐야 신심넘쳐있는 처녀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열정으로 끓는 그의 눈길이 류용식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긴것이었다.

류용식은 잠시나마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로잡고 처녀쪽으로 몸을 기울이었다.

《그게 어디 있대오?》

《백두산에 있답니다.》

《백두산이라니?》

《아이참, 백두산건축연구원 말입니다.》

처녀는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초가울의 쌀쌀한 공기가 떠도는 현장(파자작업반)에서 기대공들이 한곳에 모여 점심을 먹고있었다. 그무렵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한 녀동무가 갑자기 탈의실로 바빠 들어가더니 솜옷을 어깨에 걸

치고 나왔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동갑나이 처녀가 눈을 곱게 흘리며 시까슬렀다.

《에그나, 너 결혼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엄마가 되었니? 추워하는걸 보니.》

《어마나, 이 애가 못하는 소리 없구나.》

얼굴이 홍당무처럼 발갛해진 그 녀동무는 동갑나이 처녀에게 종주먹을 안기었다.

그 모양이 즐거운듯 동갑처녀는 웃음발을 날리더니 진주쪽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진주동지, 한다한다하던 지열설빈 왜 아직 미정입니까? 저 은향동무가 추워하면 현장온도가 떨어졌단 소리고 그렇게 되면 기대가 멎어 오늘계획 못할수 있습니다. 우리 삼촌어머니가 일하는 기초식품공장에선 지열을 놓은 현장이 방안보다 더 훈훈하고 뜨끈뜨끈해서 겨울에도 생산이 팡팡 진행된다고 하던데...》

《그 설비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글쎄... 가만, 내 이제...》 하며 동갑처녀는 작업복안주머니에서 하얀색손전화기를 꺼내 번호판을 눌렀다.

손전화기에서 귀에 선 녀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인사말로 시작된 정깊은 그들의 대화는 잠시 오고갔다.

《...그래 백두산건축연구원이다. 그곳 연구사들이 현장에까지 나와 도와주었는데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란다. 너희 공장도 빨리 그걸 놔라. 그러면 생산은 먹어놓은셈이다.》

손전화가 끝나자 진주는 그달음으로 지배인방에 뛰어갔다가 문이 걸려 류용식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의 말을 듣고난 류용식은 손전화기로 서인옥을 찾기 시작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서인옥의 목소리가 어느날 류용식의 책상우에 놓인 자동전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비서동지, 저를 찾았습니까?》

《그렇소.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그 지열설비에 대해 연구했다던데...》

《비서동지, 제 지금 그곳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계된 지열설비는 우리 공장실정과 맞지 않아 지금 연구사들과 논의중입니다.》

《고생 많겠소. 침식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동지들이 잘 도와주고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지 마십시오. 공장에선 모두 지배인동무를 걱정하고있습니다.》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서인옥의 목소리는 석심하면서도 몹시 갈려있었다. 류용식은 그가 지금 한껏 피로한 상태라는것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전화기를 놓자 류용식은 공장뒤에 있는 서인옥의 집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어느때도 그랬지만 서인옥이 출장가면 영예군인

인 그의 남편을 도와 집일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는 류용식인것이다.

《자, 차가 나갑니다.… 이젠 포가 나갑니다.… 장훈이 받아라!》

승벽내기로 장기를 두다가도 밖에서 《꿀, 꿀.》, 《꼬끼요!》하고 《마당식구》들이 울어대면 《이크, 내 친구들이 밥달라고 보채누만.》하며 스스로럼없이 돼지물바게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류용식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서인옥의 남편은 눈굽을 축축히 적시였다.

《우리 집사람이 남편은 잘못 만났어도 당비서 하나만은 잘 만났거든.》

이런 때면 류용식은 말머리를 얼른 돌렸다.

《우리 지배인동무가 아무리 체노라 해도 집안 기둥이 없으면사 천리가 다 뛺니까. 그저 이 집안에서 보배는 국철이 아버지입니다. 초소를 지켜가던 어제날의 옛 군관이 오늘은 집에 집집승우리를 꾸려놓고 집안에선 집안기둥, 밖에서는 경공업전선의 한기둥을 든든히 떠받치고있거든요.… 이제 멀리 않아 꽃같은 머느리를 맞고 우리 장기나 마음껏 떠봅시다.》

날자를 세여가며 기다리는 서인옥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류용식은 바쁜 생산때문에 기사장은 못 보내고 로동부원을 서인옥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올것!》라고 쓴 쪽지편지도 함께 보냈다.

떠나간 로동부원도 함흥차사처럼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로동부원에게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비서동지, 지배인동진 여기 지열설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제 강제로 떠나갔습니다. 앓는 몸으로…》

《뭐요? 강제로? 동문 뭘하고있었소?》

류용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하다가도 급한 마음이 일면 파도처럼 격앙되는 그였던것이다.

《…저로서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지열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가기 전엔 절대로 공장에 갈수 없다고 하면서…》

류용식은 심장이 쿵쿵 뛸기 시작했다.

지열설비, 정녕 그것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그의 눈앞으로는 2011년 1월 바람세찬 눈길을 헤치고 공장에 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못 잇을 그리움속에 우렁이 떠올랐다.

이른새벽 생눈길을 헤치고 공장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먼길 오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공장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 제일먼저 찾으신 곳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셨던 국수작업반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흐름식국수생산공정과 진공포장완성기에서 나오는 포장국수를 보시고 이 공장에서 메밀국수와 강냉이국수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국수를 좋아하는 인민들을 위해 큰일을 하고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 진공포장국수와 포장한 말린 국수, 포장하지 않은 국수를 인민의 요구에 따라 팔아주기도 하고 교환도 해준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기쁨에 넘치시여 말씀하시였다.

2층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파자작업반에도 둘러주시였다.

장군님을 뵈게 된 기대공들의 마음은 하냥 설레이고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장군님께서 파자생산흐름공정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고계시는데 압연성형기가 애를 먹이며 파자문양이 찍혀지지 않더니 끝내 기대가 멎고마는 것이였다.

순간에 일군들은 긴장해지고 기대공들은 어쩔줄 몰라 쿵쿵 뛰여다녔다.

완성공으로 파자포장기앞에 서있던 리진주는 문양없는 오작파자를 쥐고 울상이 되여 서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체가 멈춰선것은 기대공들의 탓이 아니라 현장온도가 내려가니 기체가 오동작한것이라고, 이런 곳에서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니 얼마나 춥겠는가고 심려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파자가 놓여있는 콘베아앞으로 가시여 몸소 파자맛도 보시고 파자의 질이 낫다고, 자신께서 전본을 보내주겠으니 질좋은 파자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떠나실 때에는 서인옥지배인에게 현장온도를 칸 칸 막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대담하게 지열설비를 놓으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때부터 지열을 살점처럼 귀중히 안고있는 서인옥이였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되돌아설수 있으랴.

언뜻 그의 눈앞에는 공장의 새 설제도를 펼쳐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며 궁지에 차서 하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비서동지, 이 지열만 해결되면 공장의 CNC화, 무인화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다룰 주인공들을 채를 쳐서 받으시다. 실력있고 창조성이 강한 사람들로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

서인옥은 채를 치는 흥내를 내며 즐겁게 웃었다.

류용식은 서인옥의 그 밝은 눈앞에 진주와 같은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그려져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진주의 어머니 박금정녀인이 뜻밖

도 군관의 사진을 들고온것이다.

그것은 류용식이 천둥소리를 들은것만큼 놀라게 만들었다.

×

강제로 갔다던 서인옥은 놀랍게도 대형화물자동차에 지열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만짐 가득 싣고 백두산건축연구원 연구사와 함께 공장정문에 나타났다.

벌겋게 충혈된 눈, 조골조골 주름이 가고 먼지오른 초췌한 작업복, 앞코승이가 다 닳아 보풀진 신발...

류용식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가정을 떠나 객지에서 겪은 오만고생이 그의 모습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기때문이었다.

어느새 모여온 공장사람들은 차를 둘러싸고 설렁대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파자작업반 처녀들의 목소리는 류다르게 뚱뚱 들려온다.

《우리 지배인동지 세지.》

《글쎄, 빈손으로 출장갔다던 지배인동지가 어떻게 이런 만짐을...》

《너희들 못 들었니? 우리 지배인동지 명사수란 걸.》

《명사수?》

《응, 우리 지배인동진 열번, 스무번 재구 한번 결심하는데 그것두 약저울로 정확히 달아보고 실천하기때문에 절대로 오발을 모른댔어.》

그때였다.

처녀들결에서 설비를 씌웠던 방수포를 겹겹이 포개던 중년의 노동부원이 즐겁게 웃으며 그들의 말속에 끼어들었다.

《동무네가 지배인동지 명사수란걸 어떻게 아오?》

그러자 처녀들은 승벽내기로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건 작업조직을 할 때 알수 있어요. 할수 없는 일, 필요없는 일은 아예 조직하지 않고 일단 조직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자재 원단위총화때 보면 1그램도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내군 합니다.》

《난 우리 지배인동지가 자신보다 공장을 위한 마음이 누구보다 커서 명사수라고 생각해요. 지배인동지가 지금껏 애써온 모든 일은 공장현대화에서 빚나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찾지 못한 샘플기로 아득하게만 생각했던 지열설비도 이렇게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노동부원은 다 포개인 방수포를 한쪽에 쌓아놓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소. 우리 지배인동지 마음속엔 오직 공장, 공장만이 살아숨쉬고있소. 난 이번에 그걸 더 똑똑히 알게 되었소.》 하며 노동부원은 처녀들에게 지

열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안고오게 된 사연을 감회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사흘안으로 강계에 갔다온다던 서인옥이 종내 나타나지 않자 노동부원은 서둘러 차비를 하고 강계 소공장으로 떠났다.

빠스로 이들을 내쳐가던 그는 어느 한 러판에 머물렀다. 그밤에 뜻밖에도 서인옥지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올줄이야.

《조광동뭘니까? 제 지배인 ...》

《지배인동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천군 삼풍러판에 ...급히 ...와주어야 ...》

노동부원은 그밤으로 백리넘는 삼풍러판으로 향했다.

금시 숨이 넘어가는듯 한 지배인의 어조가 무슨 사달이 났다는 예감을 주었던것이다.

삼풍러판에 도착하니 지배인이 거처하는 방에는 여러사람들이 지배인을 빙 둘러싸고있었다.

그들속을 헤집고 들어간 노동부원은 눈이 둥그레졌다.

서인옥지배인이 침대에 몽그러놓은 이불에 등을 대고 툭툭 부어오른 두다리를 찜질하고있었던것이다.

노동부원을 알아본 서인옥이 아픔을 참고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부원동무, 이렇게 밤길을 걸게 해서 안됐어요. 이제 곧 평양으로 가자요.》

그때 나이든 한 녀인(그는 삼풍러판 책임자였다.)이 손을 가로저으며 급한 어조로 말하였다.

《지배인동지, 강계에서 여기까지 200리길을 오고 이제 또 간단 말입니까? 래일 우리가 차를 마련하겠으니 ...》

《아니, 평양으로 가는 열차표를 사냈어요. 그간 이곳 동지들에게 폐기쳐서 정말 미안해요.》

오가는 그들의 말과 서인옥지배인의 퍼릿퍼릿한 두다리를 본 노동부원은 사태를 짐작하고 단마디로 거절했다.

《안됩니다.이런 상태로 어떻게 걷는단 말입니까?》

《부원동무, 래일 아침 백두산건축연구원 연구사와 함께 새로운 지열생산체제도입을 토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 오늘밤중으로 꼭 가야 돼서 동무를 찾은것인데... 어서 가자요.》

서인옥은 침대 한끝을 손으로 짚고 안간힘을 쓰며 제 먼저 일어섰다.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해야 속이 편해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노동부원은 할수없이 그의 한팔을 자기 어깨에 끼고 삼풍러판을 나섰다.

평양행 급행열차에 올라 자리잡은 노동부원은 서인옥에게 불부는 어조로 말하였다.

《지배인동지, 왜 다리가 이렇게 붓도록 걸어다니며 자신을 혹사합니까. 지배인동진 너무합니다.》

로동부원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인옥지배인은 그의 손을 부여잡더니 환희와 열정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부원동무, 기뻐하세요. 우리한테 큰 길이 열렸어요. 글썄 내가 찾아간 그곳 공장에서 쟁줄기를 쓰지 않고 작은 물량으로 지열을 생산하고있지 않겠어요. 우리 공장실정에 맞는 그런 지열설비를 만든다면 우린 종전보다 다섯배나 적은 자금으로 지열생산체계를 도입할수 있어요. 그 설계를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맡아주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걸음을 지체할수 있겠어요.》

로동부원은 가슴이 찡르르해짐을 느끼었다.

공장을 위해 동분서주하여 뛰어다니면서도 자기를 위해 쓰는 한푼의 로자도 아까와 다리가 붓도록 걷고걸는 지배인앞에 머리가 숙어지고 속이 뜨끔했다.

자기는 공장의 일을 위해서 공장자금 몇푼 쓰는것이야 웅당한것이지 하고 생각했으니 지배인과 사고와 행동에서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있는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로동부원은 처녀들의 말을 힘차게 긍정했다.

《동무들의 말이 맞소. 우리 지배인동지의 목표는 사회주의만세소리 울려 퍼질 인민생활향상이요. 우리모두가 보람찬 그 투쟁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자각하고 힘껏 뛰고 땀시다.》

웨치는듯 한 그의 목소리에 모여섰던 사람들은 더욱 끊기 시작하였다.

류웅식은 아름답게 넘치는 기쁨으로 입을 다물줄 몰랐다. 그러면서도 리진주일로 서인옥을 대할 일이 난처하여 슬며시 사무실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사무실엔 벌써 서인옥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류웅식은 마음속그늘을 인츰 지워버리고 그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새 수고 많았습니다. 개성장군처럼 지열설비를 제작할수 있는 자재들을 싣고 들어서니 공장사람들이 여간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음... 이젠 쟁줄기만 찾으면 아니, 적은 물량으로 할수 있다니 우리 공장의 우물물량으로도 얼마든지...》

《비서동지, 그 우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도 찾던 쟁줄기가 없어도 이젠... 이젠 지열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인옥은 눈물절반 기쁨절반으로 형언키 어려운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류웅식은 어안이 병병하여 앓을념을 못했다.

《저 지열설비는 2천여립방의 물이 아니라 도제 두립방정도의 물을 가지고도 지열을 생산할수 있는 첨단설비입니다.》

《두립방?... 정말입니까?》

《예, 그곳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땅속물을 뽑지 않거나 있는 물을 적게 쓰면서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들이 쟁줄기를 쓰지 않는 지열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답니다.... 이번에 많은 걸음을 하면서 전 우리 공장이 높은 과학기술에 운명을 걸지 못하면 인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류웅식은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다섯배나 적은 자금으로 공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과학기술로 부흥시키려는 마음을 안고 온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왔다.

한껏 흥분된 류웅식은 서있던 걸음으로 랑수책상을 에돌아 지배인의 손을 짹 잡았다.

《지배인동무, 우리 손을 맞잡고 마음먹은대로 생산을 팡팡 밀고나갑시다.》

《비서동지의 불같은 성격에 벌써 지열의 덕을 보는것 같습니다. 호호호.》

《하하하.》

오래간만에 웃음을 한껏 터친 서인옥은 자리에 앉으며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

류웅식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인츰 알아차렸던것이다.

분명 리진주에 대한 말일것이다.

하어 류웅식은 일부터 말머리를 판데로 돌렸다.

《참, 지배인동무. 래일부터 기사장동무와 함께 생산을 힘차게 밀고나가십시오. 전 공장돌격대를 책임지고 짧은 기일에 지열설비조립을 끝내겠습니다.》

류웅식은 작업모를 손에 쥐고 먼저 방을 나섰다.

공장에서는 생산조와 건설조로 나누어 사회주의 경쟁을 벌리면서 주야전투를 했다.

서인옥의 남편이 건설장에 돼지를 지원하고 불편한 몸으로 화선선동을 벌려 전투는 고조를 이루었다.

청년들과 함께 전투에 여념이 없던 류웅식은 그새 서인옥이 현장에서 쉬쉬 돌아가는 리진주에 대한 소리를 듣고 박금정녀인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감고비에 이른 건설장에 서인옥이 불쑥 나타났다. 토랑처리를 하던 류웅식은 삼을 들고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모든것을 건설이 끝난 다음 터놓으려는 심산에서였다. 그런데 서인옥이 기필코 따라섰다.

《비서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전 모든걸 다 알고있습니다.》

《?...》

《어제 그의 집에 갔었습니다.》

서인옥은 박금정녀인을 만났던 사실을 간단히 언급했다.

어제 저녁 서인옥은 박금정녀인의 집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진주에 대한 말이 마음을 몹시 무겁게 했던 것이다.

(그럴수가 있나? 그는 공장을 절대로 뜨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어느덧 서인옥은 진주의 집 대문안에 들어섰다.

박금정녀인은 반가와 땀발로 뛰어나왔다. 그러면서도 서인옥의 눈길과 마주치기를 꺼려했다.

《지배인이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했더구만.》

《고생이야 뭐... 그런데 진주동무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는게 정말이에요?》

《...사실이네. 언젠가 지배인이 우리 진주에 대해 각근히 물어보길래 지배인의 눈에 든 사람과 짝을 무어주자고 속궁리를 해왔는데 그 애 마음이 그런줄은...》

박금정녀인은 위대한 장군님을 공장에 모신 후 어느 한 군관이 집에 찾아왔던 일과 그들이 서로 만나본 후 진주가 그에게 남다른 관심을 두고있다는데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감심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난 그때 속으로 끄끄 앓았수다.(아무래두 우리 진주가 저 군관과 자별한 사이같은데 결혼해서 그를 따라가기라도 하면 공장에서 대를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꽃피워갔으면 했던 내 기대가 허물어지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 어느 기회에 진주에게 내 실망감을 비쳐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앤 내 손을 꼭 잡으며 꼭진한 어조로 말하는게 아니겠수. <어머니,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했어요. 나라의 혜택을 받고자란 제가 이제야 보답의 첫걸음을 뗐다고 할가... 입직하면서 전 지배인동지와 당비서동지앞에서 약속했어요. 영원히 공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전 그 약속을 사회앞에 지닌 공민의 의무로 생각하고있어요. 어머니, 마음놓으세요. 그 동무도 저의 마음을 알고있어요. 어머니의 뉘까지 제가 힘껏 일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맘도 폭 놓이더구만요. 지배인생각엔 어떨는지...》

서인옥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었다.

《공장에서 보배인 진주동무가 그렇게 말했더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서인옥은 가벼운 걸음으로 그의 집을 나섰다...

자초지종을 터놓는 서인옥의 눈섭은 약간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리성을 잃지 않고 말하느라 애

썼다.

《하긴 그런 처녀를 누군들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공장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진주 아니, 우리 공장처녀들모두가 못사람들의 그런 사랑 속에 살게 될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공민적본분을 잊지 않고 공장을 행복의 터전으로 꾸려가는 우리 공장사람들은 가정도 행복하게 가꿔가게 될것이라고. 지열설비조립이 끝나고 올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다음 그들의 행복을 온 공장이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무.》

류응식은 말 못할 사연도 넓게 리해해주는 서인옥이 무척 고마왔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뿌리깊이 간직한 정마저 청년들을 위해 바쳐가는 그가 무한히 돋보였다.

어느덧 설비조립은 끝나고 지열에 의한 팽만방체계가 현장에 성과적으로 도입되었다.

봄- 사르륵 사르륵...

기계가 정상가동되니 운동장같은 넓은 현장이 순간에 따뜻이 덥혀졌다. 처녀들은 창공을 날아예는 새들 못지 않게 경쾌하게 오가며 기대를 보았다.

썩썩 돌아가는 흐름선기계들, 콘베아를 타고 쏟아지는 과자, 알사탕, 국수, 높이 쌓아지는 포장된 제품들...

끝없이 흐르는 제품들을 류응식은 의미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샘줄기를 찾아야만 도입할수 있다던 지열. 지금은 그 샘줄기가 없어도 현장은 따뜻한 봄의 훈향에 묻혀있고 갖가지 제품들은 하냥 쏟아져 유치원과 탁아소, 애육원과 건설장, 인민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다면 그 행복이 쏟아지는 샘줄기는 어디 있었던가.

문득 그의 귀전에는 객지에서 몹시 갈린 서인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닳아진 신발을 신고 만짐 가득 지열설비를 신고 공장에 들어섰던 그의 충혈된 눈도 어려왔다. 마음속에 간직했던 뿌리깊은 정도 청춘들의 사랑을 위해 바친 그의 아름다운 모습도 새겨지고...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고귀하고 뜨거운것이 가슴깊이 자리잡고있었다.

그것은 인민들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 행복의 샘줄기는 공민적의무를 량심과 의리로 지켜가는 사람들, 참다운 복무자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지닌 헌신이 그 샘줄기를 영원토록 마를줄 모르게 한다고...

용사모알에쉬

박 성 일

오늘도 조국의 바다를 지켜
영생하는 그대들의 함선이런가
파도 설레이는 군항의 기슭
바다를 향해있는 해군용사묘

묘앞에 놓인 추모의 꽃송이는
또 하루 전투임무수행의 항해길 돌아온
그대들의 배전에 전우들이 없어준
축하의 꽃송이런듯

비둘의 해군기와
달과 별을 아로새긴 해군모표는
또다시 군항멀리 조국수호의 항로에 오른
그 출항의 닻 위훈의 함선기런듯

묘비마다 새겨진 돌사진은
군항을 떠나며 갑판우에 정렬한
그대들의 림름한 모습같아
이 마음속 경의도 뜨거운 여기

그대들은
봉분속에 잠들지 않았다
복무의 자욱어린 정든 군항
해병의 랑만넙친 다정한 전우들과 함께
열혈의 가슴 애국충정의 심장 불태우며
값높은 삶의 절정에 그 숨결 뿜어나니

어찌 그대들이
조국수호의 항로를 멈추었다 하라
어찌 그대들이
수령결사옹위의 닻을 내렸다 하라
이 나라의 천만병사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에 불러세우며
불변의 항로 돌격침로로 내닫거니

그대들을 품안고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전함마냥
군항의 이 기슭에 용사묘는 있구나
오, 영원한 바다의 성새로 우뚝 솟아있구나

상 식

현대올림픽의 어제와 오늘의 달라진 모습

비대해진 올림픽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수를 1만명으로 제한하도록 한 당시의 국제올림픽 위원장이었던 싸마란츠는 공식석상에서 이제는 올림픽의 비대화를 막았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올림픽은 계속 비대해졌다.

사람들은 제1차 아테네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될 당시 8개 종목의 43개의 세부종목에 311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1992년 제25차 바르셀로나대회때에는 257개 세부종목으로 늘어났으며 1996년 제26차 애틀란타올림픽경기때에는 271개 세부종목으로 늘어났다.

특히 현대올림픽의 100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조직위원회가 자전거산야달리기를 더 포함 시킴으로써 가뜩이나 비대해진 올림픽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다.

종목이 늘어나는데 따라 참가인원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는 선수만도 1만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에 기자, 보장성원들을 합치면 또 1만명이 늘어난다.

이처럼 올림픽이 비대해졌지만 아직도 올림픽륜안에 들어오지 못한 종목은 수없이 많다. 이것은 올림픽조직에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것이 두번째 변화이다.



바다로 간 연구사

리명현

1

아침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망망한 물면을 온통 붉고 누른 빛으로 물들이며 바다는 마치 자기가 둥그런 태양을 떠밀어올리는것 같이 격조있는 물결을 일으키고있다.

아니 어찌보면 (물과 열덩어리는 물론 랑립될수 없는 존재이지만) 태양이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메터나 떨어져있는 태양을 자기의 거대한 품속에서 꺼내여 하늘가에 들어올리는것 같다.

《끼르륵-》, 《끼르륵》 갈매기들도 자기들의 청초한 원기를 과시하자는건지 푸른 바다의 공중을 엿갈며 힘차게 훨훨 날아옐다.

수평선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무대중심으로 한듯 랑면에 아츠랏게 솟아있는 절벽에 푸르청청 서있는 소나무!

모래불에 붉게 핀 해당화!

아침해 솟는 바다의 이 광경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가.

바다사람들은 바다의 이 장엄한 아침해돋이에서 약동하는 삶의 희열을 한껏 맛보며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50이 넘도록 한뼘 바다동식물(주로 다시마)양식업에 종사해온 흥수산사업소 양식작업반장 차영도도 이른아침 해안가 특유의 시크무례한 바다바람을 맞으며 집을 나섰다.

손전화기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전화 받습니다. ... 기사장동지, 오늘은 휴식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오늘 아니면 래일 중앙에네르기연구소에서 연구사 한명이 거기로 내려가오.

그러니 이제부터 그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오. 그를 잘 도와줘야 하오. 내 말뜻이 리해되오?》

《그 연구사가 무엇을 연구한답니까?》

《아직 나도 딱히 모르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그곳 양식마율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연구사업이요. 더 물어볼게 있소?》

《없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시간이 지나서 차영도는 생각밖에 그 연구사를 모래불에서 만나게 되었다.

소형직승기나 일인용비행기를 타고 내륙쪽에서 오는줄 알았는데 무엇을 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일이다. (그는 여기서 30킬로메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해상관측소에서 공기방석패숙정을 타고왔다.)

《에네르기연구소에서 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려행용가방을 든 보매 나이 서른도 안됐을 건장한 체구의 청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소개를 했다.

《사전련락을 받았소. 바다태생이요?》

《아닙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야영이나 답사로 바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촌사람> 이군. 자맥질은 할줄 아오?》

《그저 가슴혜염을 약간...》

차영도는 몹시 유감이라든듯 허전한 미소를 지었다.

《이보오 연구사선생, 바다는 장엄하지만 거칠고 서정적이면서도 사납소. 행동이나 기질이 유약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요.》

《아니다. 그래서 전 이번 연구를 하는 과정에

정말 바다가 무서운지 내가 무서운지 마음먹고 부딪쳐보자는겁니다.》

연구사의 호기있는 장담에 영도가 미처 다음말을 찾지 못했다.

《여기가 다 양식장입니까?》

《그렇소. 다시마를 위주로 하고 김과 해삼, 섭조개를 키우는 립체양식장이요. 선생도 무슨 양식에 대한 연구를 하러 왔소?》

차영도가 무슨 대답이 나오겠는지 상대방을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는 그를 피끗 쳐다보고나서 연구사가 응답했다.

《제가 하는 연구도 바다자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사업얘기는 후에 하고 저에게 바다구경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좋소. 가재미납시질을 하지요. 어땠소?》

《해보지 못했지만 무척 흥미가 동하는데요.》

잠시후 영도와 연구사, 또 다른 한사람이 꽤 클사한 매생이를 타고 가까운 물넋에 나가 가재미납시질을 시작했다.

또 다른 한사람은 영도의 동생이다.

그도 이곳 양식작업반사람이다.

그뿐더러 그의 딸 세옥이도 같은 작업반사람이다.

바다밑바닥에서 사는 가재미를 잡는 낚시는 민물낚시처럼 감부기나 방울도 없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낚시다.

미끼는 지렁이비슷한 굴치를 썼는데 한틀에 낚시를 두개, 세개 아니, 네개까지 달았다. 대도 없는 낚시줄을 순수 손감각으로 느끼고 잡아채는데 반장과 그의 동생은 연방 고기를 낚아냈다.

낚시묘술이 있어서인지, 고기가 그렇게도 많은지 어떤 때는 단번에 어른손보다 큰 가재미들이 세마리씩이나 물러나와 푸들쩍거린다.

그런데 연구사에게는 령리한 가재미들만 모여드는지 연방 미끼만 떼우는 판이다.

시간이 지나도록 겨우 한마리 낚았다 했더니 이번엔 배멀미가 났다.

물이 흔들리더니 배가 흔들리고 그답엔 바다가 아니, 지구가 통채로 흔들리는것 같다.

차영도가 병글서 웃더니 말을 건넸다.

《그래 바다가 꽤 험치 않지요?》

연구사가 메스메스해지는 가슴을 쓸어만지며 겸손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단련하면 나아질겁니다. 이거 정말 잡도리를 보통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반장동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발동기보트와 고무배, 구명대를 주십시오. 매일부터 해구에 대한 료해를 하면서 일주일가량 잠수훈련을 하렵니다.》

《혼자서는 좀 무서울텐데…》

《정 힘들면 방조를 청하겠습니까.》

《연구사선생과는 배짱이 맞을것 같구만.》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 이름은 해룡입니다. 그게 저한테 편합니다.》

《좋소. 해룡연구사, 숙식은 이 사람(세옥의 아버지를 가리켰다.)네 집에서 하오. 그리고 오늘점심은 우리 집에서 하지요. 내 가재미매운탕을 대접하겠소. 방금 잡아서 선도가 백프로고 영양이 최고로 좋은 5월가재미는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오.》

바다가에 온 연구사의 첫날은 이렇게 흘러갔다.

2

해룡의 연구대상은 다시마와 같은 《ㅎ》라는 대호를 붙인 바다마름류였다.

그가 영도의 첫물음에 그렇다고 찍어 대답해주지 않은것은 그것이 사업상 비밀에 속하는 문제여서가 아니었다.

그건 영도가 자기네 양식발을 내주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은근히 우려할수 있다는것과 또 하나는 앞으로 연구를 결정적으로 성공시킬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다음 차차 이야기해도 된다고 타산했기때문이다.

사실 ㅎ마름류연구를 연구소에서는 한두해전부터 해오지 않았으며 또 첫 연구자도 물론 해룡이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여 ㅎ마름류에 대한 그의 연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볼수도 없다.

학문과 학문사이의 경계선을 긋기가 대단히 어려운 오늘 자연과학의 어느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하나도 차요시하지 말고 다 잘해야 하는바 그것도 전체 학문의 통일속에서 원리적이며 창조적인 편관속에서 실천적으로 배워야 한다.

해룡은 바로 그렇게 공부하던 대학의 그 나날에 벌써 장차 자기의 힘으로 에네르기분야에서 생물학적방법으로 새로운 발명을 이루리라는 리상을 품었었다.

중앙에네르기연구소에 갓 배치되어와서 생물자원연구실에서 자료연구를 하는 기간에 그는 우연히 《서해안지구에서 ㅎ마름류대량번식》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었다.

연구가 아직 성공의 빛을 보지 못한 그 자료의 내용은 대번에 해룡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생물학적방법으로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한다, 그것도 바다에서!…

그런데 이상한것은 자료에 연구자의 이름이 없

는것이다.

그 순간부터 흥마름류는 해룡의 머리속에서 한시도 떠날줄 몰랐다.

몇달이 지나 그는 소망대로 생물자원연구실에 배치받았다.

변학성실장은 그에게 인차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다.

전례대로 하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연구소에 배치되어온 신인에게는 연구소생활에 익숙되고 앞으로 단독으로 과제를 맡아 수행할 능력을 키우는 준비단계를 거치게 하느라고 개별과제를 주지 않는다.

여러해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공업에 필요한 원유를 외국에서 사오고있다.

해룡은 이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어느날 그는 실장과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마주 앉았다.

《한가지 심중히 제기할게 있습니다.》

《어서 말하오.》

《그럼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흥마름류에 대한 연구를 맡겨달라는겁니다. 물론 그 연구가 지금 두명의 선배연구사들이 각기 자기 방법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있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 에네르기개발에서 J미세마름류나 H미생물보다 전도가 훨씬 촉망되는 흥마름류는 그 가치로 보아 또 다른 한가지 방안으로 연구하여도 실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장은 크게 뜬 두눈을 슬며시 감았다.

흥마름류의 첫 연구자는 연구과정에 현지에서 순직하였다.

해룡이가 본 그 자료는 실에서 그의 연구일지를 종합하여 작성한것이다.

사실 흥마름류의 군락양식은 대단히 어려운 대상이다. 그만큼 또 경제학적가치가 높기도 하다.

바로 그런 대상을 신인이 맡겠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오.》

《예, 만일 저에게 1년기간을 준다면 현지에 나가 연구계획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는겁니다. 그 보고서가 어떤 가치를 가지겠는지 이 자리에서 장담할수 없지만 명백한것은 그렇게 단독으로 하는 과정에 제가 앞으로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도약대를 쌓을수 있다는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에게는 실천상의 실기가 필요합니다.》

변학성실장이 실눈을 짓고 해룡을 찬찬히 지켜 보았다.

《동무의 말마따나 만일 동무의 제의가 수락되면 실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오?》

《저는 흥마름류연구를 동해안지구에서 해보렵니다. 그러니 연구지를 선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완성단계에 있는 수중로봇을 한두기 배당해주십시오. 수중작업에 쓰자는겁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그런것이야 어려울게 없지. 소장동지와 토론해보겠소.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오. 그건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니까... 참, 지금 동무 몇살이더라?》

《28살입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온지도 벌써 1년이 돼웁니다.》

《허허... 벌써가 아니라 이제야지. ... 준비를 단단히 했구만.》

실장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룡의 제의를 연구소장이 승낙했다.

그래서 젊은 연구사는 야심만만히 연구지로 달려왔던것이다.

3

며칠전에 연구소에서 최근에 해양자원개발용으로 물속에서 사는 가재의 동물학적특성을 모방하여 개발한 수중로봇 두기를 해룡에게 보내주었다.

그래서 수중작업이 훨씬 험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대륙자원고갈과 인구과잉으로 에네르기, 광물, 식량, 화학과 제약공업의 자원이 룝지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무진장한 바다에로의 진출이 비상히 광범해졌다.

그뿐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터전도 점차 해상과 바다속으로 이동시키고있다.

그래서 해상에 벌써 많은 공장과 비행장,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바다속에도 주택과 려관, 각종 봉사기지들이 들어앉았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요구하는 인간의 수으로 볼 때 극히 초보적이며 시작에 불과한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과학연구와 해상건설분야에서 각이한 용도와 성능을 갖춘 로봇들이 대량적으로 요구되었다.

해룡은 로봇 1, 2호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다.

첨버덩!—

로봇들이 각기 자기 작업분담을 수행하기 위해 해룡이와 갈라졌다.

연안수역인지라 여기 수심은 거의 60미터에 달한다.

하지만 물속은 땅위의 심심유곡에 있는 샘물만을 옮겨다 채워넣은듯 맑고 투명했다.

해룡은 머리를 푹 펴고 거의 거꾸로 선 자세로

오리발을 푹있게 었저어 아래로 내려갔다.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세계가 펼쳐졌다.

에잔스턴 음악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추는듯 한 바다나물들, 아롱다롱색갈의 크고작은 물고기들, 기묘한 바위와 돌들, 그 생김새와 색깔이 너무도 화려하고 오묘해 종파 이름을 알수 없는 가시껍질 동물과 강장동물들...

이 모든것들이 조화로이 어울려 희한한 색대조의 극치를 이루고있었다.

해룡은 바닥에서 반길도 못되게 떠서 잠수경으로 하나하나의 세부들과 징후들을 유심히 살피며 전진해갔다.

드디어 선명하고 아름다운 붉은 밤색의 등마름이 나타났다.

벌써 키가 100미터를 넘어섰다.

다 자라면 300미터에 달하고 질량은 300키로그램까지 나간다.

그것의 70프로가 고분자당질로 되어있어 그것을 액체상태로 추출하여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화석원유와 동일한 기름물질이 얻어진다.

그러니 한포기에서 근 200키로그램의 원유를 생산하는것으로 된다.

간단한 량이 아니다.

지금 인간의 경제활동과 사회, 가정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에네르기들이 태양빛, 풍력, 지열 등등의 재생에네르기로 충당되고있지만 화학공업과 경공업분야에 쓰이는 일부 원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원유가 필요했다.

바다의 대륙붕에 매장되어있는 얼마간의 화석원유를 채취하자면 그 량도 문제이거니와 생산원가도 많이 들고 중요하게는 생태환경이 적지 않게 파괴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바다물에 풀려있는 영양염류와 하등식물의 빛합성으로 풀기로 하였다.

해룡은 등마름류가 뿌리를 박고있는 바닥에서 해저양식에 해로운 동식물이 준 피해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니 해양원유마름공업의 무인화를 실현하자면 해안가는 물론 연안수역도 적지가 못된다.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수심이 깊은 날바다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슭에서 멀어지는것만큼 씨받이가 불리하며 수송원가도 높아진다.

그 원가는 수익률에 비교해서 무시한다쳐도 씨받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형편에선 땅우의 양식장배양탕크에서 모를 길러 양식장에 낼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같은 때 그것은 후퇴나 다름없다. 그런 재래

식방법은 많은 품이 든다. 그건 말도 안된다! 어떻게 해서든 자연적인 직과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그런데 이때 무엇인가가 해룡의 팔굽을 슬쩍 건드렸다.

서해에서 사는 준치 비슷한 꽤 큰 물고기였다.

입이 곧바로 나져있는걸 봐선 떠살이생물을 먹고 사는 성질이 온순한 종 같았다.

그놈이 해룡의 머리를 몇바퀴 슬슬 돌더니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허, 이것봐라, 내가 하도 자주 여기에 오니 이제는 나를 제 동료로 아는데지. 아니, 내가 너무 오래 물속에 있는것 같군.)

해룡은 마치 자기를 유인하는것 같은 피상적인 물고기를 따라 물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한 40미터를 오를 때 옷층의 물흐름과 그 밑층의 물흐름이 갑자기 어기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이 수역은 등마름들이 밀도가 높은 군락으로 형성되어있었다.

그 서술에 물깊이 배로 자란 등마름들이 그렇게 긴 잎줄기로 해룡의 전신을 휘감았다.

등마름도 마름일반과 마찬가지로 줄기와 잎표면이 끈적끈적하여 쉽게 빠져나갈것 같았지만 위나 여러 포기들의 잎줄기들이 뒤엉킨지라 점점 더 죄어들어 이제는 움작할수 없었다.

며칠째 개인 날씨가 계속되더니 성장세기가 약한 포기들의 잎줄기가 말려들기병에 걸려 꼬여들었던것이다.

이 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식때에 대한 물층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수심이 더 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해룡은 어이가 없어 큰숨을 내뿔었다.

내가 바다나물에 다 묶이다니... 이 해괴망측한 일을 연구소에서 안다면 얼마나 양천대소할것인가. 이러다 내가 수중고혼이 되는데 아니야? 아니다, 연구를 완성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 아차! 가재의 도움을 받아야지.

해룡은 팔과 다리를 쓸수 없는지라 음성으로 로보트를 호출했다.

《가재로봇 1, 2, 내 지령을 들으라. 관찰기락을 중지하고 신호전파가 나는 곳으로 오라. 그러면 여러포기의 마름잎줄기가 한데 뒤엉켜있는것이 보일것이다. 그것을 풀어내라.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될수록 작물에 손상을 주지 말라. 자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라.》

거대한 등마름류는 줄기끝부분에 수십개의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면에 넓게 펼쳐져있으므로 배의 항해에 지장을 주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도 적지 않은 애로가 있다. 이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식공들이 이렇게 나처럼 묶인다면 상스럽지 못한 일이 안 생긴다는 담보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나 무인화를 해야 한다. 수공적인 일은 가재들이 감당하면 될 것이다.

4

신새벽에 해룡은 로봇들을 떨구어놓고 해안가로 나갔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해룡에게 이제 바다라는 세계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여기로 온지 반년이 돼오는 이즈막에 와서는 오히려 무한히 아름답고 친근하게만 느껴진다.

그것은 글썽 한뼘 바다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좀 못할테지만 각종 수영이나 더우기는 자맥질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밤에도 대낮같이 앞을 볼수 있는 X형 야시경이 있고 손목에는 라침판야광시계를 차고 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하루고 이틀이고 있을수 있는 수중폐(사람이 물고기처럼 물속에 용해되어있는 산소로 호흡할수 있는 기구)와 상어와 같은 맹어들을 견제하는 전자기파를 순간도 멈춤없이 발산하는 단추알만 한 요소가 있다.

그래도 만약 어떤 극단적인 비상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경보신호만 날리면 몇분안팎에 공중으로 귀조대가 날아온다.

그러니 도대체 무서울것이 뭐가 있겠는가.

시간만 있다면 태양도 해염으로 건들수 있는 배심이다.

해룡은 잔교에 매두었던 고무배에 기구들을 싣고 15호해구로 출발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머리부 앞면에 수중폐가 달려있는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면 나오고싶지 않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싶은 신비의 세계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우선 옷층에서, 그다음에는 가운데층, 마지막으로 밀층의 물분석을 하였다.

극소형수자식측정기에 각종 원소들의 수치값들이 액정판에 현시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갑자기 무엇인가가 잠수면경을 가리웠다.

언젠가 흥마름에 묶이웠을 때 나타났던 그 물고기다.

이번엔 팔굽이 아니라 얼굴앞에서 꼬리젓는다.

해룡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팔을 들었다. 그랬는데도 놀라 달아나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쯤안

에 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동작을 반복하여보니 역시 달아나려고는 하지 않았다. (아직 낯 잊지 않은 모양이야. 다음번엔 촬영기를 가지고와 너를 찍어야겠어. 혹시 알겠어? 무슨 경제학술적가치가 있겠는지. 어쨌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때 레시바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해룡연구사, 나 반장이요. 지금 어데 있소?》

《15호해구에서 수중작업중입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기다리오. 내 마중가겠소.》

해룡은 경사지게 누운 자세를 취하고 최대한으로 구부린 두발로 우를 향해 바닥을 힘껏 내려쳤다.

10미터쯤 떠올라서는 부지런히 오리발을 저었다.

얼굴위로 들린 물면으로는 태양의 광선이 거침없이 흘러든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람색빛파로 이루어진 해빛이 물면에서 굴절되어 물속으로 스며드는 저 광경이 얼마나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이나 될가.

날은 이미 밝았다.

물위에 떠오르니 어느새 왔는지 예선이 자기가 타고온 고무배주위를 돌고있다.

해룡은 예선이 있는 쪽으로 물결을 헤가르며 다가갔다.

예선에는 영도와 세옥이가 타고있었다.

해룡은 잠수모를 벗으며 활달한 어조로 말했다.

《반장동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서 오르게.》

《그럼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세옥이가 수중전지며 시료함, 도구띠를 받아주었다.

예선에 오른 해룡이가 세옥에게 호기심이 어린 미소를 지어보이며 물었다.

《세옥동무, 정말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니요?》

세옥이가 새물새물 웃으며 영도를 쳐다보았다.

양식작업반에 여러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중 나이가 많은 처녀가 세옥이다.

양식반처녀들은 하나와 같이 발랄하고 쾌활하다.

앞바다양식장에서는 이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하για 가랑잎 굴러가는걸 보고도 웃는다는 처녀 시절이 아닌가.

해룡이가 그의 집 별채를 거쳐지로 정한지도 이제는 반년쯤 되었다.

세옥이가 이전보다 해룡을 퍼그나 진중하게 대해주느라 애쓰며 그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얼마나 각근히 원심을 쓰는지 해룡은 마음속으로 고맙

게 느껴오고있다.

그렇게 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한번은 영도가 세옥에게 이렇게 물었다.

《네 어머니가 연구사시중을 드느라 힘들다고 하지 않더냐?》

《힘들게 뭐 있어요. 그저 하루 세끼 식사보장이 나 하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않아. 네 나이 지금 몇이야? 아무때나 단순하거던. 불편한게 있어도 내색하지 않을수 있어. 그러니 네가 어머니일손두 도와주면서 연구사에게 관심을 더 돌려라. 한마디루 제 집처럼 여기게 하라는거다. 사실 그 연구사는 과학자가 아니래도 몹시 욕심나는 청년이야. 늘 봐야 인상이 좋고 그리고 또 의젓하면서도 정열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배우고 도와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 역시 훌륭해! 내 말뜻을 알아듣겠냐?》

바다가마을쳐너로선 유별하게 살결이 흰 세옥의 얼굴이 파사른 해빛을 받아서인지 별스레 붉게 물들어졌다.

《그리고 난 네가 그저 깔깔거리기만 하는 일향이나 이순이와는 좀 다르게 연구사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도 네가 그 애들보다는 나이가 우인데 처신하는것이 좀 다른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자기네 반장이며 큰아버지인 영도의 말은 세옥에게 타이름이 아니라 훈령이나 같다. 아래입술을 감싸는 세옥의 얼굴이 긴장해졌다...

영도가 해룡에게 진정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여보게 연구사, 조기작업이 파도하면 혈당량이 낮아져 신체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네. 어제도 밤늦도록 일하지 않았나.》

《제가 하고싶은 일은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야 굶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네. 그렇게 무리하다가 잠수병이라도 생기면 일생 고생이네.》

영도는 끝줄로 고무배를 예선뒤에 달아놓았다.

수지노대는 옮겨질었다.

《자, 세옥아, 이젠 출발하자.》

예선이 이번에는 해안가를 향해 물갈기를 일으켰다.

《그래 연구가 잘되나?》

《예, 포자가 씨접합체로 결합되었고 빛합성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이네, 왜 처음에 나한테 그걸 말해주지 않았나?》

《섬섬하게 생각하실줄 알았습니다. 비밀이 되어서 알려드리지 않은건 아니고 그저 앞으로 연구가 최종적으로 성공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된 다음 말하자구 했을뿐입니다. 또 한가지는 반장동지가 수

십년동안 꾸려온 양식장의 일부를 내주게 되지 않겠는가 걱정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영도는 젊은 연구사의 깊은 속마음이 헤아려졌다.

《그랬됐구만. 이제부터 연구사업을 세옥이가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네. 그러니 일을 시키면서 흥마름류에 대해서 잘 배워주게. 기사장과 합의를 봤네.》

조수가 되어 해룡의 연구를 돕겠다는것은 세옥이의 발기이다.

《그러지 않아도 세옥동무네 집신세를 많이 지는데...》

《신세탈게 있나. 나나 우리 작업반사람들은 동무와 같은 과학자의 연구사업을 도와주는것을 행운으로 여기고있네. 그러니 아무때든 무엇이냐 어려워말고 부탁하게.》

《고맙습니다.》

이때 조향륜을 잡고 배를 몰던 세옥이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작업반쳐너들이랑 청년들이 흥마름류에 대해서 몹시 알고싶어하는데 한번 강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런 제의에 해룡이가 어쩔가 웃기만 하는데 영도가 맞장구를 쳤다.

《그게 좋겠군! 연구사업의 목적 그리고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면 우리 눈도 트이고 더 성수가 나서 도와나설걸세. 우선 내가 부탁하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네. 오는 일요일에 시원하게 도래곶이에서 하는게 어떨가?... 뒤끝에 낚시질도 하고 섬죽도 끓이자는거네.》

세옥이가 대화에 또 끼여들었다.

《큰아버지, 그때 우린 우리대로 연구사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프로를 준비하겠어요. 좋지요?》

《여부가 있겠냐!... 세옥아, 키 좌로, 중속으로. 7호해구를 거쳐서 가자.》

예선의 물갈기가 폭을 더 넓혔다.

약속한 일요일이 왔다.

해룡이며 차영도 그리고 양식반쳐너들은 바다에서 해설강의와 낚시질도 했고 섬조개를 따서 섬죽도 끓였다.

식사는 노상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화제는 의연히 흥마름류였다.

그때 세옥이가 이렇게 말했다.

《배밑창에 붙어서 공짜로 <러행> 하면서 사는 떠살이생물처럼 흐르는 바다물에 둥둥 떠다니게 하며 키울수 없을까요?》

이 말은 다른 처녀가 즉시에 반박했다.

《식물이 동물하고 다른건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자체로 만든다는것과 중요하게는 처음 심어진 자리에서 한번 움직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다른 처녀도 머리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 마름류가 하등식물이라도 식물이야 식물이지 뭐.》

물론 세옥이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엉뚱한 그의 말이 후날 해룡이의 연구를 성공시킬수 있는 문제해결의 귀중한 실머리가 될줄을 그날 처녀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5

바다에서 돌아오는 해룡의 발걸음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그의 걸음이 느적느적하니 뒤따라오는 가재로봇도 땅바닥에 자국을 내며 걷는게 무던히도 영기적영기적거린다.

여기 마을사람들은 해룡이가 로봇트와 같이 다니는 광경을 너무 보아 범상하니 여겨졌지만 오히려 별스럽다.

갈림길이 나지자 해룡이 주춤거렸다.

요새 《물속의 동물》을 숙소로 데려가 함께 지냈는데 오늘은 왜 그런지 심신이 울끈지 않아 그러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로봇트에게 실험실로 갈것을 지시(실험실의 자동나들문은 주인과 로봇트만을 들여놓는다.)하고나서 양식장배양탱크실로 향했다.

《세옥동무, 수고하오.》

《선생님, 그런데 왜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험실에 보냈소.》

《선생님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세옥이가 근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소. 종자마름상태가 어떻소?》

《생육지표값이 정상으로 유지되고있습니다.》

《이제 열흘이면 포자를 받아야 하오. 그러니 그때까지 최대한 주의하오.》

《여기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선생님은 너무 무리했습니다.》

세옥이와 헤어진 해룡은 숙소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러니 군락양식은 할수 없다고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핵인데... 물론 그렇다고 나한테 책임을 따지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나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해룡은 어느 사이에 숙소로 도착했는지 몰랐다.

앞이 아물거리고 온몸이 천길나락으로 잦아드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선 그는 지열을 리용하는 자동온도조절기를 돌려 온도를 높여놓았다. 그리고나서 이불을 쓰고 침대에 누웠다. 생각은 향방이 없이 그의 머리속을 헤집으며 휘저어놓는다.

...내가 지금 앓을 권리가 있는가. 나라에서는 계속 원유를 사오고있는데...

그렇다, 연안수역은 안된다.

날바다로 나가야 한다.

불시에 세옥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양식마름이야 양식떼줄(비날론)에 든든히 부착되어있지 않는가.

벌써 오래전부터 대양에서 커다란 그물우리로 물고기를 양식하고있는데 마름류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몽롱해지는 의식속에 환각의 영상이 눈앞의 현실처럼 또렷이 떠오른다.

대양을 자체추진기로 횡단하는 양식떼!

마름관리작업을 하는 가재로봇트!

위성원격조사자료를 받아 해일도 피하며 찾아 이동하는 양식떼!

번식기에는 연안수역으로 돌아오는 양식떼!

바로 이것이다!...

이때 누군가 자기를 찾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해룡연구사!》

《선생님!》

눈을 떠보니 영도와 세옥이다.

《그것 보오, 그렇게 무리하다간 몸져눕는다고... 어서 뜨끈한 국을 드오.》

하얀 가재미살과 찰찰 기름기도는 미역이 감칠맛있게 어울린 국물우에 동동 뜬 노리끼레한 성게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다.

마을에서 음식솜씨가 제일 좋다는 세옥이가 끓인것 같다.

그의 표정과 거동만 봐도 알린다.

《이런 음식은 우리 마을 말고는 없소. 자, 식기 전에 드오.》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반장동지, 길이 열렸습니다. 손을 잡고 통이 크게 판을 벌려봅시다.》

열에 뜬 어조로 해룡은 부르짖다싶이 말했다.

《알겠소. 그런데 지금은 국부터 들어가야 하오. 동무가 드는걸 보기 전엔 안 가겠소.》

머리칼이 흘러내린 해룡의 이마가 온통 땀투성이였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해룡은 도입시험이동양식떼설계에 달라붙어 며칠만에 끝냈다.

설계를 본 차영도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빨리도 했구만. … 여기에 드는 자재나 설비는 내가 기사장동지와 토론해서 해결하겠소. 그리구 제작은 우리 작업반이 맡아하겠으니 연구산 그저 기술지도만 하오.》

이동양식떼를 조립하는 날 온 마을이 명절날처럼 흥성이었다.

왜 그러지 않으랴.

바다에서 원유를 공짜로 얻어내는 기구인데…

조립이 끝나자 차영도가 작업반사람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돌아가도 되오. 그리고 세옥인 연구사와 함께 검사를 마지막까지 하고 오나라.》

그래서 해룡이와 세옥이 둘만이 남아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다. 틀이며 떼줄이며 그리고 부력통이며…

검사가 끝날무렵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세옥동무, 이제 그만 돌아가지요.》

처절씩, 처절씩 파도가 이는 모래불기슭을 해룡과 세옥이 혼흔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거닐었다.

해룡이가 곁에서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걷기만 하는 세옥을 돌아보았다.

《세옥동무, 이번에 부모님들이랑 동무가 나를 위해주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소.》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자고 피타게 연구사업을 하는 선생님같은분을 그만큼도 돕지 못하겠습니까.》

《그래 세옥동문 희망이 뭐요?》

이윽해서야 옥물려졌던 세옥의 입이 열거졌다.

《저의 큰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배우고 도와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 역시 훌륭한 사람이라 했어요. 선생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말이 어쩐지… 아이, 선생님도 참!… 저같은게 어떻게 선생님과 같은분과 의사소통이 되는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 그저 희망이라면… 전 바다와 다시마를 떠나선 못살것 같습니다.》

《세옥동무답지 않구만. 자신에 대해 신심을 가지오. 다시마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여긴 바다도 마을도 사람들도 다 아름답소!》

《아름다운 사람들속에 제가 속할수 있을까요?》

《그럼, 식용가치와 약리적가치가 높은 다시마는 오늘도 바다나물의 왕이요!》

《선생님도 참! 다시마를 키우는 처녀가 저 하나나요?》

《그래도 난 음식속씨도 있고 성격이 활달한 동무를 〈다시마처녀〉라고 부르고싶소.》

눈곱이 달아오른 세옥이 걸음을 멈추었다.

해룡이도 걸음을 멈추었다.

《세옥동무, 저 노을비낀 수평선을 바라보오. 얼마나 아름답소. 바다는 인류의 미래요. … 동문 한생 다시마를 키우겠다고 했지?… 난 일생 바다자원을 연구하겠소.》

모래불에 이들의 발자욱이 또렷하게 찍혀진다.

6

지금은 저녁 7시.

변학성실장과 연구소장을 태운 소형직승기가 현지확인차로 동해에 가기 위해 상공을 치달아올랐다.

《여보 실장동무, 그러니 계획조사보고서를 쓰려고 내려가서 저리 현장도입까지 했다는 소리가 아니요?》

《글쎄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병병했었습니다. 집에서 화분에 꽃나무키우듯 한두포기 자태우고 하는 말인줄 알았는데 군락양식에서 성공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동문 양식떼를 기계배에 달고 수심이 500미터이상 되는 날바다에 끌고다니면서 양식했답니다.》

비행기조종간을 틀어진 학성이 룩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니 가장 난문제였던 빛세기, 물층조절이 해결되었답니다. 또 발병률이 자연 떨어졌고 해로운 동식물에 의한 피해상황이 제거되었답니다.》

《그러니 그 동무가 우리 연구소 명맥을 해결하는가.》

소장이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뇌이었다.

어느덧 비행기가 양식반마을상공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변학성이 비행모에 편결된 마이크로 말했다.

《해룡동무, 내 실장이요. 마을상공까지 다 왔소. 착륙지를 선정해주오.》

《동쪽해상으로 12키로미터 나오면 양식기계배가 있습니다. 야외투광등을 켜놓았습니다. 거기로 오십시오.》

바다물위에 흰색과 청록색의 불꽃이 번쩍거린다.

그건 작은 생물들이 발산하는 빛이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수백, 수천의 별무리가 바다물위에 내려앉은것 같았다.

드디어 직승기가 기계배갑판위에 내려앉았다.

해룡이와 영도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소장동지,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았겠지만, 응. 소식을 들었소. 이제 동무얘기를 좀 듣지요.》

《거대한 음마를 군락양식하자면 기존방식을

타파하고 연안수역과 멀리 떨어진 날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수심이 깊어야 압축공기에 의한 부력통으로 물층변화를 시켜 빛세기를 조절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료를 주지 않고도 많은 영양염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앞으론 양식폐에 자체추진기를 달자는겁니다. 필요하다면 태양도 횡단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방향은 위성원격조사체계를 받아들여 매 시각 판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추진하는 양식폐는 하나의 무인원유해상농장이 될 것입니다.》

《실장동무, 이 동무 바다에 나오더니 환상도 바다처럼 하누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도 바다처럼 담대하고 통이 커야 바다를 정복할수 있다는 이 동무를 따라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수확량은 어떻소?》

《양식폐면적이 천평정도인데 500톤은 넘을것 같습니다.》

소장의 물음에 영도가 대답했다.

《그 기간 우리 사업을 돕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야 보잘것 없습니까. 다 이 연구사 공로지요. 아, 글썄 얼마나 정열적인지 여기 처음 와서 자택질훈련을 하느라고 일주일동안에 쓰고 짠 바다물을 한 뒤독 삼킨것 같습니다.》

그러자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영도가 해룡에게 눈짓을 하고나서 말했다.

《소장선생님, 우린 이 배에서 제창 원유물질을 뽑아내겠습니다.》

소장과 실장이 다시 한번 감탄했다.

사실 이건 차영도의 발기이다.

마름을 록지까지 운반할게 있는가. 저리 바다물 위에서 기름을 짜고 그 나머지는 분쇄하여 다시마 양식장에 뿌려주면 좋은 유기질비료가 되지 않겠는가. 평만 먹겠는가, 알도 먹어야지.

과시 한늬 양식업으로 뼈대가 굵어온 차영도만이 내놓을수 있는 착상이었다.

세옥이가 스크류착유기로 뽑아낸 기름물질이 담긴 금속용기를 가져다놓았다.

《소장선생님, 불을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축하하는 축포대용으로 말입니다.》

《찬성입니다.》

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평! 하고 붉은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불길이 좀처럼 기세를 늦출줄 모른다.

불이다. 우리의 불이다!

내 나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불이다.

며칠후 원유마름공업화를 위한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해룡이가 일인용자동차비행기를 타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

그때도 밤이었다.

바다가모래불을 쓰다듬는 파도소리만이 정겹게 들릴뿐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자기의 거대한 자원의 보물고를 정열적이고 대담하며 과학적인 새 세대의 처분권에 고스란히 내맡겼다는듯 출렁이고있었다.

상 식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의 영양

대뇌는 인체에서 제일 복잡하고 활력이 제일 왕성한 기관이기때문에 대뇌의 활동을 유지하자면 에너지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뇌는 대사과정에 단백질을 비롯한 많은 영양물질자체가 갱신될것을 요구한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발육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몇세대까지 내려가면서 영향을 줄수 있다는것이 의학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뇌하수체호르몬에는 《가압소》라는 물질이 존재하고있는데 그것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분자로서 기억력을 왕성하게 하며 주의력이 집중되도록 하여 리해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특히 비타민B₁ 그리고 니코틴산이 인체의 대뇌에 제일 큰 영향을 준다.

비타민B₁ 는 당류의 대사를 촉진하는 효력이 있다.

니코틴산은 몸안에서 니코틴산아미드의 형식으로 존재하고있는데 당대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들을 구성하는 성분중의 하나이다.

알의 노란자위에는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는 외에 칼슘, 린, 철 그리고 비타민A, B, D 등도 많이 들어있고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17.5%, 돼지고기에는 16.7%, 물고기에는 단백질이 15~20% 들어있다.

물고기에는 고기보다 칼슘과 린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B₁ , B₂ 도 많이 함유되어있다.

콩에는 단백질이 40% 들어있고 레시틴도 1.64% 들어있으며 비타민B₁ , B₂ , 칼슘, 린, 철이 많이 함유되어있으므로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적합하다.

복수자들의 노래

피의 지층

조 광 원

우리 사는 이 땅은 얼마나 좋은가
지상에는 행복의 거리와 마을들
지하에는 가득찬 은금보화
허나 우리 어찌 다 알았으랴
딘고사는 땅속의 또 하나의 지층을

오늘도 신천땅 이름없는 산기슭
한기장도 못 미친 땅속에서
처참한 유해가 또다시 나왔거늘

저 멀리 고생대의 유적도 아닌
20세기 미제의 학살흔적
다시 한번 소스라쳐 생각노니
물어보자 야만의 시대가
이렇듯 새 세기 가까이에 있었던가

사람들이여
목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땅을 쳐 통곡해야 하는가
우리 딛고사는 락원의 땅밑에
눈 못 감고 묻혀있는 이 령혼들앞에서

검붉은 이 흙을 떠보라

그들의 살점은 아닌가
아직도 복수의 절구가
우리의 가슴을 광광 때린다

지금껏 이렇게 찾아낸 유물은 얼마고
찾지 못한것은 또 얼마일가
봉분에도 들지 못한 억울한 목숨들이
하나의 지층을 이룬 땅아

죄스럽구나
내 날마다 이 땅을 밟고 다니며
행복한 래일을 꿈꾸어온것이
이 피의 지층을 잊고
누가 무심히 보습을 대어 씨를 뿌리며
아름다운 창조물의 기둥을 박으랴

아, 이 한겹 피의 지층을 잊는다면
우리가 쌓아가는
행복의 그 모든것을 잃게 되나니
내 이 지층을
이 땅의 력사
계급사에 피의 교훈으로 새겨넣으리라
후대들이 대를 이어 영원히 읽도록

일본군위안부

김 일 규

물라도 될 말을
울면서 외우노라
입에 옮기기조차 창피한 말을
온몸의 피를 뚫이며 외우노라

일본군위안부
우리 사는 세월에
이리도 낮은 말이
나의 이 붓끝을
장검처럼 비껴들게 하느냐

날새도 낮을 붉힐 그 뜻을
알고싶지도 않는 그 의미를
아, 나는 왜 심장이 아프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이 가슴에
새기고새겨야 하느냐

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없어야 할것이 생겨난 이 딸
일제의 죄악에 찬 대명사로
세월을 넘어 외워야 하는 이 딸의 의미가
나는 무엇인지 아노라
나는 더욱 사무치게 깨치노라

이 땅, 이 민족을
수십년동안이나 짓밟고
이 나라 녀인들의 순결한 정조마저 짓밟은
침략자가 남긴 말이건만
나는 외우노라 이 말을
움켜쥔 이 두주먹 풀지 않고 외우노라

조국을 잃으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안해

나의 딸 나의 민족이
또다시 결머져야 할
노예의 이름이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외우고외우노라

돌처럼 굳어진
이 주먹으로 기어이 부셔야 할
원쑤의 이름처럼
복수의 파격처럼!

어머니의 당부

—선전화 《원쑤를 갇아다오》앞에서—

김 형 준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한두해도 아니었습니다
수십년세월이 흐르도록
피 흐르는 가슴을 움켜잡은채
원쑤를 갇아달라고 웨치는 어머니시여

모진 아픔
쏟아지는 붉은 피
명의인들 그 아픔 덜어주며
명약인들 그 피를 멈출수 있겠습니까
수십년세월 모진 아픔 참으시는 어머니시여

자식들 키우느라
젖은 말라 옹어진 가슴에서
마르지 않는 피의 샘 터친듯
어머니는 뜨거운 피를 쏟고쏟으며
세월을 이어 세대를 이어 우리앞에 서있는것입니까

아픔이 진하면
죽음이라 합니다

아픔도 나누면 덜해진지만
그 아픔 자식들께 옮겨갈세라 가슴 부여안고
원쑤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어머니시여

천만마디 말이
피가 되어 흐르고
흐르는 피가 당부가 된
어머니가 웨치는 피의 당부
우리 어찌 순간인들 잊겠습니까

어머니시여
부디 눈을 감으시라
어린 몸 젖 먹여 자래우시더니
오늘은 피를 쏟아 증오를 키우시며
오랜 세월 눈감지 못하시는 어머니시여

어머니는 자식 낳아
태를 끊어 키우시였어도
끊어지면 못살 증오심의 진가를
피것은 가슴 헤쳐 가르치고계십니다
—원쑤를 잊으면 어머니도 조국도 잃는다!...

침묵의 강의

김 학 룰

신천땅
여기에선 누구나 말이 없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신천박물판의 살인만행자료
진렬장에 놓인 살인흉기
방공호벽에 뿌려진 피
엄마찾아 허비고허빈
아기들의 손톱자리...
누구나 두눈 부릅뜨고 바라볼뿐
말이 없다
오직 복수를 다짐하는
심장의 고동뿐
가슴벽에 칼을 가는 소리뿐

하건만 틀어진 주먹은
강의를 듣는다
백년숙적 미제와
통일을 가로막는 역적들
씨도 없애버릴
무자비한 복수의 강의
그렇다
신천땅 여기에선
누구나 묵묵히 말은 없어도
혁명의 파격이 누구인가를
혁명의 원쑤를 어떻게 징벌해야 하는가를
뼈에 새겨주는
침묵의 강의를 듣는다

축구명수들의 첫걸음—실내축구

현시기 축구무대의 가장 으뜸가는 인기선수 리오넬 메시와 전세계가 다 아는 축구왕들인 브라질의 펠레와 로날도, 에스빠냐의 싸비,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를 비롯한 축구명수들은 실내축구로 첫걸음을 뗀 명수들이다.

이들은 실내축구를 하면서 개인기술을 닦았다.

실내축구가 선수의 전도에 얼마나 든든한 디딤돌로 되는가를 명수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실내축구는 빨리 사고하고 경기운영을 신속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후에 축구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한다.》(브라질 펠레)

《포르투갈에서 유년시절 우리 또래들은 다같이 실내축구를 하였다. 자그마한 실내축구장은 나로 하여금 공을 짧게 모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였다. 실내축구를 할 때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였다. 실내축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포르투갈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실내축구경기에서는 선수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반축구경기에서는 재능을 갖춘 선수를 찾아내기가 험치 않다. 왜냐하면 축구경기는 완력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내축구경기에서는 개별적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와 기술

수준 측면에서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 수 있다.》(에스빠냐 싸비)

《좁은 구역에서 상대방 선수들을 빼돌려야 하는 것만큼 나에게는 높은 수준의 발제간이 필요하였다. 것처럼 좁은 구역에서 도전에 부딪치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 나는 좋았다.》(브라질 로날도)

오늘 실내축구는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종목이다.

수십년전만 하여도 실내축구는 남아메리카와 남부유럽에서만 대중체육종목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종목을 중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실내축구발전은 곧 축구기술상승이다. 이미 이것을 깨달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스빠냐, 포르투갈, 도이칠란드, 잉글랜드 등 나라들에서는 실내축구가 축구명수들을 키워내는 첫걸음으로 되어왔다. 실내축구를 토대로 하여 브라질은 오래전에 축구대국을 일떠세웠으며 에스빠냐는 21세기의 축구제국으로 그 위엄을 뽐내고 있다.

이 나라들의 성과는 실내축구발전이 축구에 그대로 이어지며 언제인가는 반드시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달래 강 전 설

평안북도 정주시에는 정주벌의 생명수인 달천강이 유유히 감돌아흐르고있다.

평안북도 구성시의 길상산에서 발원하여 정주시의 여러 리들을 거쳐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이 강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달래강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생겨났다.

옛날 이 달천강류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부모를 여윈 오누이가 서로 의지하여 살았다.

너무나 재지게 가난하여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부모들은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어린 두 자식을 남긴채 수많은 세상을 떠났다.

부모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아직은 잔뼈도 채 굳지 못했던 오누이의 오빠 천덕이는 어린 녀동생인 달래를 위해 고역의 멍에를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천덕이는 어떻게 하나 달래를 배웁이지 않으려고 고운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았다.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강건너 앞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거리에 가서 쌀을 바꾸어오기도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지런히 나무짐을 져건만 그들의 살림은 나날이 쪼들리기만 했다.

어린 달래는 10살을 넘기자부터 고생하는 오빠를 도우려고 강건너 산에까지 따라다니곤 했다.

그럴 때마다 천덕이는 얼리기도 하고 옥박지르기도 하며 겨우 집에 떼어놓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강물이 불어나 나무하러 가기가 어려워졌다.

《오빠, 오늘은 나무하러 가지 마. 나 배고프다 하지 않을게, 응?》

달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오빠에게 하는 말이였다.

《걱정말어, 이쯤한걸 가지구 겁낼게 있니?》

천덕이는 일부터 태연한 기색을 지으며 천연스레 대꾸했다.

하지만 사품치는 강물을 보니 마음속으로 겁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천덕이는 나무짐을 해와야 달래를 배웁이지 않는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달래야, 내 인츰 제깍 갔다 올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라, 알겠니?》

《싫어, 싫어. 나두 그럼 같이 갈래!》

달래는 천덕이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천덕이는 철없이 매달리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타일렀다.

《달래야, 네가 따라오면 오빠는 더 마음을 못놓는다. 오빠는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강을 건널수 있지만 너야 아직 어리지 않니. 내 인츰 올게 기다려, 응?》

그제야 달래는 어깨가 반나마 드러난 해진 토스레옷을 걸친 오빠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그에게서 떨어졌다.

천덕이는 인차 오마 다시한번 다짐을 하고 지개를 걸머지고 비바람부는 강가로 달려나갔다.

사품치는 강물을 헤치고 겨우 강을 건너간 천덕은 산으로 올라가 비에 젖은 삭정이를 한짐 해서 걸머지였다.

찬 비방울은 그의 몸에 스며들어도 달래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생각에 추운줄도 힘든줄도 몰랐다.

불어난 골물이 쇠췌 소리를 지르며 달려내리는 골짜기를 따라 나무지게를 짊어진 천덕은 뛰다싶이 하여 내려왔다.

골짜기를 벗어나 막 강가로 가려는데 뜻밖에도 비에 흠뻑 젖은 달래가 질척거리는 들길로 달려오는것이 아닌가. 강가에 나와 오빠를 기다리던 달래가 한길손의 도움으로 종시 강을 건너온것이였다.

물참봉이 된 동생을 말없이 바라보던 천덕은 그의 손목을 잡고 강가로 내려갔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강을 보고있던 천덕이는 나무지게를 벗어놓은 다음 달래를 뉥큼 업고 강물에 들어섰다.

둘과 나무뿌리들이 발목을 걸칠 때마다 느껴지

렬사의 딸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앞에서—

염 득 복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듯싶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 딸을 안아줄듯싶어
렬사들의 이름을 새겨가며
나는 그들의 앞을 지난다

전쟁의 불길속에
온 나라가 휩싸였을 때
마을사람들과 함께 전선으로 떠나던 아버지
그때 내 나이는 다섯살
그때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물었지
—아버지 어디 가나, 몇밤 자면 오나...

그날부터 세월은 흘러 60여년
아버지의 얼굴조차 희미해진 오랜 세월속에
귀가엔 쟁쟁한 목소리
열밤 자면 온다는 이 딸과의 약속
허리굽혀 나의 볼에 입맞춰주던 뜨거움
어깨에 번쩍이던 총창...

나는 아버지를 찾는다
아직도 내 볼에 뜨거운 아버지의 온기
귀가에 쟁쟁한 그날의 약속
저 문주옆에 놓여있는 총과 모자는
그날 내 아버지 메었던 총인듯
그날 내 아버지가 썼던 모자인듯

렬사묘 여기엔
여기엔 나의 아버지는 없다
그러나 이 언덕에 전쟁승리를 위해 목숨바친
렬사들
인민의 기억속에 조국의 기억속에
원수님사랑속에 영생의 전사로 삶을 빛내거니

여기에 있는 려사들은
내가 찾는 아버지며 혈육들이기에
나는 조용히 부른다
—아버지!...
나의 목소리 울려간 석박산기슭에서 울려오는
이 나라 모든 려사들의 대답소리 나는 듣는다
—내 딸아!...

는 모진 아픔을 이를 양다물고 참으며 무사히 달
래를 업어건넌 천덕은 다시 나무짐을 가지러 강건
너에 건너갔다.

나무지게를 지고 다시 강물에 들어서니 허리를
휘감는 물이 지게도 내리밀어 몸을 가누기가 어려
웠다.

한치한치 강을 건느던 천덕은 그만에야 강복판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조그마한 손을 가슴에 꼭 모아쥐고 오빠를 지켜
보던 달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강물속에
침병 뛰어들었다.

《오빠!》, 《달래야!》 서로 찾고 부르는 가냘픈
오누이의 부름소리를 집어삼키며 사나운 강물은 사
정없이 흘러내렸다.

천덕은 기진한 다리를 끌고 겨우 기슭에 올랐으
나 어린 동생 달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달—래—야—》 안타까이 부르짖는 천덕이의 웨
침소리가 강기슭에 처량하게 울렸다.

비가 멎고 강물은 또다시 태연하게 흐르건만 불
쌍한 동생을 앓아간 원한의 소용돌이는 한참은 세
월과 함께 천덕이의 가슴을 끝없이 허벼주었다.

그후부터 강기슭에는 비가 오면 달래를 찾는 천
덕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이 달천강을 달래강이라
고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옥 성 일



풍자시

죽음의 환영곡

조영사

미쳤다 미제
이 세상에 생겨난 그날부터 미쳐서
인디안의 백팔우에 독버섯으로 솟아난 미제
산에서 산나물 뜯는 소녀를 땀이라고
총으로 쏘아죽이고도 통쾌하게 웃는 미제

미쳤다 미제
세상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인간생지옥인 제 나라를 두고
《인권》의 표본이라고 웨쳐대고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면서도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웨쳐대는 미제

미쳤다 미제
위주머니 터지게 처먹은 이라크의 원유가
소화되지 않아 게트립하는 미제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과
핵에 미치고 미싸일에 미치고
내정간섭에 미친 미제

미국은 미쳤다
세계 그 어디서나 타오르는 반미항전에
온몸 그대로 만신창되어
전쟁후유증에 림종의 순간을 맞이한 미제

아마 그것은
《반테로전》에서 얻어맞은 치명상
《인권》을 부르짖던 나발이 목에 걸려 생긴
후두암의 말기증세이리

죄는 지은대로 가는 법
냄새 잘 맡는 사냥개처럼
세계 그 어디에나 코를 들이밀며
객기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제
핵과대망상증에 미친 미제
돈 끼호페 살아있으면 그도 얼굴붉힐 미제

그 무슨 《원조》와 《인권》의 나발을 불어대며
거짓으로 세계를 소란케 하는 미제
그 미친 거짓에 그 누가 속으랴
그 미친병의 만능처방은 죽음

오, 세계를 뒤흔드는 반미항전의 목소리는
미쳐죽은 구린내나는 몸뚱아리를
이 행성우에서 영영 날려보낼것이다
미쳐도 더럽게 미친 너의 죽음엔
죽음의 환영곡이 온 세상에 울릴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8호 (루계 제802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3(2014)년 8월 1일
발 행	주 체 103(2014)년 8월 5일

ㄱ-46857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